

공군

1963年 5月 1日 發行

5

〈미사일·코메트 綜合〉

第 74 號

特輯

五·一六革命理念의 具顯

現代戰斗 軍民一致

共產主義理論의 戰術的背景

1963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커티스.르메이”대장이 XX월 18일 미제 5공군사령관 “제곱.E.??”중장을 대동하고 내한(來韓), 장총장안내로 ???을 비롯한 한국공군 주요부대를 시찰하였다. <사진=본부에서 장총장과 환담(歡談)하는 르메이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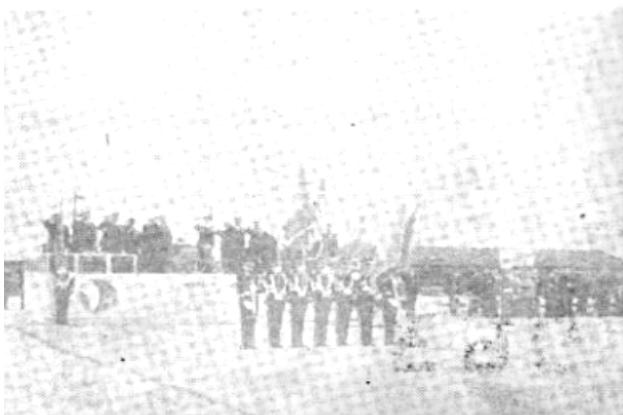


美空軍參謀總長
 커티스·르메이
 空軍參謀總長
 제곱·E·??
 空軍參謀總長
 안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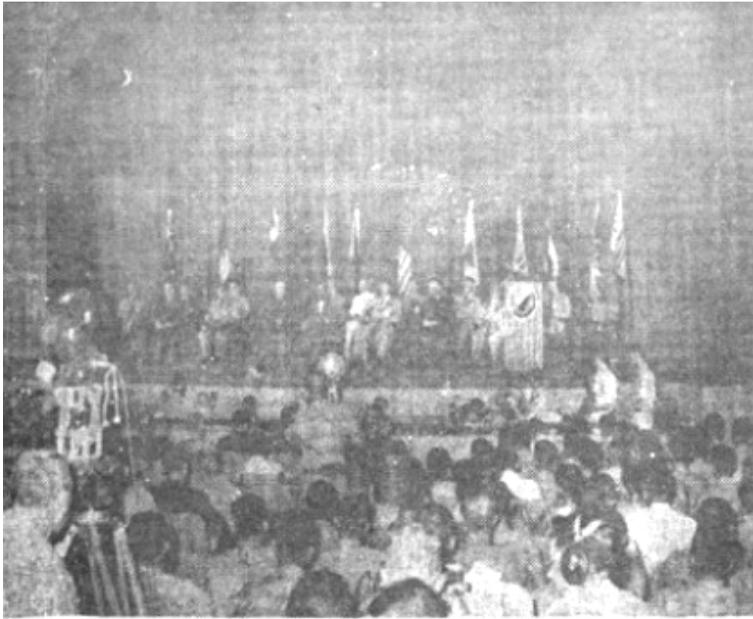


10 전비단(戰飛團)
 창단(創團) 10주년기념식
 4월 12일,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10전비단에서는 장 지량 참모차장을 비롯한 본부참모, 내외귀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1) 역대단장에 주는 기념품을 옥만호 단장이 장 참모차장에게 증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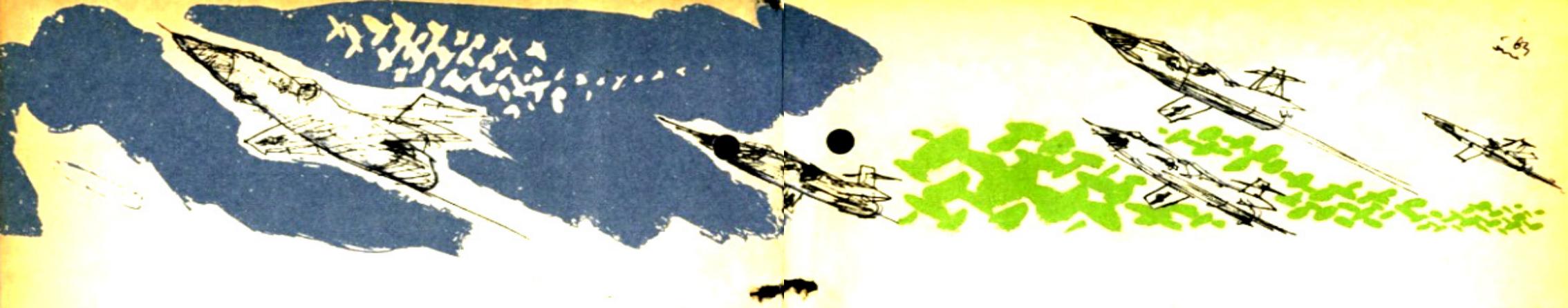
2) 동기념식 광경



(상) 참가 각국 대표가 참석한 「홀라잉 브라더스」대회 개최식 광경
 (하) 63년도 「홀라잉 브라더스」대회가 개최된 「클라크」미공군기지의 정문



(상) 우리 한국공군팀의 편대장 전형일 중령이 참가단장 장성태 대령에게 전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하) 우리 한국공군기와 한국공군을 소개한 사진전을 구경하는 현지 주민들.



<화보(畫報)>

현대전(現代戰)과 군민일치(軍民一致) 윤하선 2

특집(特輯) — 5·16 혁명이념(革命理念)의 구현(具顯) —

올바른 이념(理念)의 확립(確立)	홍 천(洪 泉) 10
5·16정신(精神)과 민족(民族)의 퇴로(退路)	유 덕 천(柳德天) 17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자아혁신(自我革新)	이 희 복(李熙福) 22
반공이념(反共理念)의 생활화(生活化)	이 철 주(李喆周) 26

☆ 소련의 공포정치(恐怖政治)	A·그리고레프 133
☆ 백림문제(伯林問題)의 배경(背景)	L·그레이 129
반공교육(反共教育)과 정병육성(精兵育成)	홍 인 표(洪仁杓) 50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침략정책(侵略政策)	김 창 순(金昌順) 44

▲ 수기 ▼	조종사 생활 10년의 변(辯)	지 승 룡(池昇龍) 106
	정비사생활 10년	이 수(李 壽) 110

▲성 베드로 대사원(세계경이 순례)..... 김 영 주 140

장영란 將兵欄	항공정찰(偵察)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 재 관 118
	<쿵트> 양 말 짝	김 경 태(金慶泰) 122
	<시> 소녀	도 종 열 123

미·소 우주개발경쟁(宇宙開發競爭)	이 중 수(李鍾秀) 72
<항공스포츠> 글라이더	김 석 환(金石桓) 32
최신예요격기(最新銳邀擊機) F110	이 재 우(李在雨) 38
현대전(現代戰)과 화생방(化生放)	김 의 식 57
세계의 항공세력(恒貢勢力)(상)	홍 성 표(洪聖杓) 63
▲분석철학(分析哲學)의 개요(概要)와 과제(課題)현대철학강좌	김 형 석(金亨錫) 77
▲한국의 의례(儀禮)(연재심포지엄 한국의 자랑⑤)	김 은 우(金恩雨) 84

▲ 편지 ▼	어머님께	맹 일 영 92
	오빠에게	권 성 자 94
	아빠에게	이 건 희 96

시	오월에 쌓은 탑(塔)	박 의 원(朴椅遠) 128
글·그림	벽 공(碧 空)	장 윤 우(張潤宇) 91

▲ 수필 ▼	가을 하늘과 같이	윤 오 영(尹五榮) 112
	꽃나무와 국민주택	박 현 서(朴賢緒) 114
	비누와 인생(人生)	김 자 립(金慈林) 116

<요약> 제3제국(帝國)의 흥망(興亡)①	민 철 응 98
반공수기 적지(敵地)속의 폭음(爆音)(북한동포는 나를 살렸다③)	이 준 수 143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 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3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金榮浩)
 인 쇄 처 • 공군 교재 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현대전(現代戰)과 군민일치(軍民一致)



인류는 그 역사가 시작된 이후 한편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갈망하면서 전쟁이 없이 지나온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번 세계역사책을 훑어보면 그것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윤하선
 <내무부 기획조정관>

1

먼 옛날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근대에 들어서도 17세기 유럽제국들은 이 세기의 약 75%를 전쟁하고 있었으며 18세기에는 50% 19세기에는 25%를 전쟁 하였으며 소전투를 계산한다면 강대국들은 이 기간 중 대부분 전쟁하고 지냈던 것이다.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것 같이 생각해 온 미국만 하더라도 약 160년이나 되는 역사에서 육해군이 어느 날이나 어느 곳에서 작전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겨우 2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전쟁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인류 역사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떻게 하여서 발생하였는가?

전쟁 발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국 전쟁이란 권력정치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 힘은 유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권력 정치에 있어서는 힘은 최후의 정치수행의 보장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욕망과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사회에 있어서 정치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욕망과 이해를 좇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언제나 그들이 충돌 없이 잘 어울려서 산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거기에는 이와 같은 이해와 욕망을 둘러싸고 추잡하고 시끄러운 싸움과 불화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싸움과 불화를 말리며 옳고 그른 것의 시비를 바르게 캐어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바로 잡고 사회의 정의를 밝히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며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정치의 기능인 것이다. 특히 외적의 침략에 대하여 그 소속 사회구성원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의 기능을 누가 맡아서 수행하였으며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구로서 정부가 있는 것이다.

2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정치가 없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는 국가가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본다면 문명 발생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사람은 그 역사의 기원에서부터 국가를 형성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만들었던 가장 오랜 사회는 가족이었을 것이다. 혈연을 따라서 만든 가족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이룩한 최초의 사회였던 것이다. 이 원시적 가족은 현대의 가족과는 여러 면에서 같지 않았다. 현대에 있어서는 여러 종류의 사회가 있지만 고대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가족만이 유일한 사회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모든 요건은 이 가족 속에서만 채워져야 하였던 것이다. 그 이외에는 사람들의 생존요건을 충족해 줄 곳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은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주는 유일한 사회였다. 사람들은 가족 속에서 소비생활과 생산활동을 같이 하였으며 그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하였으며 희노고락(喜怒哀樂)을 같이 하였고 공동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올렸으며 타사회(다른 가족)에 대하여 자신의 가족원을 보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생산기술이 발달하여 생산이 증가되어 다른 가족과 거래를 갖게 되고 사람의 지식이 발달 되어 감을 따라 가족사회도 점차로 변질하여 갔다. 이때까지는 가족만으로 사람들의 생존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지만 가족만으로는 도저히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갔던 것이다.

이리하여 가족이 가지고 있던 교육, 경제, 오락, 종교, 경찰, 외적 방어의 여러 기능은 분화되어 이 각 기능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들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기능을 위하여서는 학교가, 생산기능을 위하여서는 각종 생산기업체가, 종교기능을 위하여서는 교회가, 오락친목기능을 위하여서는 오락기관 친목단체가, 병치료를 위하여서는 병원이 생겼으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적의 침범을 막고 소속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국가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시적 자연 발생적 가족기능이 분화하여 그 분화된 가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 <이것을 결사(結社)라고 한다>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국가도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이외의 다른 결사와는 특이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기능은 다른 결사의 기능보다 포괄적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사회질서와 평화의 유지 사회정의의 구현 외침 방어와 같은 기능은 어느 특정한이나 특정 사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또 교육, 경제, 종교 등과 같은 어떤 개별적 목적만을 위하여서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기능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국가기능의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대하여 포괄적 일반적 공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격의 획득 상실 등도 교회의 회원이 되듯이 자신의 자의(恣意)에 따라서 마음대로 회원이 되거나 그 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로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하여서 정해지는 일이 대부분인 것이다.

국가의 기능이 이와 같이 포괄적 일반적 보편적인 것과 같이 국가의 권력도 다른 사회의 권력보다 우월하며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가권력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뒷받침으로서 국가만이 조직적인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국가만이 경찰, 군대, 교도소 등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그 힘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능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극한적 권력을 써서까지도 국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에 국가가 다른 결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국가의 이와 같은 극한적 권력 행사에 관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한 국가 안에 있는 개인 간에서나 사회 사이에서 또는 개인과 사회 간에서 또는 국가와 개인 국가와 사회 간에서 충돌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국가가 최종적 해결자(裁決者)로서 존재하는 까닭에 충돌과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또 국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국가와 국가 간에서 충돌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국제연맹이나 UN과 같이) 그 해결을 실천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간에서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면 당사자간의 외교교섭에 의하여서 또는 제삼국의 알선에 의하여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외교교섭이나 제삼국의 주선에 의하여서도 해결 안 될 때에는 결국 각국은 그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하여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힘에 의한 해결 방법이 곧 전쟁인 것이며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고 크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그의 「전쟁론」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도 이 뜻이었던 것이다.

3

전쟁이란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가와 충돌 분쟁하는 경우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극한 상태라는 것을 이상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면 현대전이란 어떠한 것인가?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나타난 것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걸쳐서였다. 이 시대는 소위 절대주의적 전제주의의 발전 시대로서 봉건 영주 중의 최강자가 유능한 왕조를 수립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와 용병인 상비군을 창설하여 민족통일국가를 창조하던 시대였다. 이와 같은 절대주의는 18세기를 통하여 줄곧 발전하여 프랑스 대혁명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중세의 봉건적 지방할거주의로부터 벗어나 민족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와 지역을 토대로 하여 국가를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국가는 왕의 국가였으며 그 관료 군대도 모두 왕의 관료 왕의 군대였다. 왕은 이와 같은 새 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소위 중상주의라는 경제정책을 써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금 은을 캐어다가 재정의 뒷받침으로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각 왕조의 이해의 충돌 결합 식민지 개척을 위한 경쟁 등이 치열하여져 갔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 시대에는 각 왕가의 전쟁이 쉴 사이 없었으니 30년 전쟁(1780-8) 7년전쟁(1756-63) 스페인·영국·화란[네덜란드]·프랑스를 둘러싼 식민지전쟁 등 일련의 국제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전쟁을 겪는 가운데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결코 한 국민과

다른 국민과의 전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왕과 다른 왕과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전장에서 총칼을 맞대고 싸운 것은 돈에 의하여서 팔려 온 용병과 용병과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기 나폴레옹이라는 군사적 천재가 나타남으로써 전쟁의 의의는 그 이전과는 전연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징병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전술을 고안해 냄으로써 인근 제왕조를 제압하고 한때 전 유럽에 군림하였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유럽정복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국민은 애국심을 계발케 되었으며 그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려는 민족적 자각이 각성케 되었으니 특히 프러샤에 있어서는 징병제에 의한 군제 개혁을 비롯하여 드디어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더불어 나폴레옹을 무찌르고 유럽은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다.

이 나폴레옹전쟁에 의하여 이때까지의 왕가와 왕가의 전쟁, 용병과 용병의 전쟁은 국민 대 국민의 전쟁 민족 대 민족의 전쟁으로 그 의의를 바꾸게 되었으며 전쟁의 양상도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은 국민 대 국민의 전쟁으로 그 질을 바꾸게 되었지만 그것은 형식상으로만 그렇게 보였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국민개병제와 민족적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일단 전쟁이 나면 국민은 누구나 전쟁에 대하여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전쟁이라고 느끼고 또 국민은 누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나 그 전쟁을 시작하며 전쟁을 진행하며 지도하는 것은 여전히 왕과 그 종복인 관료, 군간부들이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민의 전쟁이 되려면 국민이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직접 지도하고 진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러서 달성되었던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시민사회는 확립을 보게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밖으로의 정치적 무력적 침략보다도 안으로 산업을 육성부흥시켜서 각국은 소위 근대적 산업국가를 완성하고 국민의 물질생활 향상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근대적 산업국가 사이에는 특히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또다시 이해의 충돌이 생기고 그것은 식민지를 둘러싼 세계의 분할로 나타났으니 이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 결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1차 세계대전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국민총력전이였다. 그것은 인류역사상 처음 보는 대전쟁이어서 참가국

31개국(연합국측 27, 동맹국측 4개국) 그 총인구 15억(세계인구의 3/4) 동원병력 6,000만, 전사 900만, 부상 2,000만, 직접전비만 하여도 3,300억 불을 돌파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은 어떻게 하여 가능하였던가 그것은 국민의 총력전이었던 까닭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그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며 그 천문학적인 전비를 조달하며 군수품을 지원하려면 절대주의 시대에 있어서와 같이 일개 왕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군대를 사들이고 그의 재정에 의하여서 전비를 마련하기에는 전쟁의 규모가 너무나 컸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이 전쟁의 규모가 커진데 대하여서는 그 배후에 있는 근대 민족국가의 발달과 근대 산업의 방대한 생산력과 과학의 발달 끝으로 이에 따르는 전술 전쟁방법의 변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되었던 것이다. 흔히 전술상에서 전쟁은 점으로부터 선으로 선으로부터 면으로 면으로부터 입체로 발전 변천하였다고 한다. 1차대전에 의하여 전쟁은 입체전까지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서도 인류는 또다시 2차세계대전을 치르게 된다. 그것은 1차대전의 결과 맺어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하여 나타난 세계질서에 대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불만을 품고 소위 전체주의적 세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데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다.

2차대전에 의한 인적 물질 손실은 1차대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독일에서는 국민 25인에 1인의 전사자를 냈으며 소련은 750만의 전사자와 행방불명자(국민 22인에 1인)를 냈으며 교전국 전체의 전사 및 행방불명자는 1,500만 비전투원을 합한 사상자 수는 4,300만에 달하였다. 물질 손해도 막대하였으니 영국은 국부(國富) 1,200억 불의 1/4 이상을 파괴당하였으며 소련은 1,280억 불을 잃었다. 전비도 1조 4천억 불이라는 숫자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음으로서 패전국가는 물론 전승국가도 패전국과 별다른 없는 황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2차대전이야말로 국민총력전의 최고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전은 이차대전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전선(前線) 후방이 있을 수 없다. 또 전투원 비전투원을 가릴 수 없었다. 국토 내 적기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전장(戰場)이었으며 모든 것을 전쟁 노력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전투원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전쟁은 원자탄의 투하에 의하여서 종결되었으니 바야흐로 앞으로의 전쟁은 원자력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4

전체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에 의하여서 2차대전 이후 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크게 선양(宣揚)되었으나 한편 독일의 공격에서 겨우 이겨 남은 소련 공산주의도 크게 진출을 보아 전후의 재건과 국제협조에 큰 압적 존재가 되고 세계는 민주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날로 심하여 갔다.

우리 한국 민족이 치른 6·25사변은 이 양대진영의 대립이 한국에서 불꽃을 잠깐 튀긴 불행한 사건이었으나 우리 민족이 겪은 그 고난을 생각할 때 현대전이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체험케 하여 주었다.

이상에서 본바 현대전의 특징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것은 최소한 국가와 민족을 단위로 한 전쟁이라는 것, 둘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군인뿐만 아니라 (물론 군인도 국민 중에서 소집된다) 온 국민이 이에 참여한다는 것, 셋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전 국력을 이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 넷째 일정한 전장이라는 것이 없고 국토의 어느 곳이던 전장이라는 것, 다섯째 전쟁기술이 고도로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쟁기술이 고도로 과학화되어 있다는 데에 대하여서는 장래전이 2차대전시대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여 우주전쟁시대가 될 것이 예상되며 또 핵전쟁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하여 두고자 한다. 현재 민주공산 양진영이 합부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전의 특징을 가려 볼 때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과 민의 구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군민은 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군인으로서 군무에만 종사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국민의 일부에서 군무를 맡을 사람들을 골라서 일정 연한 군무에 종사케 하고 기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 및 사회의 기능 수행을 담당케 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국가 생활인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라고 하여 결코 다른 국민들과 국가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기 국가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맡은 바 역할을 달리하고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농민 노동자 상인 학생 등등은 누구나 군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모든 국민의 벗도 될 수 있으며 증오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농민 노동자 상인 학생들의 군대에서의 군인 생활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우면 그 군대는

국민의 자량이 될 것이며 그들의 군인 생활이 원망스럽고 비난의 대상일 경우에는 그 군대는 원망의 적(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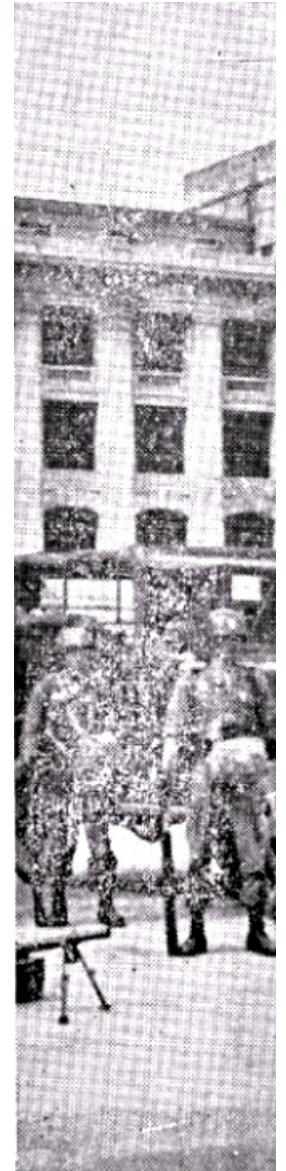
그러나 군인 생활은 결코 농민 상인 노동자 학생생활은 아닌 것이다. 농민에게는 농민 생활이 있듯이 농민이 일단 군에 들어가면 군인 생활을 익히고 배워야 한다. 즉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동양식이 있는 것이다. 군인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양식이 발달되어 그것은 다른 사회와는 눈에 띄이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군대와 기타 사회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양식은 전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령과 복종을 기간으로 하는 고도의 조직적 사회에 적응하는 행동양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군의 행동양식을 익혔다고 하여 국민들과는 다른 사람, 그들보다 우월한 것 같이 생각하여 어떤 특권의식이나 국민을 알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같은 태도와 농민이 농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농민의 태도와는 사회생활상에 있어서 아무런 우열의 차이가 없는 것은 것이다. 결코 군인이라고 하여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물론 군인에게는 국법으로서 또는 사회 관습상 여러가지 특권을 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이러한 특권을 의식적으로 내 휘두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나 사회가 군인들에게 특권을 인정해준 의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와 민족에 보답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든지 군인은 국민의 일부이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과 떨어진 군대는 현대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야 한다. 기타 군으로서 국민일체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이 있겠으나 요는 일단 유사시에는 국민 누구나 전투원이 되는 것이며 국민을 떠나서 군대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군인인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무에 뿔뿔히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할 때 훌륭한 군인으로서 국민에게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괴뢰는 언제나 우리를 재침략할 것을 노리고 그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대남 간접침략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이간(離間)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군민간을 이간하는 행동을 할진대 그들의 간접침략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된다. 그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군민일체에 대한 행동을 할 때 그만큼 우리는 북한괴뢰의 침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이다. 군민일치로서 적의 간접침략을 분쇄하여야 할 것이다.

특집

516혁명 이념(理念)의 구현(具顯)

1. 올바른 이념(理念)의 확립(確立)
..... 홍천(洪泉)
2. 5·16정신(精神)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 류덕천(柳德天)
3.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자아혁신(自我革新)
..... 이희복(李熙福)
4. 반공이념(反共理念)의 생활화(生活化)
..... 이철주(李喆周)



올바른 이념(理念)의 확립(確立)



불과 만 2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우리는 온갖 구제도를 뜯어 고쳐서 참신한 국가사회를 이룩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인 사실을 똑똑히 보아 왔다.

홍 천(洪泉)
〈공보부 방송관리국장〉

서언(序言)

문란했던 사회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땅에 떨어진 민족도의를 되살려 놓았다.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허덕이는 농·어민을 구출하는데 과감하였으며 구질구질한 지난날의 국민생활을 보다 간소하고 슬기롭게 개선토록 생활의 명랑화를 가져왔다.

우리 민족이 역사상 일찍이 가져보지 못했던 국가재건의 의욕과 민족적 긍지에 입각해서 체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도 바로 지난 2년 동안의 새로운 풍조라 할 수 있다.

이조시대로부터 물려 내려온 악유산(惡遺産)과 고질을 진정으로 반성 시정하는데 거족적(擧族的)인 노력이 경주(傾注)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대주의적 의타심을 버리고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치와 허영을 조작하던 온갖 독소를 배격하고 자주경제수립에 매진하게 됨으로서 민족의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중흥을 기약하는 경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해 우리는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혁명사업이 완수되는 날에는 우리는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서 신흥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여 승공통일(勝共統一)을 튼튼한 자유민주국가의 국력배양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부흥과 재건에 국가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민족의 사활을 판가름하는 엄숙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과감한 광정(匡正)과 눈부신 약진으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한 여명기(黎明期)였다고 할 것이다

5·16혁명(革命)의 사적(史的) 의의(意義)

19세기 초두에 무능 부패한 독일의 정치에 대하여 철학자 피히테는 강력한 권력정책의 합리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비방의 대상이 되어 있던 마키아벨리를 “존경할 수 있는 총명하고 공적있는 자”라고 칭송하였으며 국가의 자기보존은 현실정치의 격률(格率)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또한 변증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헤겔 같은 철학자도 젊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수단의 선택은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 해독과 암살이 — 반적인 무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온건한 대항의 시도도 도로(徒勞)일 것이다. 사멸에 가까운 생명이란 것은 좀 가혹한 거친 치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조직되지 않는다.”라고. 참으로 현명한 식견이 아닐 수 없다.

무릇 어느 사회든지 무능 부패되어 있을 때 이를 광정(匡正)하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능 부패한 사회를 광정하는 강력한 정치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인 것이다. 어느 국가사회에서나 만부득이한 비상적 방법에 의해서 낡은 질서와 조직을 새로운 그것으로 대치하려는 운동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생각하면 흐르는 물에 파란곡절(波瀾曲折)이 있는 것처럼 인간사회에도 변화와 개혁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한 개인의 한평생을 살펴보다라도 때로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혈고 상하는 중환이나 또는 뜻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때에는 자신의 생명과 생활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수술치료나 비상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구한 역사가 계승되어 오는 동안에는 내우(內憂)나 외환(外患)으로 인한 절망과 위기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나라

민족의 유지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비상수단에 의한 내부개혁과 거족적인 대외정책이 요구되는 것이 역사적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5·16군사혁명은 이러한 역사적 요청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위한 낡은 인습과 제도의 수술행위라 보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 혁명이 지닌 의의야말로 우리 민족사상 자못 큰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상수단에 의한 내부개혁 즉 혁명을 두 차례나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4·19의거로 우리는 독재와 부패의 아성인 자유당정권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시 말하면 장기집권만을 노리고 국가민족의 앞길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당정권이 이 국가사회를 암흑과 궁핍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에 피끓는 젊은 학도들이 솔선 봉기하여 그들 독재부패의 집권층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기백을 내외에 과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4월혁명의 거룩한 정신을 이어 받아서 민족사의 새로운 발전을 수행해야 할 민주당 정권은 너무도 무력하고 무정견(無定見)하며 또한 전정권시대 관료층의 독선과 부패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사회의 궁핍과 혼란을 한층 더 심각화하였던 것이다. 뿐더러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공산괴뢰의 간접침략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어냄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군사혁명인 것이다. 국군장병에 의한 이러한 최후수단만이 4월혁명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또한 공산침략하에서 귀중한 신명(身命)을 받쳐 조국을 수호할 수많은 호국의 영령들에게 보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2년 전 5월 16일의 군사혁명인 것이며 또한 혁명주체의 구성은 애국애족심과 실천에 과감한 국군장병으로 되었던만큼 그 하나하나의 조치는 곧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 하겠다.

5·16혁명(革命)의 성과(成果)와 과제(課題)

우리는 여기서 이번 5·16혁명의 의의를 역사상의 다른 어떤 혁명적 사실의 그것보다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지난 2년 동안의 엄청난 성과와 앞으로의 혁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5·16혁명은 조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과거의 혁명적인

거사가 대개의 경우 국정을 부패에서 광정하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5·16혁명만큼, 민심의 동향을 철저히 대표한 것은 일찍이 그 유례가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공산제국주의자들이 재침할런지 모르는 준전시하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시도 시름을 놓 수 없는 긴박한 정세하에서 국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무능 무력해서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위정자들이 당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혼란과 분규를 조성할 때 공산오열(五列)들은 이러한 현실을 기회(奇貨)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방면에 침투 도양(跳梁)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만약에 5·16혁명이 없었더라면 제2의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야기되었을 것이며 조국은 공산주의의 마수(魔手)에 넘어갔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이슬아슬한 찰나에 공산군과 피 흘려 싸운 이 나라의 젊은 간성(干城)들이 분연히 쫓기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을 내외위환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둘째, 5·16혁명은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기에 과감하였으며 이 나라에 새로운 풍토와 질서를 가져온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혁명정부는 용의주도한 계획과 행동으로 무혈혁명을 성취하였으며 자유당 12년과 민주당 1년간의 누적된 온갖 병폐를 거의 제거하고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 있어서 면목을 완전 쇄신하였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경제제건을 비롯한 승공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약적인 업적은 일찍이 다른 어떤 혁명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엄청난 성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이지러진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혁명공약 제3항에도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혁명과업은 단순히 정권교체나 정치개혁만으로써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시는 부패나 부정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과감한 수술치료를 하는 동시에 혼탁한사회환경속에서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체질개혁으로서 인간혁명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한 혁명지도자들의 구상과 의원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고조된 국민도이나 양양(昂揚)된 민족정기가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과업도 설계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풍의 진작은 민정에 앞서 오늘날 거국적 과도정부를 수립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혁명이념(革命理念)을 어떻게 구현(具顯)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5·16혁명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남미제국이나 후진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집권욕에서 비롯된 그런 군사쿠데타와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즉 이번 혁명은 4·19학생의거의 계속으로서 멀리는 이조오백년 이래의 사대주의관념과 파벌조성 및 허례허식의 낡은 인습을 타파하고 가까이 해방 후 십오 년 동안 누적된 부패와 부정 및 무능을 차제(此際)에 깨끗이 제거해 버리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과감한 수술을 하지 아니 하고서는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라든가, 국민경제의 올바른 번영을 바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군사혁명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아니고서는 날로 가중되는 북한공산도당의 간접침략을 방지할 수 없으며 자칫하면 국가의 운명마저 중대한 위기에 몰아넣고야 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긴박한 사태가 드디어 애국적 군인들로 하여금 최후의 비장한 결의를 단행하게 만든 것이니만큼 5·16혁명은 순전히 이 나라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우국일념의 발현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5·16혁명은 4·19의거에서 수행하지 못한 혁명과업을 진지하고도 과단성 있게 그리고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오랜 부패와 무능을 발본색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혁명의 제1단계는 세계에서도 수범(垂範)이 될 만한 역사의 일면을 찬연하게 장식해 놓았으며 제2단계는 앞서 전광석화 식으로 절개수술하여 악성의 병균을 모조리 제거한 환부를 되도록 속한 시일 내에 꿰매고 아물게 하여 환자인 국민을 소생시키는 일이었다. 다시는 병균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조성하기만 한다면 혁명과업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사회가 건설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승공통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혁명정부는 애당초의 혁명공약대로 민정이양(民政移讓)을 전제한 정치활동을 허용했으며 정정법(政淨法)을 대폭 완화하여 혁명과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민간정부의 수립을 염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계는 다시금 혼란과 당쟁의 구태를 의연 답습하였고 집권에 골몰한 구정치인들은 과거의 잘못은 추호도 뉘우침이 없이 모처럼 혁명으로 이룩한 복지국가에의 기틀마저 위태롭게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의 난립상과 구정치인들의 자각없는 소행은 마침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금 실망을 서두르기보다는 이 나라의 장래를 반석의 기틀 위에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안정기가 필요하게 되어 거국과도정부기간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치인들의 체질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미처 이루지 못한 혁명 제2단계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거국과도정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다운 이 나라의 자유민주복지를 위해서 5·16혁명이념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 거국과도정부 기간이 간절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세삼 강조해 두는 바이다.

(p21에서)

민은 살 길을 찾지 못할 뿐이다. 지금은 오히려 건국의 이념이오 혁명의 이념을 보다 강하게 다짐하면서 정권의 수수(授受)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우리의 갖은 지혜와 능력을 전부 그 이념달성에 경주하여도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제거하고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터인데 이제 우리의 정력을 분산시키고 불필요한 일이라기 보다 오히려 우리 생활에 장애를 가져오는 방향에 도노(徒勞)를 한다는 것은 자학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과거와 미래를 헤아리지 않고 목전의 자기이익, 자당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에서 오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란 자기와 자파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대다수의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경륜을 해야 할 것이므로 소를 버리고 대를 살릴 것이며 감정보다 이성이 지배하는 행동과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고로 우리의 지금 이 시기에오 혁명이념을 국민전체의 이념으로 우리의 행동이 단결되는 데서 우리의 살길은 열리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끝>

5 · 16정신(精神)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국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을 돌볼 여지도 없이 방임된 그대로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듯하다.

류덕천(柳德天)
(재건국민운동본부
향토개발부장)

머리말

오늘의 우리는 어디서 왔고 미래는 또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는 캄캄한 가운데서 좌충우돌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과거가 만든 역사도 우리에게는 아랑곳 없거니와 오늘의 우리 생활을 기록에 조차 남겨 놓을 생각도 없이 모든 일을 오늘로서 끝을 맺고 말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뒤를 재어 보는 사고가 없는 듯하다. 마치 여름 철에 비가 오려고 하면 하루나 이틀 앞서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무더위지게 되면 하루살이 떼가 몰려나와 길가는 사람에게도 부딪치고 뜨거운 등불에도 날아들어 이튿날 아침에 보면 등잔 밑에 무수하게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국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을 돌볼 여지도 없이 방임된 그대로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듯하다. 그림자처럼 확실하지 못한 권력, 국민들이 누구에게 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데 받을 사람들만이 범석대고

있는 판국이다.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도를 받을 사람의 의사는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아보려고 하는 성의조차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살기에 쪼들려 그들 생활에 직접 상관되는 일 아니고는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 냉담한 태도다.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다. 정치인들의 대립보다 이 차가운 분위기가 더 병적인 것이다. 한쪽은 열중인데 대해서 다른 한 편은 냉중이다. 거리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구경이나 하고 만다. 이만큼 되면 국민이 어쩔다는 것 쬐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은 해방도 독립도 혁명도 보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구한국 시대도 일제의 식민정치도 다 겪었다는 탈관된 태도이고 보니 누가 뭐라고해도 다 알만한 알아라는 것이다. 이렇도록 된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반성과 자아를 비판할 줄 알아야겠다.

1. 현실(現實)을 빚어낸 원인(原因)을 잊지 말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가득하다. 민족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것이 그 으뜸이리라. 그러나 생각하면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이조의 당쟁이 반대당을 없애기 위하여는 외세를 힘입어야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천하대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쇄국정책을 썼기 때문에, 벼슬아치들이 토색질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일제에 병탄되었다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해방은 되었으나 남북이 양단되고 무도한 공산당이 동족인 것도 돌보지 않고 남침을 하여 상잔하는 비극을 연출했었다. 이러한 중에도 장구한 집권을 하기 위하여 피란 수도 부산에서도 5·26의 정치파동을 일으켰고 환도 후에도 개헌파동, 부정선거 등 방약무인한 행동을 자행했다. 이 꼴을 그저 볼 수 없어 4월혁명이 일어나서 독재자를 추방했고 국민의 중망을 띄고 집권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들은 국민의 촉망을 무시하고 같은 당내에서 분파를 일으켜 마침내 분열함으로 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집권한 민주당도 소신대로의 시정을 못하고 무위무책과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그때의 국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과히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디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정도로 망각되고 만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이 있었다. 만일 그때 그 양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날 지경이다. 이것을 절개수술한 것이 바로 2년 전의 5·16혁명이었음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건망증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5월혁명 때문에 정권을 박탈당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막힐 일이 아닐까? 군사혁명으로 군정에 정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그 정권이 지금쯤은 누구에게 갔을까 생각해 보시도록 권고를 해보고 싶다. 과거가 이런데도 전연 불문에 붙이는 것이 관대하다고 할 수는 있는 일인가 판단이 잘 가지 않는다. 그렇도록 국가의 운명을 위기일발의 처지에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또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서 국민을 너무 어리석게 생각하고 모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고방식이 이렇다면 혁명이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 아닌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거니와 2년의 군정을 하고서도 아직 민정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군정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것은 국민이 더 불쾌하게 생각해야만 할 일인데도 정치인들이 군정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러나 국민은 외면하는 태도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자가반성을 해봄직도 하다. 무기를 가진 군정이 무서워서 그렇다고만 보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 우리는 국민들의 차디찬 뒷공론에서 진정한 그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지 않는가?

2. 오늘이 어제와 같으면 내일도 같을 것이다

오늘이 어제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었고 인생의 소모다. 어제를 오늘까지 연장하는 것은 현상유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후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단 하루라도 답보를 했다면 그만큼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오늘은 눈부신 내일을 맞이하는 준비시간이다. 이 소중한 시간이 어제보다 진전이 없었다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기대를 걸기가 힘든 일이다.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말하자면 구태의연한 것이다. 우리는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혁명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우리들의 생애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우리가 단순한 변화를 바란 것이 아니고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혁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은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바랄 수 없다. 우리의 생활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효율하는데 있는 것인데 혁명이라는 강한 경풍이 올렸는데도 그런 큰 자극에도 불감증을 가진다면 이것은 실로 중대한 사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고의로라도 혁명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만들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이 인생의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오는 시간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의 확충이다. 그런데 그것을 공허하게 보내고도 우리에게 행운이 시간과 같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우부(愚夫)의 처사일 것이다. 오늘은 보다 충실한 내일을 맞기 위하여 어제보다 충실한 오늘을 만들고 그 위에 내일을 건설해야 우리는 전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변화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동향도 그렇고 경제면에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생태도 여전하다. 이렇다면 내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내일이 캉캉하면 이것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견의 상위(相違)가 있고 정당이 다르고 직책이 같지 않기로니 그 같지 않은 것은 같은 것을 찾기 위한 이견인 것 뿐이라야 한다. 서로 위치를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차츰차츰 접근해져서 마지막에는 일치를 보아야 할 것을 끝내 만나지 못할 평행선을 이룬다든지 점점 상거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위는 불화합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당이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당이다. 다 같이 민주주의의 노선을 걸어가고 한 나라 안에 정당이라든가 아무리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공산주의의 정책보다는 가깝고 용납될 수 있는 저도의 상위가 아니겠는가? 정책의 차이가 심하기로니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공산주의보다는 나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은 같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크고 요긴한 것은 동일하고 적은 부분 지엽적인 문제만에 상위가 있는 정도다. 이런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평생에 용납할 수 없는 견원지간(犬猿之間)이나 되는 것처럼 다투어 공산주의자들의 박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3. 혁명이념(革命理念)의 계승(繼承)만이 국가민족(國家民族)이 사는 길이다

우리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5·16 직전의 국내정세는 춘각도 좌시를 불허하는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국민과 정치인 자신들이 정직하게 시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을 부인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혼란이 장구한 독재를 겪은 국민으로서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대담하게 방치해 버릴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긍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사태를 방치해 두었다면 즉 5.16혁명이 일어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수습을 못했더라면 지금쯤은 공산당 천지가 완전히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대로라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미지근한 정정법 정도로 구정치인의 활동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인민재판을 받고 정치인 전면해제니 또는 군정을 연장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등등의 시비를 논위할 형편조차도 못되고 완전한 정적 속에 잠들고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한 사상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전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백지 위에서 생각을 굴리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는 5.16혁명 발발당시의 제반 여건을 똑바로 기억하는 조건 위에서 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혁명은 우리 국민의 생활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정 2년간의 시책에 있어서는 과오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그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과오 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오나 실패 때문에 혁명을 부정하는 태도로 나올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군정은 필요 없는 것이 폭력으로 정상적인 정권을 빼앗은 것처럼 정치인의 일부가 적대시하게까지 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정직하게 공과를 다 인정하면서 그 터전 위에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는 길을 신중히 그리고 조용하게 질서 있게 되어 나가서 국민 생활에 안도를 주는 것을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또 혁명정부가 시정에 결함이 있었어도 혁명의 이념마저 말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 국민사상의 확립, 둘째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셋째 민생고의 해결과 국가자주경제 재건, 넷째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하겠다는 이념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았는가? 이 이념달성을 위하여 시책면의 결함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도 이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념이 독재에 의해서 또는 우유부단에 의한 방종에서 그 이념이 말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것을 재강조한 것이 4월과 5월의 혁명이다. 이제 당시의 집권자들이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는 부인하고 한다면 이 다음에 올 사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간단하다. 모든 것이 악순환될 것 뿐이고 국

(P16으로 계속)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자아혁신(自我革新)



5·16혁명을 계기로 하여 사회악이니, 구악의 일소, 또는 체질개선이니 세대교체라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통 법규의 준수가 강조되고 외래품이 추방 되었고, 또는 관기확립, 상도덕의 수립 등등이 역설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희복(李熙福)

<문교부(文敎部) 수석편수관(首席編修官)>

1. 자아의 존엄성

이러한 질서유지나 도덕률의 확립은 새삼 5·16혁명 이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이전부터 인간교육, 가정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입장에서 비판되어 왔고 강조되어 왔던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혹자는 평하여, 구시대와 신시대의 교체로 인한 혼잡이라고 하였고, 혹자는 봉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하여간 도덕교육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높았고, 어른의 세대로 이미 굳어졌으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나 희망을 걸자는 비판론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도덕률의 문제도 단적으로 나타내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살아갈 권리가 있되,

누구나가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여 가치있는 생애를 설계하기에 노력한다. 교육 역시, 가정교육이건 학교교육이건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고 사회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곧 인간의 존엄성을 시인하고 있는대로의 자아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아로의 존엄성을 높이자는 것일के고,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자아혁신이나 인간개조라는 내용은 자기로서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고, 인간개조는 개인을 포함한 사회적 인간의 존엄성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협조하고, 성스러운 사회건설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있어야 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의 바람직한 기준은 어디에 들 것인가, 과거에도 삼강오륜의 사상이 있었고, 중세기 이후도 종교적 도덕률이 사회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현재에 필요한 사회윤리나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인격형성에 주 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생활에 있어서 자주적인 진취성을 기른다든지, 정사선악(正邪善惡)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거나, 필요한 교양을 몸에 지니도록 할 것이며,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등은 일반국민으로 지녀야 할 개인의 교양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집단의 예의를 지키며, 정의를 사랑하고 사회상태를 개선하며, 국제친선이나 인류평화를 증진시키는 등은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누적된 악습도 일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뜻대로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간의 믿음은 없어지고, 이기적인 추태는 꼬리를 이어 인간의 존엄성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인간 자신의 권위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2. 인간성(人間性)의 변화(變化)

인간성도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해가고 진보되어 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 속도가 급격스러운 경우는 특수한 때 외에는 드물다.

일례를 들면 혁명이란 외적 관습이나, 정치제도에서는 획기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고방식이나 오랜 전래의 습관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변한다 하여도 장시일을 두고 점진적으로 혁신된 풍조를 자기 자신에게 동화시켜 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큰 정치적 혁신이 있었다 해도, 그 도덕적인 결과

는 적어도 2, 3년의 시일이 경과한 다음, 다시 몇 해의 추이를 기다려야 한다. 정치적 혁신이나 교육의 성과도 역사가가 제정할 것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정을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 2년의 체질 개선은 시기적으로 짧다는 느낌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욕과 자각이다. 무릇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하였을 때는 단시일내에 예기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다만 명령에 의존한다든지, 제도의 압력에 의한다면 영속성도 없거나와 소기의 효력도 거양(擧揚)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인간개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전통적 습관을 가려서 계승하고, 바라지 않는 관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서부터 되풀이되어 습관화되어야 힘이 되고 살이 되어 체질화되는 것이다. 국민운동이 명령이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는 내부의 힘에 기대하고, 이를 촉구하기에 힘쓰는 것도, 스스로 태도가 양성되고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덴마크의 국민이「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구호 밑에 국토건설의 일대사업을 감행하고, 근면하고 연구적인 국민 기질을 이룩한 것은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의욕적인 국가목표를 내세우고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국가적 사회적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인간성은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촉진시키는 인간성으로 개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연 색다른 각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인간 본연의 자태에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각과 결심의 뒷받침으로 그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 동시에 이를 지도하고, 이를 추진하는 분들의 지도 방법이 민중의 심리에 맞아야 하며, 그 의욕을 돕는 것이 라야 함은 물론이다.

3. 사회인(社會人)의 개조(改造)

근대 교육은 지식의 전수를 위주로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개성의 계발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가, 이 양자를 지양하는 사회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적응되어야 하는 한편, 사회를 개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개조 역시, 대상은 개인이나 목표는 사회에 둔다고 할 것이다. 인간개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도덕도 원래 사회를 전제로 하는

도덕이다. 개인만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도덕은 필요하지도 않다.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대로 행동하고, 느낀대로 처사해도 아무런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더라도 도덕적 판단이니, 도덕적 책임이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영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도덕적 활동은 모든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이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척도에서 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도덕의 기준이 낮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개인과 사회환경의 교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도덕률이 적용되는 사회구성의 문제도 단순하지는 않으나, 그 사회조직에서 오는 도덕적 가치 기준의 낙차를 조정하는 문제도 지나쳐 보기는 힘들다.

일례를 기업이나 상업에 들어보자. 상업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할애비도 속인다」는 말과 같이 원가를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조금이라도 더 붙이려고 한다. 즉 상인 세계는 그 세계대로의 도덕률이 있다. 그러나 이 도덕도 일반사회에 공통되는 것이어야지 부당한 이윤이란 사회성에 어긋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정당한 이익에 의한 봉사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명량화를 기하고 우리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인간의 개조는 요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인격의 양성으로부터 꾸준한 습관화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개조가 가능하여야 비로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흔히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약점으로 논의되는 사대주의 사상의 과잉, 권노(勸勞)정신의 결핍, 과감한 진취성의 부족 또는 건전한 비판정신의 결여 등등은 이것이 직접 인간개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도덕률이 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실천된다면 무력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약점을 골라서 시정하는 방향도 방법의 하나이겠으나, 바람직한 점을 권장하는 면으로 지도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하여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사고방식보다 인간개조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이라야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다.

반공이념(反共理念)의 생활화(生活化)

※…반공이념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곧 민주와 자유의 질서를 공…※
※…고히 하고 자유와 민주를 침해하는 여러가지 형태 속에서 이…※
※…념적으로 대립되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침투를 의식적으…※
※…로 분쇄하는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이철주(李喆周)
〈육본특전감실 집필위원〉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자는 혁명정부의 5·16 이념을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현했는지를 따지고 볼 때 만족한 대답을 얻기 어렵다.

반공이념을 생활화한다니까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명백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자신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들이 음양으로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반공이념을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반공이념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곧 민주와 자유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자유와 민주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침투를 의식적으로 분쇄하는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첫째는 자유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예로운 의무를 다하는 일 즉 매개(每個) 국민이 자기 앞에 부과된 임무를 충실히 집행하여 자유와 행복과 민권을 수호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자유와 민주를 지상최대의 적으로 삼고 이를 침해파괴하려는 공산주의의 침략위협을 분쇄하자는 것

그러나 이상 두 가지는 모두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많기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침투를 분쇄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체험에서 이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일정한 생활력과 그들대로의 현혹적인 이론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침투 방법이 다종다양하고 더 엄중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소홀히 취급하는 데서 본다.

소홀히 반공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은 곧 적의 침입을 묵인하는 것으로 되어 결과에 가서는 침식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 민주와 자유는 그 빛을 잃게 되고 머지 않은 장래에 인간들은 자기개성을 상실하고 노예노동자로서 전락하게 된다.

과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그런 생활에 순응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공산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산주의의 생리와 그 비도성(非道性)과 공산독재가 빚어낸 참상에 대해 깊은 용해를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의 모순된 본질을 제한된 지면에서 설파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본란에서는 나의 과거 공산치하에서 체험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두 측면에서 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측면은 경제적인 물질생활에서 오는 인간들의 처지이며

둘째 측면은 인간의 자유보장문제이다.

셋째 공산사회에서 인간들의 생활처지가 과연 어떠한가?

오늘 북한공산괴뢰를 비롯하여 공산위성집단들에서의 경제형태는 소위 사회주의경제과정이라고 한다.

또 국제 자체를 사회주의라고 한다. 이는 막스 레닌주의(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당이 자유세계의 어떤 일곽에서 공산당이 무자비한 무력폭동으로 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에는 사회주의 과정을 거쳐서 공산주의에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소련을 비롯하여 공산위성집단들은 형식상으로는 공산독재집단이면서도 아직막스 레닌주의가 규정한 공산사회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 공산독재를 46년간 자행한 소련자체가

사회주의의 완성계단에 있다고 말하고(호루시초프) 있으며 기타 공산집단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있다고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찌하여 오늘 소련이 사회주의 과정의 완성계단에 처하여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곧 모든 정치형태는 완전히 공산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경제면에서 사회주의 경제 본질이 설정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학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사회적(국가적) 완전소유로 전환시키는 것」

이라고 하고「생산물 분배가 노동과 수요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의한 자본주의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임무는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권력을 수립한 후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중략)

따라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전취(戰取)하는데는 어떤 나라던 역사적인 한 시대를 이룩하는 특별한 과도기가 필요하며 이 기간에 사회주의경제의 건설, 모든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 개조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상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을 요약하면 공산당은 공산독재를 위한 혁명의 목적이 바로 매개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노동력과 함께 생산의 전제가 되는 노동수단과 노동대상 즉 각종 유형무형의 원료·예를 들어 금광·탄질·토지·산림 등 자연물과 기계, 공장·건물 등등 따라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 재산의 전부를 포함한다)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국가적 소유 즉 공산독재집단의 소유로 완전히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온갖 재산을 국가적 소유라는 미명으로 수탈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로 된다. 이 소요기간을 소위 사회주의과정이라고 하고 이 기간에 있어서 개인소유를 국가적 소유 즉 공산당이 소유(수탈)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국가적 소유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적 소유형태라는 것이다. 국가적 소유형태라는 것은 공산당이 폭력으로 어떤 정권을 전복하였을 때 이전(既前)정권이 소유하고 있던 생산수단과 공산독재를 반대한 사회인의 생산수단을 즉각적으로 공산독재

기관의 소유로 접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외에 잔존하는 개인들의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적 소유형태로 통합했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 국가적 소유 즉 공산독재기관의 소유로 완전히 이행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적 소유형태라는 것은 도시의 개인생산업자들은 공산협동조합으로 농촌의 개인농민은 농업협동조합(집단농장)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 소련에서는 도시산업은 완전히 공산독재의 수중에 수탈당하여 소위 국영기관으로 흡수되었으며 농촌에서는 국영농장(썬호즈)과 농업협동조합(콜호즈)이 존재하게 되었으나, 전체 경제요소는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콜호즈가 형식상 남아 있는데서 사회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계단에 있다고 자칭하고 있으나 이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북한의 경우도 동일하다.

북한괴뢰도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에 따라 오늘 도시산업이 완전히 공산당의 수중에 약탈당하여 공산독재의 소위 국영산업 기관으로 되었으며 개인상공업을 법으로 일체 폐지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 북한에 단 한 사람도 생산수단을 개인의 명의로 소유한 사람이 없으며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본질과 이런 과정을 모르는 자유대한 사람들은「거짓말 같은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며 현실이 그러하다.

오늘 북한주민들은 중소상기업은 고사하고 단 한사람의 개인행상도 없으며 또 어떤 생산수단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결과 모든 주민들은 고용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농촌은 농촌대로 공산당이 강요한 농업협동조합(집단농장)에 1958년 12월에 완전히 통합되고 말았다.

이 집단농장에서 농민들은 자기의 농토와 농기구 축력 일체를 농장에 약탈당하고(법적으로 농민의 생산수단은 조합의 소유로 한다고 공포했음) 오늘에는 남자는 연간 230일, 여자는 180일의 기준노동량과 노동의 질에 따라 분배를 받아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북한공산사회의 전체 주민들은 공산독재기관의 완전고용노동자 즉 품팔이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완전 품팔이꾼들의 마지막 숨소리마저 짓누르기 위해 「사회주의하에서의 개인소유」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주민들은 근로소득과 저금, 주택과 세대, 가재와 가정용품, 개인적 소비용품, 용축(用蓄) 가금(家禽) 소농구만을 개인적 소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육체적 품팔이로 전락한 주민들에 대해 공산당은 미증유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북한에서는 악명 높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며 중공에서는 소위 「대약진운동」이라는 것이다.

천리마운동의 경우를 보면 이는 매개 노동자들이 종전의 혁신적 집단적 증산경제의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생산적 성과를 얻으려는 한편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인간을 훈련하며 노동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혁신적 집단증산경쟁 운동이니만큼 그 경쟁목표는 300의 생산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초과된 부분은 곧 그것이 사회적 애국적 증산운동인 까닭에 공산독재기관의 소유로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북한의 주민들은 그 성분 여하를 막론하고 노동지옥에서 신음하며 그 식생활마저 배급제도에 의해 기아선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형편이다. 인간이 노동으로 신음한다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사회의 주민들은 이상과 같은 신음 속에서 더욱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공산당이 자유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그것이다.

이것이 공산독재를 반대하는 둘째 측면이다.

우리나라에서는「만인은 평등하고 독립된 인간으로 창조되었고……그리고 삶과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공산치하에서는 민주주의를 자칭하고 있지만 이는 아주 적은 일정한 소수독재층이 독재군국주의와 침략정책을 가능케 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민주주의이며 자유인 것이다. 즉 공산당독재를 위해 이로운 행위라면 얼마든지 자유이며, 언론 출판 집회는 보장될 수 있으나 공산독재를 반대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곧 이적반당적(利敵反黨的) 반동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세계에서 말하는 자유와 민주를 의미하는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이리하여 노동에 혹사당하고 또 생활력이 없으며 극도의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주민들은 사색, 신앙, 행동 등 온갖 인간의 본래적인 욕구를 말살당하고 있으니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히 인식할 문제는 공산독재자들이 어찌하여 그러한 경제원칙을 세웠으며 인간들을 무권리 속에 몰아넣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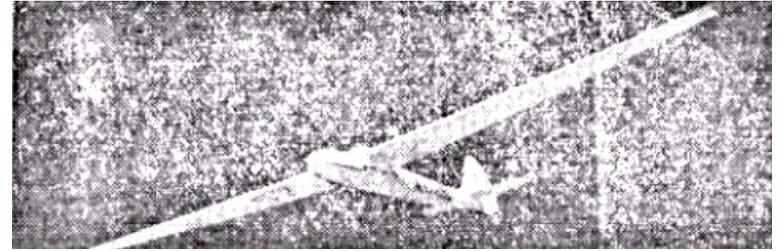
이것은 곧 공산주의의 기본 정치이념이 철저히 설명하여 주고 있다. 공산당은 이 세계를 공산독재세계에로 적색침략왕국을 수립하는 것을 최고목표로 삼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노동계급의 독재왕국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이라고 선창하고 그 형용사를 쓰는 것은 곧 일당 내지 일인 독재 또는 소수 독재층이 독재정치의 모순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기만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공산집단의 현실이 웅변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산독재자가 전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침략적 무력과 경제적 기반이 요구된다. 이때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자유경제가 성행된다면 공산당은 독자적인 무력증강정책을 자기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러한 제약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개인들의 생산수단을 몰수약탈하고 이를 완전히공산독재의 소유로 만든 다음 통제경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공산당이 침략정책을 추구하면 할수록 세계는 항시 동족내분과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산정책을 심오한 철학에서 풀이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도 공산독재정치의 모순성과 생리를 초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공이념을 생활화하지는 문제가 항시 제기된다. 그럼 실제 우리 생활에서 반공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공산당의 어떠한 허위선전에서든 자기의 주체성을 견지하고 공산선전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목살하여야 하며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하여도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 생활태도, 따라서 형형색색으로 침투해 들어 오는 침략마수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 그를 적발하는 생활태도이다.

현재 공산침략을 위한 간첩의 마수에 걸리는 예는 주로 금계와 미인계에 있다. 생활이 곤란하고 역경에 처하였을 때 간첩들은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인정에 사로잡혀 그들을 방조하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민주제도를 고수하며 자유 시민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반공이념의 생활화의 길이며 또 적의 간단없는 사상 침투의 길을 막는 길이며 5·16혁명의 이념의 올바른 구현으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국민항공
스포츠

글라이더

김석환(金石桓)
〈공군대령〉

글라이더를 쉽게 설명하려면 비행기에서 발동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동력기관과 부속장비가 없어 날개와 동체에 실리는 힘이 적어서 전체의 구조도 간단하고 제 무게(자중(自重))도 대단히 가볍게 된다. 보통 글라이더의 제 무게는 수송용 대형활공기 외에는 80-250kg 정도가 된다.

같은 크기의 날개넓이(주익면적(主翼面積))을 가진 비행기의 제 무게와 비교하면 프로펠러 전투기의 약 10분의 1, 경비행기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같은 날개넓이의 활공기면 무게가 가벼울수록 속도가 느리게 되며 글라이더의 순항속도는 시속 50km로 같은 날개넓이 프로펠러 전투기의 약 10분의 1, 경비행기의 약 5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비행기에 비하여 글라이더의 외관상 다른 큰 특징은 날개 길이가 길고 날개의 가로세로비(Aspect Ratio)가 큰 것, 균형상 조정석이 동체 중심 앞쪽에 있고, 무게가 가볍고 속도가 느리므로 이착륙장치는 대개 활바퀴와 스키를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글라이더는 프라이머리(Primary)인 초급연습기, 세컨더리(Secondary)인 중급기, 고급연습기와 소아라(Scoror) 고성능활공기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프라이머리는 초급연습용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1-10m 높이로 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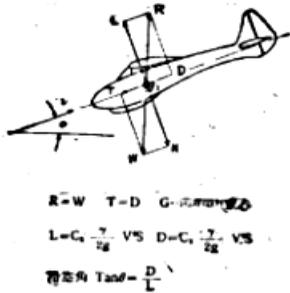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와 외형이 좌석이 나셀로 쌓여 있으며 50-300m 높이의 활공훈련에 쓰이고 지금은 대개 복좌(複座)로 되어서 기본연습용으로 동승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소아라는 고성능 활공기로서 구조나 성능이 비행기와 같으며 상승풍을 이용하여 소아링(Scoring)을 하고 오랜 시간의 활공, 장거리, 성층권 고속비행을 할 수 있으며 곡기비행도 할 수 있다. 또한 소아라를 비행기 조종훈련에 있어 기본단계에 적용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영국, 네덜란드 등의 실증을 볼 수 있다.

글라이더의 이륙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곳에서 고무줄로 끌어 낮은 곳으로 날리는 경면(傾面)을 이용하는 방법
2. 평지에서 고무줄로 끌어 날리는 초중급기에 이용하는 방법
3. 글라이더를 자동차로 직접 끌거나 또 윈치차(Winch)로 1,000m 길이 Wire rope 에 매서 끌어 올리는 중급기 이상에 사용하는 방법
4. 비행기로 끌어 고도를 잡은 후 목적지 상공에서 이탈하는 고급기에 이용하는 방법

그림 1. 글라이더에 작용하는 힘



초기서 1945년 경까지 단좌기를 써서 초급과정부터 단독훈련을 하여 왔으나 제2차대전 후 세계 각국의 활공계는 복좌활공기를 써서 동승교육으로 초급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보급화 되었다. 자동차 직접 끌기, 또는 윈치로 끌기와 같은 기계력을 이용하여 비행기 조종연습과 같이 동승교육을 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다.

장비의 발달로서 무거운 기체라도 지상에서 비교적 쉽게 취급할 수 있고 평지에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고도를 잡을 수가 있다.

그림 2. 열(熱) 상승풍을 이용하는 소아링



복좌기를 써서 동승교육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연습생에게 안도감을 준다.
2. 기술의 숙달이 빠르다.
3. 사고발생이 거의 없다.
4. 선전, 계몽으로 동승체험을 시킬 수 있다.

금반(今般) 학생특수체육 공군집행위원회에서는 종래의 활공훈련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종전방법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여 단기일 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라이더의 동력(動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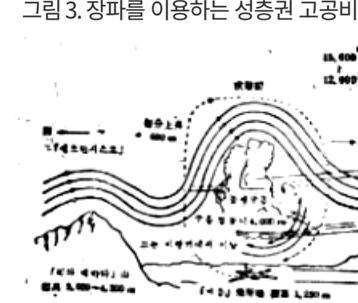
글라이더가 동력이 없이 어떻게 나르는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예를 들 수 있다. 자동차의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 언덕길에는 오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달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글라이더도 상승이나 수평비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가 페달을 밟지 않고 비탈길에서 끌어 내려올 수 있듯이 글라이더도 고도만 있으면 공중에서 비스듬히

아래로 날아 내려오는 비행(활공-Gliding)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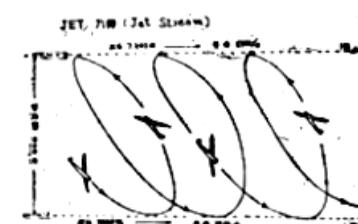
또한 공중에서 글라이더가 상승풍 같은 밀어 올리는 힘을 받으면 활공자세로서 수평비행 뿐만 아니라 상승도 할 수 있다.

그림 3. 장파를 이용하는 성층권 고공비행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글라이더에는 전체 중심을 기점으로 균형이 잡힌 힘이 작용하고 있다. 글라이더는 자기가 얻는 위치에너지 소비하며 활공할 때 날개 윗면에는 공기합성력이 발생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그 힘이 같고 균형된 중력이 작용한다. 공기합성력(R)의 분력(分力)인 항력(抗力)(D) 균형된 중력의 분력인 추력(T)이 발생되며 이 힘이 글라이더를 전진시키는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글라이더가 활공할 때에는 반드시 기머리(기수(機首))를 숙이고 하향하여 일정한 활공각을 유지하는 비행경로를 잡지 않으면 정상자세가 아니다. (그림 1) 만약 글라이더가 수평비행으로 기머리를 들고 난다면 공기합성력의 분력인 양력(L)과 중력

그림 4. 제트기류를 이용하는 동적 소아링



(W)이 균형되어 버리고 항력과 추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진력이 없어 전진하지 못하고 낙하하게 된다.

소아리가 상승이나 수평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상승풍 같은 힘을 받았을 때 가능하며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최소 활공각을 유지하는 자세를 잡아야 한다.

소아링과 기상

글라이더는 기상학의 도움을 받아 그 동력이 되는 여러 가지 상승기류의 이용방도를 개발하여 급속히 진보되었으나 일방 글라이더도 기상학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922년 독일에서 개최된 제3회 레엔 대회에서 독일 학생선수 헨센은 3시간 6분의 체공(滯空)과 350m 상승기록을 냄으로써 그때까지 활공에서 그쳤던 기량을 초월하여 새로운 경지인 빗면 상승풍(傾面上昇風)을 이용하는 본격적인 소아링이 시작되었다.

1929년 레엔 대회에서 크론헤트는 한랭전선 상승풍을 타고 143km 장거리와 썬구름(적운) 상승풍을 타고 장거리 소아링을 하여 새로운 상승풍 이용에 성공하였다.

1930년 활공지도를 하러 도미 중이던 독일의 울프 힐트 활공사는 엘마아

대회에서 처음으로 열상승풍(Thermic)을 이용하는 고급소아링의 획기적인 수법을 공개하였다. (그림2) 또한 1933년에 올프 힐트는 독일 리이제 산맥 근방에서 장파에 따라서 발생하는 정지운 모아싸고틀에 대한 탐측비행을 하고 그 결과 이 장파에는 상승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판명하고 장파이용 소아링의 새 분야를 개발하였다.

1941년 가을 독일의 크렉크너는 중앙 알프스에서 쾨의 장파를 타고 2,400m의 고도에 상승한 것이 글라이더로서 성층권 소아링을 한 최초기록이다.

1961년 2월에는 미국 소아링 협회(SSA) 회장 바이클 씨가 전금속제 소아라 슈바이셔 1-23형을 타고 웨라 네바다 산맥에서 발생하는 장파를 이용하여 절대 고도 14,102m, 획득고도 12,894m의 세계고도기록을 세웠고 이로써 성층권 소아링의 경지가 완전히 개척되었다. (그림 3)

1952년에는 제2차대전 후 미국에 건너가 고층기상을 연구하던 독일의 킷트 박사가 글라이더를 자기가 조종하고 웨라 네바다 장파를 따라 7,000m에서 2,000m의 고도로 600km 거리를 소아링하며 기상실측을 하였다. 그 결과 장파와 제트기류(Jet Stream)가 합치는 곳에는 풍속 때 10m 이상의 상승 하강하는 강렬한 소용돌이(와류(渦流))가 생기며 이 안에서 날면 기체에는 ±5 가속도가 걸리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거듭하였다. FAI(국제항공연맹)에서는 킷트 박사에게 이와 같은 성층권 내의 기상연구업적에 대하여 1955년 글라이더계의 최고봉인 리리엔탈(Lilienthal)상을 수여하였다.

글라이더는 지금까지 대류권 내에서 발생하는 열상승풍이나 썬구름 상승풍 들 같은 동력원의 이용법을 마스터하고 이어서 성층권 이용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성층권 소아링은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동적 소아링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동적 소아링은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방향이나 크기가 변화하는 바람을 이용하여 소아링하는 것이며 대자연에 조류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열기류나 사면풍과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는 정상 상승기류를 이용하는 것을 정적 소아링이라고 한다.

위인대학 활공연구소장 게을기이 교수는 Jet 기류이용 동적 소아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트기류의 하측에는 두께 약 200m의 경계층이 생긴다.

제트기류 중심부 가까운 곳은 풍속이 빠르고 중심에서 멀면 풍속이 느려진다. 예를 들면 중심에 가까운 경계층 윗면 H2에 풍속이 65m/sec이고 아랫면 H1에 풍속이 35m/sec이라면 H1 - H2 200m 상하면 사이에는 30m/sec의

풍속차가 생긴다. 이 풍속차를 이용하여 상승 하강을 되풀이하며 경계층 속을 비행하는 방법이다.

H3 고도까지 글라이더를 비행기로 끌어 올려서 뒷바람(추풍(追風))을 지고 이 탈하면 하강함에 따라 활공속도는 점점 증가하며 H1-7,000m 고도에 이르렀을 때 반대쪽으로 급선회하여 기머리를 맞바람(향풍) 방향으로 돌리고 축적된 속도를 이용하여 상승하고 H2 - 제자리 고도까지 여력으로 상승한 다음 기머리를 돌리고 다시 이탈하였을 때와 같은 자세로 하강한다. 이러한 하강상승을 되풀이하며 제트기류에 따라서 소아링을 계속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동력 소아링에는 활공사의 우수한 곡기의 기량과 강도가 큰 무제한 곡기용 글라이더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한국상공에는 강력한 제트기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적 소아링 방법은 다음날의 우리들에게 주어질 발전적 과제가 될 것이다.

활공계(滑空界)의 움직임

한없이 넓은 창공 속에서 글라이더를 타고 상승기류를 찾아 구름에 도전하고 악천후와 한랭전선과 싸우며 나는 웅대한 스티일이 가득 찬 하늘의 산책은 다른 어느 것과 비할 수 없는 장쾌한 항공 스포츠로서 세계 각국 젊은이 사이에 열광적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청년 Dick Johnson은 세계장거리기록을 세웠으며 이로써 많은 청년들이 격려되어 활공계로 진출하는 수가 격증하였다.

1958년에 26개 국활공상태조사를 보면 활공연(滑空延)시간은

서독	영국	미국	프랑스
96,043시간	21,536시간	18,590시간	72,122시간

활공기 보유대수는

서독	프랑스	미국	헝가리	폴란드
1,923대	1,093대	532대	413대	675대

1960년 영국의 활공실적은 다음과 같다.

실종활공사수(實從滑空士數)	4,749명
실종기체(實從機體)	337대
발항회수(發航回數)	164,997회
활공연시간	24,400시간
활공연거리	61,000Km

1960년 영국에서 발급한 활공기장은

A급	613명	B급	617명
C급	388명		
C은(銀)급	99명	C금(金)급	17명이다.

1961년 5월 영국 활공선수권대회에는 장년부 50명 청년부 45명 선수가 모인 경기로서 비행거리 연합계 76,000Km 곧 적도 두 바퀴에 가까운 거리의 비행을 하며 대성황을 이루었다.

1962년 제29회 미국 선수권활공대회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로스앤젤레스 동방 사막지대에서 개최되었다. 30여 명의 선발 선수가 참가하고 3,000명의 관중과 90여 대의 방문기가 모여서 성황을 이루었다. 이 대회에서는 자유장거리, 목적지거리, 삼각지순회비행의 종목으로 경기하였으며 총비행거리 65,857Km(=41,161리)를 날았다.

1961년 FAI 국제공인기록을 보면 남자는

직선거리(단좌(單坐))	864Km
활공시간(복좌(複座))	71시간5분
절대고도(단좌(單坐))	14,102m
획득고도(단좌(單坐))	12,832m

여자는

직선거리(단좌(單坐))	749Km
절대고도(단좌(單坐))	12,190m
획득고도(단좌(單坐))	8,533m

항공스포츠로서 글라이더를 타는 것은 다른 일반 스포츠와 같이 정신적, 신체적인 수련,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응분(應分)할 뿐더러 그 밖에도 글라이더를 자기들이 설계하고 제작·수리하며 스스로의 비행경험을 살려서 항공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심신의 단련과 과학정신의 함양은 우리가 욕구하는 국가재건의 기틀이 될 장청년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쇄신한 길이 될 것이다.

(학생특수체육 공군집행위원장)



카네기의 계산

카네기가 소년 때 일이었다. 잡화상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어머니 옆에 서서 먹음직한 앵두를 보고 있었다.

“하나 먹어봐.”

하고 잡화점 주인이 말했다. 그러나 소년은 머리를 흔들었다.

“왜? 앵두를 싫어하니!”

“아뇨, 굉장히 좋아해요.”

소년은 얼른 대답했다.

“그래, 그럼 체면 차리지 말고 먹어.”

그래도 소년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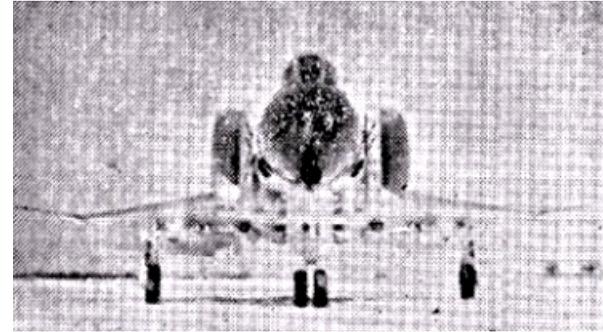
그래서 주인은 소년의 모자에 앵두를 담아 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카네기에게 물었다.

“애, 거기선 먹지도 않는 앵두를 왜 집에 가져왔니?”

카네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손보다 주인아저씨 손이 훨씬 더 크잖아요.”



1962년 전세계의 경이적인 이목이 카펜터의 우주비행 성공에 총집중했던 불과 1,2개월 전에 벌써 넓은 미래록의 각 공군기지를 조용히 방문하는 새

로운 손님이 출현했었으니 그것이 이곳에 소개하려는 최신에 전투 격투기 F-110이다. 그러나 아직껏 이 비행기를 직접 조종 정비하는 소수의 조종사와 정비사를 제외하고는 미공군 내에서도 대부분이 전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기 지순회(地巡廻)평가비행에서 성공리에 수립한 모든 정보에 입각하여 간략하나마 몇 가지 점을 소개하려 한다. 이것을 미해군에서는 F-110 대신 F-4H라고 명명해 부르고 있다.

최신에요격기(最新銳邀擊機)

이재우(李在雨)

<공군대위 일훈 비(一訓飛)>



1. F-110의 외형(外形)

우선 여기에 F-110을 여러 각도로 본 외형과 그 경륜을 보여 주는 몇 매(枚)의 그림을 실어 놓았다. 아마 이 그림들을 잘 관찰해 보노라면 많은

의문이 생길 것으로 믿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통상 우리들이 보아온 형태와는 달리 그 외형 자체가 비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동체가 보통비행기와 현저히 다르다. 이 F-110은 F-101계 비행기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된 바대로 그와 동일형의 용골(龍骨)조직(Keel Structure)에다 엔진을 동체 양편에 달았으며 그 위에 연료탱크를 장비하고 있다.

이것은 미부(尾部)(TAIL)를 떼내지 않고도 엔진을 올리고 내려 손쉽게 정비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동체 양편에 장착된 엔진 공기흡입직통으로 흡입되게 되어 있고 날개와 동체와의 이음 자리를 말끔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기수(機首)의 외형이 약간 수그러졌으면서도 불룩하게 생긴 것은 애당초에는 작은 레이더로 설계되었던 것을 그 후에 다시 32인치 레이더로 바꾸어 장착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변모된 것인데 비행기의 기수부분이 확대 되었다는 사실이 비행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극히 적은 반면에 거대한 레이더를 장착함으로써 레이더 성능은 훨씬 증강되었다.

날개는 첫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조된 3각익(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적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가진 후진익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날개가 구부러진 굴절 부분과 부분 사이는 날개 자체가 연료 탱크인 Wet Wing으로 있으며 극소수의 익현골(翼鉸骨)을 가진 대신 두텁고 튼튼한 익표면을 가지고 있다. 날개보(Wing Spar)는 두 개밖에 없지만 익장(翼長)을 보장하고 있는 것들이 익표면의 상부와 하부에 매우 단단하게 용접되어 있으며 날개 전체의 내부는 완전히 봉합(封緘)되어 있어 하나의 큰 연료탱크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구조상으로 본다면 날개 위에 동체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좌우측 날개를 동체에 연결하는 무거운 연결골(Carry Through)이 불필요하게 되어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날개의 굴절부분이 앞으로 약간 튀어나온 것은 횡(橫)안정을 훨씬 증가시켜 주며 특히 Pitch up(조종사가 2G로 당겼을 때 4G 혹은 6G로 기수가 들리는 특성 즉 Poposing의 원인)을 예방해 주게 되어 있다. 또 날개 끝의 이 굴절된 부분은 횡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해 주는 상반각을 가지고 있다. 후랩은 날개의 전연(前緣)과 후연(後緣)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동체부근의 하부 표면에 Speed Brake를 익상부 표면에 Spoilers(Speed Brake)의 일종인데 특히 영제 비행기에 많이 쓰고 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보조익(Aileron)을 가지고 있다. 주(主)바퀴다리는 활주로나 착륙시에 되도록 넓은 기반으로 안정된 자세를 가지게끔 날개 밑에 넓게

달았으며 이것은 날개 속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BLC(Boundary Layer Control) 익표면에 많은 구멍을 뚫어 와류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양력(高揚力)의 날개 표면은 실속(失速) 속도 110노트로부터 수평속도 2.5마하 이상까지의 많은 속도의 융통성을 갖게 한다.

미부를 볼 것 같으면, 안정판과 방향타를 잘 조합시킨 것은 재래식과 같다. 수평안정판은 깊은 하판각으로 아주 낮게 구부러져 있고 이것 역시 종안정(縱安定)과 Pitch up을 방지해 주고 있다. 이것은 비행기의 자세가 고영각(高迎角)일 때에 주익에서 흘러 내려온 공기 흐름 밑에 있게 되므로 비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Pitch up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수평안정판의 표면을 언뜻 보면 제트 배기가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험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이것은 내열성 금속으로 조직되어 있고 방열 페인트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2. 동력(動力)(Power)

후기연소기(After Burner)를 포함한 두 개의 General Electric J-79S 엔진의 총추력은 34,000LBS나 된다. 이 비행기의 엔진은 F-101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운드 당 추진을 가진 우수한 엔진이다. 그중 하나의 엔진만 가지고도 안전한 비행과 착륙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비상에 처할 경우엔 한쪽 엔진으로도 이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 시험비행으로 완전히 입증된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동력은 고음속에서도 공기흡입 조절장치에 의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앞뒤로 자유로이 움직이는 Bell Mouth(흡입구 가운데 있는 공기 조절기)는 옆으로 흘러나가는 공기와 흡입되는 공기와 비율을 조절해 준다. 흡입구의 전방 끝에 달려 있는 가동 Ramp는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를 줄여서 흡입구로부터의 충격파를 제거하게 되어 있다. 이 Bell Mouth와 가동 Ramp는 어떠한 음속이나 어떠한 고도에서든지 거기에 알맞은 양의 공기를 흐르게끔 해주는 조절기(Central Air Data Computer)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F-110의 외형 구조 동력 등의 개념에 이어 다음에는 비행성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비행성능(飛行性能)

물론 F-110의 정밀한 비행성능은 아직도 비밀에 속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시험비행보고서에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F-110이라는 비행기가 아주 우수한 최선예기라는 것만은 충분히 단언할 수가 있다. 특히 융통성이 많다는 것이 가장 현저한 장점이다.

F-110은 고고도 및 저고도에서의 단거리 직선비행과 제한속도 코스에서 속도의 기록을 세웠으며 또 급상승과 순항고고도 및 상승률에 있어서도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발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특기할 사실은 순항고도에서 2.5마하 이상 50피트에서 1.2마하 그리고 순항지속고도(Sustained Altitude)가 66,000피트 이라는 점이다. 좀 더 자세한 조종특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은 조종사들이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종하기가 매우 쉬우며 중, 횡, 수직, 축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특히 저고도에서의 안정성이 좋다고들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비행기에서 실속을 경고해주는 진동장치(Buffer Warning)가 되어 있으며(F-104에는 Buffer Warning 대신에 Stick Shaker가 있음) 앞에서도 일언했지만 Pitch up이나 Tuck under(Pitch up의 반대 특성)의 경향이 없다. Spin은 전방으로 똑바르게 들어가며 꼬리낙하산(Tail Chute)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가속은 매우 빨라 정상적인 이륙중량으로 불과 2,000피트 이내의 활주로서 이륙할 수 있으며 2분 이내에 49,200피트를 상승할 수 있다. 안정된 자세와 저속도로 착륙만 잘하면 3,000피트 이내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가 있다. 그러나 정상 착륙시에는 비륜(鼻輪)의 Steering이나 견인낙하산(Drag Chute)은 불필요한 과격한 브레이크가 된다. 급히 잡아 세워야 할 경우를 위해서는 내리고 올릴 수 있는 해안형의 미부걸이(Tail Hook)가 있다.

4. 무장(武裝)

전투요격기인 이 F-110은 많은 유도탄과 기타 무장을 하고 있고 보통 4개의 Sparrows IIIs(Beam Riders로 Sidewinder와는 달리 Beam을 따라감) 유도탄을 동체 폭탄가(爆彈架)에 달고 다닌다. 이 외에도 두 개의 가외(加外) Sparrow나 혹은 4개의 Side Winder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섞은 무장을 날개받침대(Wing Pylon)에 장착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형의 핵폭탄 및 일반 폭탄도 달 수 있다. 폭탄 투하장치로는 수동 자동 및 저각도 폭탄장치(Labs) 등의 여러 가지 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미 Nellis 공군기지 사격장에서 시범비행에서 충분히 시험 되었다. RF-110 사진촬영장치는 아직 연구 중에 있으며 비밀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RF-101에서 쓴 방법과 같이 기수에 극히 정밀한 여러 개의 사진기를 장비하고 후방석에서 작동시키게 될 것으로 믿는다.

5. 지상취급(地上取扱)

지상에서 끌고 다니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새로운 절차는 없다. 이 비행기는 겉으로 보기에 외형은 크면서도 속은 빈틈 없이 짜여 있다. 해군에서는 이미 F-4W(F-110)를 아무 어려움 없이 항공모함에 적재하고 다니며 쉽게 다루고 있다. 지상취급에 특히 편리한 사실은 끌고 다니는데 비륜의 Scissor를 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 상하기 쉬운 별집 같은 넓은 부분이 있긴 하나 날개와 동체에는 사람이 충분히 밟고 다닐 수 있는 넓은 통로가 있다. 옛날 야외 비행장에 세워둔 경비행기의 Kibre 날개를 소가 뜯어먹던 초창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비행기를 심중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비행기의 가격이 일로 높아지고 정비작업이 더욱 복잡하게 됨에 따라 가일층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한 때로 된 금속판이 아닌 주석 표면의 양편은 폭 4피트 길이 18피트의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규격과 모양과 판두께 등이 정밀하게 짜여 있으며 그 판 속에는 없어서는 안 될 강한 보강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만일 Fork Lift를 부주의하게 다루다가 조그만 구멍이라도 하나 났다고 가정하면 그 구멍을 옛날 2차대전시에 Guadalcanal 섬에서 비루강통을 퍼 가지고 때위 쓰던 식으로 조각을 붙여서 때위 쓸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지상 취급에 있어서 인명 피해의 위험성은 다른 제트기에서의 조건과 똑같다. 위험한 곳에 주의하면 괜찮으나 조심성 없이 멍하게 비행기 근처를 지나 다니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물론이고 Flap Gear, Canopy, Tail Hook 등 작동부분은 모두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곳들이다.

6. 정비(整備)

만일 어느 누가 F-110의 정비가 아주 단조롭고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이야기다. 도저히 쉬울 수가 없는 일이다. 무장계통의 신속성 있는 위력과 엄청난 새로운 기록들을 수립한 성능은 모두 복잡다단한 계통과 장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훈련과 정밀한 정비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확립된 정비카드 제도가 이미 완성되어 해군에서는 벌써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고 있다.

비행기에 달려 있는 모든 점검 창문을 떼어낸 모양을 본다면 누구나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장비가 짜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전투기 안에 많은 임무수행능력을 함축시켰기 때문이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정비에 대하여 조금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즉 레이더를 떼내려면 기수로부터 Roller Track 위로 똑바로 끌어내리면 되며 또한 바퀴집(Wheel Well)이나 동체 하부표면에서 고압유(Hydraulic)와 전기 Plug를 뽑고 끼는 작업도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엔진 밑을 열어 보면 엔진이 노출되어 있고 기타 여러 장비의 작업이 편리하도록 많은 점검 창문이 달려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비를 깊숙이 층으로 겹쳐 놓은 곳도 있지만 정비 카드와 기술도서들이 그 시험 수정 과정을 거쳐 실무에 사용되고 있으니 문제 삼을 것은 전연 없다. 그 설정된 절차들이야말로 광야를 훌륭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처음에 언급한대로 두 대의 F-110이 각 기지를 순회 비행하는 동안에 보인 정비능력을 설명해 주는 실례로 Nellis 공군기지에서 폭탄훈련을 하는 동안 한 달에 각각 90시간의 기록을 세워 도합 1□0시간을 비행하였다. 순회비행 첫 단계에서 그들은 196회의 비행 292시간을 비행했으니 이것은 계획했던 양의 두 배가 되었던 것이다. 정비의 평균시간은 Man Hours이다(Calendar Inspection은 가산하지 않았으나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짧은 정비시간으로 비행 가능상태 92% 작전가능상태 82%의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많은 비행중에 수행한 각종 임무를 총망라해서 얻은 총계이다. 이상의 경우에는 숙련된 정비사들이 정비를 했으니 일단 실무분야에서는 그와 같은 정비시간당 비행 비율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정비만 잘한다면 F-110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군의 또 하나의 큰 수확이다. 이 F-110은 머지않아 실무부대에서 그 위용을 나타낼 것이니 그때에 다시 「Aerospace Safety」나 「Maintenance Review」 「McDonnell Field Service Digest」 등에 상세한 내용이 소개 될 것으로 믿는다.

~Aerospace Safety 1962년 6월호에서~

보고 아는 추리(推理)

셜록홈즈와 그의 친구인 왓슨은 언제나 형사사무소에 있었다.

“셜록 오늘 자네는 크림색 내의를 입었군.”

하고 왓슨이 말했다.

“응 자네 머리가 대단히 발전했는걸, 그런데 내가 오늘 크림색 내의를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그야 간단하지 자네 오늘 아침 즙봉을 입지 않고 나왔으니까.”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침략정책(侵略政策)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침략정책(侵略政策)의 이론(理論)과 실제(實際)

김창순(金昌順)

<시사평론가>



1.

공산당의 정책본질은 과연 어떠한 것이길래 그것이 침략적이나? 이 점을 밝혀 달라는 청탁이다.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 그해 4월 해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전자는 의회이며 후자는 행정부이다. 물론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었다. 동년 8월에 임시헌법과 관제가 실시됨으로서 정식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이에 대하여 소련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책으로 임했는가?

※1917년 11월 7일 러시아에서는 레닌의 공산혁명이 성공하여 소비에트정권-공산정권이 출현하였다.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李東輝)는 이미 1918년 11월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소위 혁명동지의 규합에 힘쓰고 있었다.

그는 소련정부의 후원에 의하여 한국혁명을 달성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공산당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혁명이란 것은 제1의적으로 민족국가의 독립이며, 공산제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2차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바이다.

상해임시정부는 사절단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소련정부의 후원을 얻고자 여운형(呂運亨), 안공근(安恭根), 한형권(韓馨權)의 3인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한은 이동휘의 사람이었다고 이는 여와 안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한만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떠나보냈다. 한은 시베리아에 살고 있었던 자이며, 이동휘의 상해행과 뜻을 같이하여 임시정부에 관계하게 되었다.

한은 레닌에게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경과를 말하고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했던 바, 레닌은 재정원조로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한은 2백만 루블이면 족하다고 답했다. 이때 레닌은 웃으면서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독립을 찾는데 그까진 돈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한은 아무 준비 없이 자기 독단으로 한 말이었으므로 당황하여 답하는 말이 “국내의 동포들이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으고 있으니까 우선 그만큼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은 레닌이 승낙한 2백만 루블 가운데서 금화 60만 루블을 선불로 받아가지고 그중 20만 루블은 모스크바에 맡겨두고 40만 루블을 가지고 상해로 돌아오는 도중 치타에서 이동위가 파견한 김립(金立)을 만나, 김에게 그 돈을 넘겨주고 자신은 맡겨둔 20만 루블을 가지러 모스크바로 갔다. 김은 40만 루블을 치타에서 박진순(朴鎭淳)이란 자와 각각 20만 루블씩 나누어 가지고 자신은 내몽고를 거쳐 북경에 들어왔다. 박은 한이 레닌을 만났을 때 통역을 맡았던 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북경에 들어와서 러시아인 부인과 더불어 호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몽땅 소비했다고 하며, 김은 상해에 돌아와서 그 돈을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고 일부는 이동휘에게 개인적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일부는 광동인 중국여자와 호사한 생활비에 써먹고 말았다 한다.

일방 한은 나머지 20만 루블을 찾아가지고 얼마 후에 상해에 돌아왔지만 그 돈을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았다.

한은 그 돈의 대부분을 1923년 2-5월에 상해에서 개최되었던 국민대표회의의 비용으로 내놓았는데, 동대회는 독립운동의 전선을 범민족적으로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소집된 것이었지만 창조파(상해임시정부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새로 창조하자는 파-왕(王)로 노령(露領)과 만주대표)와 개조파(상해임시정부는 이미 수립되어 있으니만치 전폐하고 새로 창조할 것이 아니라 개혁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개혁하여 존치하자는 파-안창수(安昌洙), 여운형(呂運亨) 등)로 나누어져 옥신각신 끝에 아무런 성과 없이 해체하고 말았다.

2.

레닌정부가 상해임시정부에 대하여 재정원조를 한 돈이 일부의 분자들에 의하여 도용되었던지간에 왜 그와 같은 원조를 서슴지 않고 했던가?

1922년 봄에 모스크바에 소집되었던 원동(原動)민족대회의 결의사항에 그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이 대회는 제3국제공산당이 소집한 것이었는데, 한국·중국·일본·외몽고·소련·자바의 6개국 대표들이 초청되었었다.

이 대회에서는 한·중·일의 3개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여하(如何)히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했는데,

첫째로 한국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발전이 없고, 따라서 노동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인데다 민족인테리들은 독립운동의 선봉을 맡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독립운동에 치중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표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에 합세하여야 하며 그 모체로서 상해임시정부를 옹호해야 한다.

둘째로 일본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신흥한 공업국가이니만치, 여기서는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여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도록 하며, 의회의 다수를 점함으로써 소위 의회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중국에서는 반제·반봉건 투쟁의 국민혁명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바,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선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을 표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혁명을 옹호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국민당을 옹호하고, 그와 합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상이다. 그렇다면 레닌정부가 상해임시정부에 대하여 재정원조를 한 것은 한민족의 순수한 국가독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요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한국혁명이란 것은 공산주의 혁명일 수가 없다는 역사적 단계 및 현실적 조건을 분석하고 나서, 지금으로서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에 공산주의자들 스스로가 투신함으로서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위신을 높일 것과, 그리하여 민중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애국자라는 신뢰를 얻게 하여, 민족독립이 실현된 그 순간에 이르러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정권이 쥐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레닌정권이 상해임시정부에 베푼 재정의 참다운 목적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정권이란 것은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마련이며 소련의 국경 밖에서 소련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되어지기 마련이다. 적어도 소련의 지배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여 왔으며, 그 아욕은 지금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레닌이 약속한 2백만 루블 가운데서 나머지 140만 루블은 주지도 않았다.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공산주의 정책의 본질 가운데서 최소한 하나만은 알아낼 수가 있다. 즉 식민지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민족해방을 열렬히 부르짖으며, 또 민중들을 그길로 인도하고자 그토록 정력적으로 선동하고 있는가를. 그것은 처음에 민중의 힘을 얻어 독립을 차지하고, 연후에 그 독립을 자기들의 수중에 가로 채자는 것이다. 이 행위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3.

1922년 봄 원동민족대회가 개최되었던 그 당시의 중국은 우리 한국과는 사정이 같지가 않다. 그 차이점은 우리는 송두리째 일본의 속국이지만, 중국은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독립은 부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반제노선과 더불어 반봉건의 국민혁명단계라는 논리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객관논리의 타당성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것이다.

일정한 가치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논리적 긍정성, 당위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존중하려는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의 표방하는 바에 일시적이나마 매혹되는 것은 이미 경험된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반식민지·반봉건적 조건의 사회에서 이른바 반제·반봉건노선을 내거는 것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이다.

2차대전 전은 물론이려니와 2차대전 후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반식민·반봉건적 조건의 지대를 공산주의의 온상으로 삼고, 그의 만연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바람에 수많은 민족 인텔리들까지도 매혹되었거나 망중어(網中魚)로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기한 바와 같은 노력이 성공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 민족을 위하여 행복이나, 불행이나는 그다음의 계제가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승리한 곳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민족 개념이란 벌써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민족정책은 없으며 민족의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

민족을 공산주의로 사로잡기 위하여 그 민족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항상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만, 민족의 독립적 주체성이란 것은 금물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한 곳에서는 공산주의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인민의 대열에서 제거된다. 호불호 간에 공산주의를 지지해야만 공민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에 대하여 진정한 합작이건 가식적 합작이건 간에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동맹과 우정을 표시했다면 이제부터는 복종과 통제를 강요한다. 이것을 위하여 반제·반봉건의 국민혁명이란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는 잃었고 비극은 차지하였다.

2차대전 후에 비록 독립은 얻었으나, 그러한 나라들이 아직 완전히 탈피할 수가 없는 경제·정치적 이리저리한 예속성과 자체의 비근대성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무대로 허용되고 있음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구실과 발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근대성을 퇴치해야 하며, 피차의 예속·피예속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진영의 강대국들은 전후 신생국가들의 비근대성을 탈피시키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예속을 대가로 하지 않는 진정한 원조를 베풀어야 한다. 만일 예속을 대가로 하는 원조이라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4.

원동민족대회에서 일본은 자본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산주의운동의 노선이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고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면 선진공업사회에서 공산당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반대로 노동조합의 분열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 그의 가장 큰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계급대립이 더욱 첨예화 된다는 공산주의의 규정과는 달리 노동자들이 점점 중산계급의 사상은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사상이다. 이것은 막스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사상의식이 아니다.

선진공업사회에서 사회민주당·민주사회당, 또는 사회당·노동당들이 공산당과 대립하여 과격한 인위적 혁명을 부정하는 노동운동을 택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급의 각성에 따르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공업국가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당을 택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데마고그 전술에 맡겨질 수가 없다. 왜냐면 선진공업국가의 노동자들은 대중교육이 보편화되어 일정한 교육수준과 교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깨닫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정권투쟁에 무작정하고 가담하지는 않는다. 영국의 노동자들 가운데는 영국 공산당의 당수가

누구이며 당본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전망은 화제조차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오늘날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산당이 사회민주당과 손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실과, 또는 사회민주당 자신이 종래의 정강에 대수정을 가하고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계급이 소위 계급정치의 도구일 수가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선진공업국가의 노동 계급은 비록 보수당의 집권일지라도 그 정책이 노동계급의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배격할 필요를 인정치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정당들의 강령적인 경제정책인 산업국유화란 것도 유럽에서는 그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국유화만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오히려 노동계급의 실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서독의 경제정책에서 노동계급은 그 사실을 생활상으로 체득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공업사회에서 마르크주의는 그의 본래의 의미를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서 공산주의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러시아 혁명의 레닌주의 같은 것은 입 밖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식의 인위적 폭력혁명 같은 것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둘째로 노동계급의 통일전선을 펴기 위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악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공산주의니, 혁명이니 하는 인기 없는 상품보다는 인류의 양심에 과고들어 갈 수 있는 평화를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의 평화전략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간(人間)의 본질(本質)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은 인간이다. 라이온을 구사하는 용기를 나는 대단하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사자는 먹는 목적 이외는 아무것도 다치고자 하지 않는다. 이상이며 예의 고결한 마음씨, 이런 것이 사자에게는 없다. 태도가 가장 이상적인 유일한 사람은 나의 단골 양복상이다. 그는 나의 키며 소매의 길이 등 정확하게 잰다. 다른 양복상은 옛날의 나의 몸을 지금 만드는 옷에다 맞추려 한다.”

시계(時計)와 하품
 토마스 하디(작가 1840-1928)가 어느 날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자네 작품을 낭독할 때 청중들이 시계를 자주 보지 않던가?”
 토마스 하디는 고개를 흔들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시계는 보지 않더군. 그런데 모두들 하품을 자주 하더군.”

반공교육(反共教育)과 정병육성(精兵育成)



오늘날 공산주의는 자유민주 사회가 멸망한다는 망상적인 역사적 필연의 법칙을 내걸고 우리사회에 도발적 광태로서 우리의 복된 생활체제를 파괴하고자 위협을 가하는 병충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오직 전승이나 전패나 하는 승패에 있는 것이지 결코 절충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

홍인표(洪仁杓)
 <국방부 정훈과장>

1. 서론(序論)

우리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원리에 입각한 사유재산제도와 자유로운 생활생업제도이며 이 경제제도와 병행하여 민주정치와 의회정치의 제도가 있고 또한 종교 및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표방하는 정당정치가 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정반대의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을 택하도록 강요하는 주의사항인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와 공산의 양(兩)주의는 이론이나 실천에 있어 전연 상이한 양극단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상호 간에는 공통적 가치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한국은 정반되는 주의와 이론이 교차되는 접촉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공의 세계적 최전초기지에서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6·25의 쓰라린 공산침략의 체험을 가진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진영 중 어느 국가보다도 공산주의의 침략과 위협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산주의를 제압하는 정신무장을 강화하여 반공의 신념을 견지케 함으로 필승의 확신을 굳건히 하는데 반공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써 군인생활에 있어 반공을 생활신조로하는 정신교육은 정병육성책과 직결되는 것인바 이는 국가장래를 위하여 공산주의를 배격하는데 있어 매우 고무적인 대비책으로 반공교육은 군인정신을 함양함에 지상과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리적 여건하에 있는 한 북한의 공산괴뢰들은 자유대만에 대하여 필사적인 침투전술을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긴박한 정세하에 반공교육의 의의와 실행은 국가적으로 범국민운동화하여 군민전체가 반공이념에 투철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 자체의 팽창성과 침략성을 내포하고 있는 탓으로 세계정복의 야망을 품고 국부적인 침략을 자행하는데 비인도적인 죄악상을 공개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진영내의 사상적 결속이 급선무인 것이다. 여기서는 정병육성책으로서 반공교육을 정신교육과 연관시켜 군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논술하고자 한다.

2. 군인(軍人)과 정신교육(精神教育)

군인이 지녀야 할 정신을 군인정신이라고 하지만 정신을 빼놓고는 군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기본이 되며 또한 인간 역사를 통해 인간의 정신은 그 발전의 기본이었다.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한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 써도 측정할 수가 없다. 올바른 정신이 함양됨에 비로소 말과 행동이 바를 수 있는 것이다.

군인이 자기의 사명이나 본분을 모를 때 그 군인은 왜 군에 복무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며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보람이나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군인생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일반 민간인 생활과는 달리 일체의 생활이 엄격한 군기와 규율 밑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이나 의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것이며 자기의 올바른 중요 사명을 알고 자기에게 부과된 본분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모든 어려움은 그대로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인은 급여나 그 밖의 물질적 대우가 선진국의 군대와 같이 넉넉한 것은 못 되는 것으로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부하(負荷)된 임무를 완수하도록 기대할 수 있는 길은 정신적 작용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군복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가 정신력이라 하겠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에 대한 정신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정신적인 도전이라 함은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와 민주발전이 무력으로써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인 사상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군의 사명은 국토방위에 있지만 기실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는 것이다. 무력 또는 그 밖의 물질적 도전을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막는 것처럼 정신적인 도전에는 역시 정신력으로 대결치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자유천지를 가리켜 지옥이라 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침략주의라고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를 자유화라고 말하고 침략을 해방이라고 부른다.

이토록 우리 국군을 갖은 수단으로 비방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선전술책으로 공인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 국군은 이러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군대인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인은 철저한 정신교육으로 투철한 민주정신을 배양하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군내 정신교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간단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으로써 일관하여 정신교육이 되풀이되어 진부스러운 느낌을 줄지라도 이렇게 되풀이되는 가운데 인상을 주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군의 국토방위를 위한 신성한 임무도 사실상 공산주의의 침략을 봉쇄하고 나아가서는 공산괴뢰들의 남침을 제지한다는 것으로 집약되고 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위협과 침략 때문에 민족적으로 비극과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한 일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현상인 것으로 특히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學)가 공산주의는 현 세계에 있어서 전인류의 공동한 재난과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세계는 자유와 공산의 양대진영으로 분리대립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질적인 양대진영의 정세를 대국적으로 말한다면 급일의 전자유세계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공산집단의 군대와 대립하여 그들의 침략을 막는데 그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중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의 전쟁은 사상전인 것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사상적 선동, 유혹, 침투로써 상대방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책동을 피하고 있으며 군사력은 단순히 사상적 정복의 수단으로서 사용 되는 것임을 우리는 체험하였다.

이렇게 선전, 유혹, 침투의 방법으로써 상대방을 이간분열시키고 또 사기를 저하시키며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수단방법 등을 우리는 심리전술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혼란 또는 약화시키는 무형적인 전쟁이기도 한 것으로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무장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장비나 기술에 있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정신무장을 강조치 못한다면 왕성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오늘날 사상적 결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군내 정신교육이란 반공이념의 확립을 지향하여 반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하겠다.

3. 반공교육(反共教育)의 강화(強化)

우리 민족은 일제 군국주의인 무단정치도 경험하였고 공산침략전쟁도 직접 체험하였다.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국민생활의 온갖 부면에 걸친 착취와 질곡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와 산업구조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편파적인 중속 경제구조화를 흥책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산업전사로서 징용 아니면 침략전쟁의 직접적인 앞잡이로 총검을 매어야만 했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평화애호의 제국민들에게 침략의 동반자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지사들에게도 총부리를 돌리게 하여 민족반역자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다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자는 인류의 대의 앞에 굴복하고 우리 민족은 광복의 새날을 맞았었다.

그러나 세계사의 조류와 격리된 채 일제의 암흑생활 속에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토는 남북으로 양분되고 마침내는 국제공산주의 사족을 받은 김일성 도당의 적화 남침동란으로 동족상잔의 슬픈 비극을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국군은 보다 중대한 사명감으로 자유의 적을 격퇴하기 위한 멸공전선에 임전분투하여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였던 조국을 구출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병원(兵員)이나 장비에 있어 우리 국군보다 월등하게 우세하였던 괴로침략군을 여지없이 무찔러 민주군대인 우리 군대의 위용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우리 국군은 민주주의사회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와 복지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공산침략을 방어하였다는 증거가 되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뚜렷한 멸공신념과 사명감을 되살려 반공이념을 투철한 생활신조로서 군내 정신교육을 기일층 강화하여 정병육성책에 기여하여야 하겠다.

철석같은 반공이념의 확립은 곧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엄숙한 군기로서 승전을 위한 긴요하고도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반공교육은 어데까지나 정신교육의 일환으로서 공산군과 대결하는 최전초기지에선 우리 국군은 반공사상에 대한 투철한 신념의 배양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며 반공교육의 중대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군대교육은 정신교육을 통하여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엄정한 군기의 확립으로 필승의 신념을 공고히 하며 일조(一朝)유사시에는 애국애족의 충성심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유민주사회의 안녕을 유지보전하는데 평상시의 반공이념의 작용은 크나큰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군은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창설되었고 또 공산군과 싸우면서 장성하였으며 계속하여 멸공필승의 결의와 각오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를 교전할 준비에 섰하여 반공교육의 중대성은 다언(多言)을 요치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군된 군인은 가장 훌륭한 국민으로서 국방의 대임을 완수함이 그 근본사명이요 그 이상의 특별한 권한이나 영리는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조직 내에서 군인정신을 배양함에 있어 건국이념 즉 건국정신을 완전히 체득케하고 그 기반 위에 군인으로서의 큰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군은 공산도당을 배제격퇴하는데 있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적 단결을 촉구하며 재건된 조국의 발전과 번영은 오직 민족적 결속과 자각에서 결실되는 것으로 이는 곧 사상적 이념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4. 정훈(政訓)과 정병육성(精兵育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모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대립과 경쟁 그리고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싸움은 계속되는 것으로 폭력의 대결에 있어 패배자의 처참한 모양은 참으로 패자의 비극이라 하겠다.

이렇게 힘의 대결 속에 인류역사가 조성되는 고로 자연히 무장을 하게 되고 또한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개화하게 됨에 따라 창이 부족하면 총을 만들고 총이 부족하면 대포를 만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무기의 개량에 못지 않게 정신무장을 강화함에 주력하였고 사기를 앙양하여 전투력을 고취시켜 용맹을 다하게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하한 인쇄술이나 상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성을 발휘하여 필승하는데 정신무장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임을 정훈사업으로써 개척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즉 군인 각자에게 정신적 훈련과 사상선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무력전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전에서도 그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확립하게 되었으며 정병육성을 위한 사상교육의 필연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교육을 군대에서 적용실시하게 된 유래는 매우 오래전부터인 것으로 고대 동양의 손자병법에서부터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화랑도에서도 화랑 정신을 교육시켰음은 너무나 유명하다.

서양사에서는 기원전 408년에 스파르타 군대에 사치를 금하고 재물을 저축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소박질소(素朴質素)한 생활관과 인내정신을 길러냈으니 이 또한 정신교육의 시초였고 정훈사업의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 1874년에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 장군은 전쟁의 목적을 전장병에게 교육시켰으며 전쟁이 사상전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얼마 오래지 않다. 군내에서 정치적인 사상교육을 시작한 것은 적색 소련이었으며 이토록 공산군의 정치적 공작을 중대시하여 세계적 공산적화를 망상한 때부터였던 것이었다. 또한 중국 국민혁명에서 손문(孫文) 선생은 병사들의 전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3민주의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계승한 장개석 총통은 정신이란 현대전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라고까지 말했다. 이에 전쟁의 승패는 정신력에 있고 정신력의 배양은 정훈교육에 의존하며 군인정신의 함양과 사상선도교육의 중대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훈이 정병육성과 직접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논술했거니와 정병육성은 장병 개인에게 기초를 두는 것이다.

정병이란 어의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부하된 임무수행에 정숙정통한 기술과 투철한 군인정신을 장병 각개인에게 체득시킴으로써 정병육성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전투요원에게 각자가 가지는 전투능력이 존중되는 것은 비단 고대전쟁에서 뿐만 아니고 고도로 발달한 현대 과학전에서 더욱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제이무리 정교정밀한 과학무기라 할지라도 인력으로 조작되는 것임에 전투요원의 기술과 정신력이 궁극적인 승리의 결정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정예군대라는 평가는 실로 장병의 질적수준에 근본을 두고 논의됨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장비와 무기의 과학적 현대화를 등한시하고 정예군으로서의 구비요건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화된 과학무기나 장비를 기계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못 하게 하는 장병의 정신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물심양면의 집합적인 강대한 전투력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장병 각자가 스스로 왕성한 전투의식과 필승불패의 자신력을 견지한다면 아무리 성능이 우세한 무기 이상의 신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명심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장비와 무기의 위력을 뒷받침하는 장병개체의 정신력을 간단없이 수련하는 것을 자각함이 정병육성에 첩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정병육성의 목적이 공산제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러니와 유일보하여 멸공통일의 기회가 있으면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에 정병육성이 의화(意和)하는 것은 첫째 공산침략을 분쇄하고 둘째로 성전(聖戰)목적인 멸공 국토통일을 달성하기에 소루(疏漏)함이 없는 전투력의 강화를 기함에 있고 셋째로 국군자체의 영예로운 자세를 유지하는데 있다 하겠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국군은 자유애호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는 최전첨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전적을 청사에 남겼으며 자유진영 아세아의 최대강군으로 촉망과 각광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고 민족불멸의 운명과 함께 정병육성의 중대성을 재삼 강조하는 것이다.

5. 결어(結語)

이제 우리 국군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공산침략의 불의를 쳐부수고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수호하는 숭고한 전쟁목적과 조국의 번영을 지향하는데 비상한 결의와 견고한 신념을 간직하여야 하겠다. 빛나는 역사의 발자취는 젊은 생명과 정열의 약동으로서만이 국가적인 난관을 극복하였다.

널리 세계사에서 그 예를 찾지 않아도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서 그 뚜렷한 형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으로 신라삼국통일의 중추를 이루었던 화랑들의 충용과 정열은 어느 모로 보나 역사의 창조에는 젊은 힘이 원동력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다.

봉건군주체제하의 모든 사상과 윤리는 자유민주체제를 신봉하는 오늘의 세대와는 대상이 다르다할지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젊은 혈기를 약동시킨다는 철리는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이며 내 스스로가 믿고 실행하는 결단력의 궁행은 타인의 회유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는 민족과 함께 있고 인류공동의 적과 싸우는 대한의 군인으로서 자부와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P 90으로〉

현대전(現代戰)과 화생방(化生放)

김의식

<항공 의료원장 공군대령>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미국이나 기타 외국에서 연구 발전 중에 있는 특수병기에 관한 기사를 종종 읽는다. 실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새로운 기술 무기는 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과거 십수년 전 핵무기의 발명으로 전면적으로 전쟁개념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래식 고성능폭탄(TNT폭탄)과는 전혀 상이한 전쟁수단이 화학전(Chemical Warfare) 생물학전(Biologicalw) 방사능전(Radiologicalw)이 그것인데 이들의 첫 자만을 따서 화생방(CBR)이라 한다.

◇ 化學戰

화학전이란 인체에 유해한 효과를 주거나 혹은 연막 및 소이(燒夷)작용을 일으키기 위하여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화학전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일층 더 효과적인 화학약품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화학작용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살상작용제(殺傷作用劑)

보호되지 않은 사람에게 심한 부상이나 죽음을 주는 작용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수포성가스(Blister gas) -인체

의 노출된 피부에 화상과 비슷한 수포를 일으키는 가스이다.

b 질식성 가스(Choking gas) 주로 호흡계에 작용하는 가스로서 질식을 일으키며 중국에는 산소의 결핍으로 죽음을 초래케 한다.

c 혈맥 가스(Blood gas) 이는 주로 호흡에 의하여 체내로 흡수되며 혈액이 신체 조직으로 정상적인 산소의 공급을 못하게 한다.

d 신경 가스(Nerve gas)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치 못하도록 하는 가스로서 살상작용제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에 잘 알려진 G-가스 이외에 최근에 발명된 V-가스(VX)가 있다. 신경가스에 오염되면 일반적으로 콧물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쉬기가 어렵고, 동공이 축소되며 어둡게 보이고, 메스꺼움, 구토, 경련, 대소변의 불편, 비틀거림, 두통,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곧 죽게 된다.

(2) 혼란 및 폭동진압작용제

신체의 일부를 자극함으로써 혼란 및 공포를 주는 작용제로서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a 눈물 가스(Tear gas) 눈물을 나게 하며 또한 눈, 코, 인후, 피부를 자극한다.

b 구토성 가스(Vomiting gas) 메스꺼움, 두통, 기침, 재채기 및 구토를 일으키는 가스이다.

(3) 연막작용제

산포 및 연소시킴으로써 은폐효과를 내는 작용제이다.

(4) 소이작용제

고열에 의하여 사람이나 시설 및 장비를 소각시키는 작용제이다.

◇ 생물학전(生物學戰)

세균전이라고도 하는 생물학전이란 전염력이 강한 악성 세균을 특수폭탄이나 또는 그 외의 수단으로 적진에 뿌려 적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전쟁수단을 말한다. 병원체를 가진 벼룩, 모기, 파리 따위를 넣은 폭탄모양의 용기 또는 병원체가 묻은 털 베라, 식품, 따위를 비행기에서 투하 산포시키거나 풍선, 흐르는 강물 사보타주, 같은 방법으로 적진에 오렘시킬 수 있다. 세균전은 다른 병기에는 없는 특성이 전염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전파된다. 또한 대부분의 생물학전 작용제는 우리의 오관으로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열(五列)이나 간첩들에 의해서 비밀히 공격할 수 있다. 세균전은 적은 비용으로 비밀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위생 조건이 나쁜 아시아지역에서는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극히 비인도적인 전쟁수단의 하나로서 1925년 쥘네브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적은 언제 이와 같은 무기로써 공격을 가해 올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여기서 참고로 전염병의 발생 예를 간단히 살펴 봄으로써 만일 생물학전이 감행된다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자.

- 1) 1348-1350년 사이에 유럽 일대를 휩쓴 흑사병은 당시의 세계인구의 1/4인 6천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 2) 나폴레옹 군대의 90%가 발진지브스, 적리(赤痢), 폐렴 등으로 방기(放棄)되었다.
- 3) 1918-1919년 프랑스에서 갑자기 발생한 유행성 감기가 3차에 걸쳐서 유럽과 아메리카일 대를 유행하여 2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 4) 1848년 아일랜드에서 고구마가 어떤 균의 침해를 받아 완전파멸되므로 인하여 100명이 굶어 죽고 25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 5) 1946년 즉 2차대전 직후 멕시코에서 50만두의 소가 구제역에 걸려 집단사살 당하였다.

◇ 방사능전(放射能戰)

핵전 또는 원자전이라고도 하는 방사능전이란 연쇄반응에 의한 원자핵분열 또는 융합반응으로 방출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초고온의 열효과와 폭풍에 의한 파괴효과 및 방사능효과 등의 총합적 작용을 대량살상과 파괴력으로 사용하는 전쟁수단을 말한다.

제2차 대전말기인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알라모고르도(Almagordo)에서 인류최초의 원자탄폭발실험이 성공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핵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현재 핵무기는 전술과 방어무기로서 발전되었다. 같은 해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전쟁공업중심도시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효과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고로 이들 두 도시의 피해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인구.....	255,000	195,000
사망 및 실종수.....	70,000	36,000
상해수.....	70,000	40,000

핵무기의 폭발은 재래식 고품성 TNT 폭탄의 폭발과는 전혀 상이하다. 폭풍(暴風)이나 충격에 의하여 파괴력을 갖는 점에 있어서 TNT는 폭발과 비슷(물론 그 위력은 비교도 되지 않지만)하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에서는 볼 수 없으며 핵폭발시에만 나타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1) 열과 섬광으로 나타나는 열복사선과 (2)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주민들에게 미쳤던 원자병의 원인인 핵방사선이 방출된다는 것이다. 폭풍은 큰 질풍과 같아서 건물이나 모든 장치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재래식 폭탄에서 생발되는

열은 극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핵폭탄에서 생성되는 열복사선은 상당히 먼 곳까지 미친다. 예로서 일본의 나가사키의 핵폭발 시에는 폭발원점으로 부터 360미터나 떨어진 지점에서 4,000도나 되는 열이 미쳤으며 4방 3.2km가 완전히 불바다로 화했다 한다. 핵폭발시에 방출되는 방사선은 알파 및 베타 입자 전자파의 일종인 “감마”선 그리고 중성자 등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폭발 후 일 분 이내에 방출되는 방사선을 초기 핵방사선이라 하며 일 분 후에 방출되는 모든 방사선을 잔류핵방사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핵방사선은 전리(ion화)작용에 의하여 생물체의 조직을 파괴시켜 원자병을 일으키게 된다. 핵폭발은 그 폭발고도에 따라 고공, 공중, 표면, 지하, 및 수중폭발로 분류되며 이들의 효과는 서로 매우 다르다. 만일 핵폭탄이 공중 높이에서 폭발되었다면 그 폭풍과 열효과는 굉장하겠으나 핵방사선은 처음 수초에 그치고 만다. 지하나 구중에서 폭발하였다면 폭발에너지의 대부분이 땅이나 물에 흡수되어 폭풍이나 열효과는 공중폭발 시보다는 무시될 만치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의 방사능효과는 가장 극심하다. 다량의 흙이나 물입자들은 방사능물질인 폭발생성물, 폭탄의 파열편들과 함께 폭발력에 의해서 공중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며 이들도 또한 방사능물질로 된다. 그래서 이들 오염된 흙이나 물입자들은 땅에 떨어져서 폭발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까지 방사능 위험을 미친다. 핵무기가 폭발할 때 막대한 열에너지가 생긴다. 보통 우리눈이나 플로토니움 분열 폭탄으로서 최고 수백만 도까지 얻을 수 있으며 이 막대한 열로서 분열생성물, 폭탄껍질, 주위의 공기 및 모든 물질이 가스상태로 기화된다. 폭발 후 백만 분의 수초내에 고도의 광휘(光輝)를 발하는 구형의 덩어리로서 극도의 고온, 고압이 가스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화구(Fire ball)인 것이다. 예를 들어 무기위력이 1메가톤(MT)인 경우 0.7밀리 초 후에 60마일 밖에서 정오의 태양의 30배나 밝은 빛을 내었다. 화구가 커지고 식어감에 따라서 증기는 구름으로 형성된다. 이를 원자운(Atomic cloud) 또는 방사능구름이라고 한다. 이 원자운은 강한 상승기류와 더불어 급속히 상승하게 되는데 그 상승한도는 폭탄의 위력, 온도의 변화, 주위 공기의 밀도 등에 따라 좌우된다. 구름의 밀도가 주위의 공기밀도와 같거나 성층권 바닥(권계면)에서는 상승률을 늦추고 수평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버섯형의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원자운은 바람에 의해서 공중을 날으면서 서서히 지상에 낙하하게 된다. 이것이 죽음의 재로 알려진 방사능낙진(落塵)(Fallout)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낙진은 버섯형 구름에서 낙하하는 큰 오염분자들로서 폭발지점에서 과히 멀지 않은 지역에 떨어진다. 이것을 국부적 낙진(Local fallout)이라 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들은 서서히 낙하하며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일정한 방법으로 뒤덮게 된다. 이러한 낙진을 전세계적 낙진(World Wild fallout)이라고 한다.

핵폭발시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전형적인 공중폭발시에는 대략 폭풍 및 층돌효과로서 50%, 열효과로서 35%, 핵방사능효과로서 15%의 비율로 분포된다고 생각된다.

핵무기폭발시 사상자의 대부분은 보통 부상에 말미암은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사상자의 85%가 충격, 골절, 타박상 및 화상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그 외의 15%가 핵방사선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 폭풍에 의해서는 직접사상자는 안 생긴다. 인체는 상당히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폭발시 비산하는 수많은 파편물에 의하여 사상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

◇ 화생방전(化生放戰)의 방어대책(防禦對策)

M9 방독면은 대부분의 유독성 가스를 잘 막아 준다. 최근에는 M9 방독면을 개량한 최신형인 M17 방독면이 나왔다. 이는 정화통 대신에 여과판이 양 볼에 밀착되어 있는 간편한 방독면이다. 신경 가스는 냄새도 없으며 무색임으로 이는 신체에 나타난 특수한 증상으로만 감지할 수 있다. 즉 눈의 동공이 적어지며 흉부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신경 가스에 오염되었을 때는 보호고약 통 속에 들어있는 아트로핀 주사약을 맞는다. 피부에 수포성 가스가 오염되었을 때는 보호고약을 바른다.

세균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청결에 항상 조심하는데 있다.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는 방독면이 효과적이겠으나 비상시에는 단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음으로서도 가능하다.

핵무기의 공격을 미리 예지하고 각 개인이 취해야 할 준비행동은 종래의 병기에 의한 방어대비와 근본적으로 같다. 경보에 접하였을 때는 각 개인은 지시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가장 좋은 피난처는 지하실 구석이다. 평지에 있을 때는 근처의 구멍을 이용한다. 땅은 전체방사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좋은 방패가 되기 때문에 폭발이 바로 머리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개인용 방공호가 가장 적당할 것이다. 만일 상기의 두 가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리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나 벽돌로 쌓은 건물 구석에 책상을 놓고 그 아래로 들어간다. 이때 유리창은 열어

두어야 하며 덧문이나 커튼은 폭발 전에 해두는 것이 좋다. 폭발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극히 밝은 섬광을 보면 즉시 땅에 바짝 엎드리고 코트나 자켓으로 머리를 싸고 손은 몸 아래다 두고 엎드려서 그대로 약 20초간 더 걸리더라도 주위가 어느 정도 조용해질 때까지 있어야 한다. 또한 만일 방독면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완전히 둘러싸인 곳)으로 간다. 그리고 구호반이 도착하여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다. 폭발 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각 개인이 필요한 응급치료를 하는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

과거 일본에 투하되었던 핵무기의 위력은 20킬로톤(KT) 정도이었으나 최근에는 킬로톤의 천배인 메가톤(MT) 단위로 수십 내지 수백 메가톤이나 되는 막대한 위력의 핵무기가 실험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화생방을 비롯하여 전인류를 멸망시킬 방사능전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뿐이며 아울러 여하한 적의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다. 방호능력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다. -끝-

◇ 꼬부라진 백조(白鳥)의 목

어느 회합에서 아인슈타인(독일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1879년~1955년)은 그 집 주부로부터 상대성원리론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대물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날, 나는 몹시 무더운 시골길을 장님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유가 먹고 싶었습니다.”

“우유가 먹고 싶다고? 우유란 마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죠?”

라고 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흰 액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장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액체라는 것은 나두 알고 있는데 흰 것이란 뭐죠?”

“희다는 것은 백조의 날개와 같지.”

“날개는 알구 있는데 백조란 무엇인가?”

“목이 꼬부라진 새.”

“글쎄, 목은 알구 있는데 꼬부라지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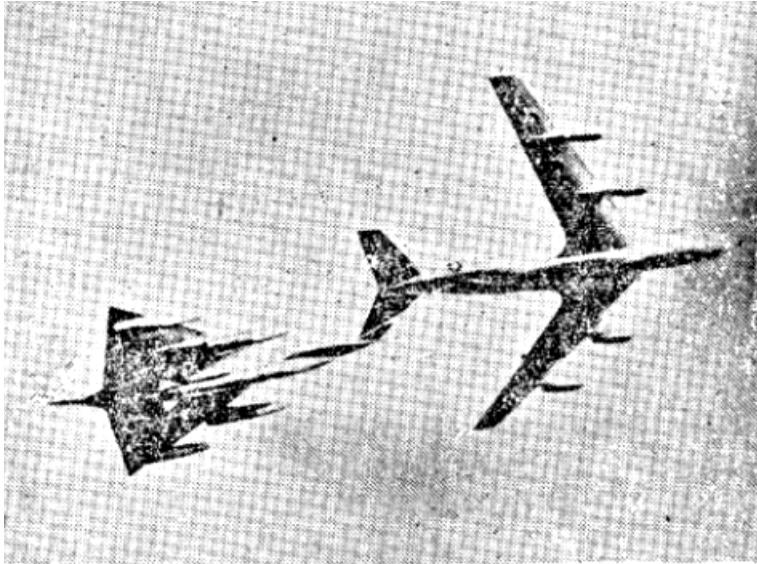
드디어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님의 팔을 힘껏 꼬부러뜨리고 말했지요.

“이것이 꼬부라진 것이다!”

그랬더니 장님이 말하더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우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미공군전략폭탄기 B-58이 KC-135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다



세계(世界)의 항공세력(航空勢力)

홍성표(洪聖杓)
 <공군소령>

서론(序論)

세계로서의 항공력을 논함에 있어서 종전부터의 개념인, 하늘을 전패하였던 항공기만을 취급하기에는 오늘날 냉정이 격화되어 하시(何時)라도 동서양진영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에 열전을 불사할 이때 이미 그의 가치론 자체가 상실되었다고 과언하여도 어느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논할 항공력에는 적어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3차대전의 주축적인 역할을 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항공기와 더불어 유도탄 나아가서는 보조적인 함정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려고 한다.

이렇듯 세계전략의 변경은 군사과학무기의 급격한 발전에서

온 것으로서 1957년 소련의 ICBM이 발사성공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의 전략공군(SAC)은 세계를 자신있게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후 소련의 ICBM은 비록 즉각실전용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에 정세로 보아서 그의 예측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이 미공군의 전략폭격대를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ICBM의 전성기가 도래함으로써 미국도 소련에 ICBM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발전하는 한편 제2의 반격력으로 자처하는 Polaris 고체연료 중거리탄도탄을 장비한 핵잠수함을 건조하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동서양진영의 항공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쑥스러운, 소위 전력의 균등화가 1969년부터 2-3년간의 Missile-CAP의 비관론이 무색할만큼 서방측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세계 전략평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다. 그러나 군사무기의 발전은 이것으로 절정에 이른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개발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장래의 전략무기의 우열을 속단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부적하여 이것을 결정짓기에는 3차대전이 종료된 후에야만 알 수 있는데 이때쯤 되면 모두들 말하듯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전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니 3차대전은 승패의 결전장이 아니라 전멸의 도래를 뜻하는 듯하다.

여하튼 지금까지의 전략무기만으로도 세계의 전인류가 멸망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무기는 발전하고 있으니 지난 2월 23일 육해군 45주년 기념일에 앞서 22일 기념식전에서 마리노보스키 국방상은 이미 우주 로켓을 장비하였음을 호언하였고 이어서 소련방 공군총사령관은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위성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같은 무기는 미국도 이미 발전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공력을 포함한 전략무기에 대하여 미국, 소련 및 각 동맹체순으로 열거하려고 한다.

<미국(美國)>

미국은 동서양진영에서 열전화(熱戰化)할 경우 적어도 서방측에서 군사적인 우위로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을 일시에 멸망시킬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으며 그중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략공군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전략공군은 비록 큐바로부터 소련의 공격무기를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작년 10월 위기에서 자극받아 소련 주위 동맹국으로부터 B47 중형폭격기와 중거리탄도탄(Cirbm)을 다수 철거시켰지만 그의 세력은

대단한 것으로써 전략공군에서 항공력을 보면 B-52제트 8발격폭기는 총 744대 중 14동 비행단에 630대를 실전부대에 취역시키고 있는데 이 B-52를 25MT급 핵폭탄을 각각 2개씩 장비할 수 있으나 193대의 B-52G형은 사정 600리 이상이며 4MT급의 핵탄두를 장비할 수 있는 Hound-Dog(대지유도탄)을 각각 2개씩 장착할 수 있으며 102대의 B-52H는 1,000리 이상의 Skybolt를 장비할 예정이었으나 그의 위력과 성공률이 좋지 못하여 발전중지되고 만 것이다.

그 외에 B-47중형6발제트폭격기는 가장 최고로 실전용으로 취역하였을 때에는 약 1,700대까지 달하였으나 현재에는 불과 850대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B-47은 최대속가 MACH2로서 3각형익을 가진 B-58로 대체하고 있는 중이며 B-58중형4발제트폭격기가 2개비행단에 90대 취역하고 있다. 이 이외에 B-47과 B-58의 폭격행동반경권이 짧기 때문에 이를 연장시킬 목적으로 공중연료급유 중 KC-135발제트급유기를 약 600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력은 대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숫자이나 전략공군은 대형폭격기 이외에 5,000리 이상의 각종장거리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도탄 중 터버제트를 동력으로 한 Snark(대륙간순항유도탄)는 61년말까지 완전히 폐기한 이후 오늘날은 속도가 음속 15-20배에 달하며 그의 사정도 5,000리 이상까지 발사할 수 있는 액체연료를 가진 ICBM인 Atlas 가 2MT급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 Atlas는 13개 중대에 126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시 액체연료인 Titan은 5MT급의 핵탄두를 장비하고 6개 중대에 54발이 취역하고 있는데 이 중 Atlas는 지상발사대이나 Titan은 일부는 반지하발사대에 장착되고 있다. 그리고 제2시대의 탄도탄이라고 불리는 고체연료의 Minuteman 대륙간탄도탄은 불과 1MT급의 핵탄두를 장비하지 못하였으나 액체연료인 Atlas, Titan이 ICBM으로써 비상신호가 발령된 때부터 발사된 때까지 12분이 소요되는데 Minuteman은 단지 32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tlas는 지상발사대에 Titan은 반지하발사대에 장비 하나 Minuteman은 완전지하발사대(silo식)에 장비하였다가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Minuteman이 예정일보다 훨씬 앞서 62년 12월 10일에 20발이 취역하였는데 금년 여름까지는 130발이 다시 1965년까지는 800발이 취역할 것이라고 하는데 미공군에서는 B-52 적재용 Skybolt 공대지 중거리탄도탄을 생산 중지한 대신 Minuteman을 1,700발까지 생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800발을 지하발사대에 장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나 일설에는 67년 말까지 2,500발의 Minuteman을 생산하고 이중, 1,000발을 지하발사대에 장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전략공군은 Minuteman 탄도탄계획 이외에 ICBM으로써 67년까지 Atlas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액체연료인 Titan을 275발 생산하는 이외에 항공기는 최대속도가 음속 3배인 XB-70(RS-70) Valkyrie 6발대형폭격기를 62년 말에 시험비행 할 예정이었으나 화학연료로 인한 연료Tank의 부식 문제 때문에 연장되었는데 이 XB-70폭격기를 1969년까지 60대, 1970년까지 150대를 생산할 예정으로 보아 앞으로는 인간탑승기 대신에 탄도탄에 치중하려는 계획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는 전략세력으로서의 다만 전략공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미해군은 약 8,400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1척의 항공모함에 탑재시킨 약 2,000대의 각종 공격기와 Polaris를 장비한 원자력잠수함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2,000대 이상의 공격기 중에는 A4B Skyhawk 약 1,500대와 A3B Skywarriors 약 150대 그 이외에 A-5A Vigilantes 가 취역하고 있는데 이들 공격기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산권내를 공격하고 기지에 귀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16발의 Polaris 고체연료중거리탄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원자력잠수함은 1963년 1월 12일 나탄 헤일호와 존 아담스호 2척이 진수한 것을 포함하여 17척으로써 63년 말까지는 18척이 취역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상 될 것으로 보며 이들 원자력잠수함 중 6척은 Polaris(중거리탄도탄) 중 1,200N/M의 사정을 가진 A-1형을 장비할 예정인 것이 6척이며 그 외에는 A-2형으로서 사정이 1,500N/M를 가진 Polaris를 장착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머지않아 실전용이 될 A-3형 Polaris를 장착할 것인데 이 3형은 사정이 2,500이며 미공군에서도 이동발사대용으로 개량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미국의 항공력이라기보다 전략세력 중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써 전략공군과 미해군항공력 2,000대 이의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약 2,000대의 경형폭격기 및 전투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의 전략세력은 모두 합해서 전략수폭탑재기 약 2,000대, 핵무장 공격기 약 4,000대와 각종 ICAM 200발과 Polaris 약 250발 등 전략무기만을 예거하였는데 이들 전략공군이 38개 전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외에 방공공군이 20개 전대로서 최선예기는 음속 2배의 전천후전투기 F-106

약250대를 포함하여 700대의 F-102 약 400대의 F-101과 약간의 F-86D, F-89 등 1,5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공기 중 F-106 F-101은 핵탄두를 장착한 공중 대공중 유도탄을 적재할 수 있다.

전술공군은 16개 비행단에 5만 명으로 항공기로서는 전형적인 전투 폭격기 F-84, F-100, F-104 및 F-105 그리고 금년 7월까지 나올 F-3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급유중대는 66개 중대 기타 1선기 등 모두 합계해서, 총 약 16,000대의 각종 항공기와 약 86만 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병력과 장비를 가진 미국에는 현재 세계 각국 70여 개 소에 산재하고 있어서 3차대전의 신호와 더불어 3만 MT인 4만 개의 핵탄을 소련 영토 내에 투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력은 소련국민 1인당 150돈(㉮)의 재래식 폭탄의 세례를 받는 결과가 되며 이 150돈은 2차대전 중 초요새폭격기 B-29 30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련>

소련은 철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의 배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며 더구나 가장 기밀로 되어 있는 항공력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여기에 의지가 소개한 단편적인 소련공군을 종합해서 보면 우선 미국의 전략공군이 소련공산권을 강타하는데 주축적인 역할을 하듯 소련도 이와 대등한 장거리 폭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가 보유한 항공력은 총수 1,500대로써 그중 금년 2월 22일 미항공모함상공을 정찰비행한 바 있는 4발 2중 Turbo-prop 대형폭격기 Bear(TU-20)는 약 7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Bear는 시속 550리에 항속거리가 7,000리로서 폭탄은 20톤을 적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 개발한 미공군의 Hounddog와 같은 단거리공중대지상유도탄 2개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이나 그다음에 4발제트 장거리폭격기 Bison(IL-38)는 속도가 시속 600리에 항속거리 6,050리를 비행할 수 있는데 폭탄은 10톤을 적재할 수 있으며 미공군의 B-52와 대등한 것으로 12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전략항공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Badger(TU-16)는 미공군의 B-47과 대등한데 시속 587리에 4-5톤의 폭탄을 적재하고 3,500리를 비행할 수 있는데 약 1,000대가 취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Badger는 미국본토를 핵공격하기에는 1-2차에 걸친 공중급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1961년 최초로 원형이 비행하였으며 한때 원자력항공기라고 알려졌던 3각익에 4발제트인 Bunder는

미국의 B-58과 대등한데 최대속도는 음속 2배이나 항속거리가 불과 1,650리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이보다 약간 소형이며 성능이 비슷한 Blinder도 Bunder와 같이 1961년에 원형이 출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실전용으로 취역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전용이 된다면 미국의 Skybolt와 같은 공대지탄도탄을 장비하고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미국의 B-58이 실전용으로 이미 90대가 취역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뒤떨어진 감을 주는 것이다.

전술공군은 소련의 항공부대 중 최대의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만도 작전기 전체 중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북극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경폭격기 Beagle(IL-28)만도 4,000대 이상이나 취역하고 있고 이 이외에 전술전투폭격기 Flashlight-B형(YAK-25B) 약간 등 약 5,000대와 전투기로서는 대부분이 제트기로서 가장 최신예기는 최대속도가 음속 1.9인 MIG-21(Finshbed)를 비롯하여 MIG-19(Farmer), MIG17(Fresco)로 되어 있으며 그의 대수는 약 10,000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방공부대에도 소규모의 전투기를 장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최대속도 700MPH, YAK-25C(Flash Light) 전천후전투기를 비롯하여 MIG-17 D MIG-19, MIG-21 등이며 이러한 방공기는 성능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공기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전자장치는 서방 세계에서 장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1961년 5월 1일 파워즈 조종사의 U-2기가 유도탄에 의하여 격추되기 전 약 4년간을 소련영토상공을 정찰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못하여 속수 방관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 위에다 전자장비의 미비로 단일방공계통이 아니고, 군구단위로서 분할지역 중심의 방공이 또한 약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련은 비록 항공모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군도 4개의 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북방함대 발탁함대, 흑해함대, 태평양 함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해군함대의 항공기들은 타의 항공부대의 기종으로 되어 있는 MIG-17, MIG-19, MIG-21, 그리고 IL-28, TU-16과 같은 중형폭격기도 있으나, 해군기로서 독특한 TU-14(Bosun)과 같이 IL-28를 개량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쌍발제트 폭격기 이외 BE-6, Prop 초계기나 BE-8쌍발제트초계기를 장비한 근본적인 초계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것이다.

해군항공부대의 임무는 해상장거리정찰, 대잠초계 및 공격, 함대호위, 적항공부대 및 함대공격 등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해안기지에 근거지를 두고 이착륙하는 것이다.

이렇듯 광대한 지구에 분산되어 있는 항공기는 미해군기의 8,400대에 비하여 극히 열세한 입장에 놓여 있으나 그래도 약 3,500대의 각종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또 특이하게 민간항공이 국방성, 산하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민간항공과 군사항공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민간항공 "Aerofloat"의 최고관리자와 차장 2명이 공군장관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Aerofloat"를 군수자재나 인원의 수송을 행하면서 군사조직의 건설을 원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정부대도 공수하고 있다. 물론 민간수송에 사용하고 있는 기체도 일개 비상시에는 즉시 군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구로 되어 있다.

민간항공은 최근, 소련 본토로부터 쿠바까지 무착륙 비행한 바 있는 TU-114 대형 수송기를 비롯하여 쌍발제트 TU-104등 약 2,0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TU-114는 소련 공군의 전략폭격기 BEAR를 개량발전시킨 것으로서 항속거리가 7,000리 이상이고 승객은 170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다.

끝으로 소련 공군은 예비공군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할 목적하에서 취해진 것으로서 이 예비공군이 강화된 것은 제2차대전 초기, 공군이 손해를 크게 받았을 때 그때까지 수년간에 걸쳐 양성한 예비 조종사와 폭격사 등을 소집하여 전력 회복에 공헌한 때부터이다. 소련 예비공군은 육해군의용협회에 소속해 있는데 현재 소련의 청년은 17세이면 공군에 입대할 수 있고 그들은 육해군의용협회에서 초(初) 비행과정을 마치고 있음으로 공군에 편입 시험만 하면 합격하게 되어 있다.

편입 시험은 후보자의 주소에 있는 의용협력에서 행해지는데 3단계로 되어 있다.

제1은 신체검사, 제2는 학과시험, 제3은 정치시험인데 시험에 합격하면 공군의 비행학교에서 기초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렇듯 소련 공군은 광범위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군항공기 3,500대를 제외하고 공군기만으로 약 20,000대에 인원은 약 7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소련 공군이 비록 이상과 같은 인원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전은 초과학화의 대결이기 때문에 수에 앞서 질적인 강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 공군이 일익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자계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서 항공전에 있어서

미·소 항공력비교표

미			소	
전략폭격기	B-52 B-47 B-58	630대 850대 90대	BISON BADGER BEAR	120대 1,000대 70대
ICBM	ATLAS TITAN MINUTEMAN	126발 54발 20발	T-3 T-3A	100발
소련공격가능 공군기 해군기 전술기 2000			미 본토공격가능전술기 없음	
A-4B 1500대 A-3B 150대 A-5A 기타 약350대				
전체 공군기 장비	약 16,000대		약 20,000대	
전체 해군기	인원 82만명 8,400대		약 70만명 3,500대	

※ 소련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해외 기지 ICBM은 철거 중임으로 삭제하였음

성능이 같은 상대방국의 항공기와와 공중전은 중전에는 조종사의 숙련도에 달려 있었으나 오늘날은 그 항공기가 장비한 전자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되었는데 이러한 전자계통의 결합이 큰 것이다. 특히 지상에 설치한 Radar의 탐지거리가 단거리에 나타나는 지역방공은 현대전에서 보다 빨리 탐지 요격하는 이 마당에서는 더욱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위에도 폭격기가 장비한 ECM장비는 우수한 방공조직이 치밀하게 구성되었고 요격유도탄이 극도로 발전된 오늘날에는 단적으로 그 폭격기의 존재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전자계통의 결합과 아울러 방공조직계통의 미숙한 실전경험은 소련공군의 미래전에서의 큰 약점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련의 전략무기로써 중요시되는 유도탄을 보면 미국과 달리 공격용 유도탄은 모두 로켓 사령부에 소속하고 있다. 소련은 ICBM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섰다고 하여 왔으나 오늘날은 소련의 ICBM으로서 액체연료인 T-3, T-3A 2종류만 실전용으로 나왔을 뿐이며 수에 있어서도 100발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ICBM은 모두 미국의 핵탄두보다 수배나 큰 25-100MT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핵탄두는 5MT급이나 그보다 아래인 것보다 그의 숫자적인만큼 위력이 크나 하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미국이나 서방세계에서는 가격은 비례적으로 많은데 위력은 극히 역기(逆幾) 하학적(何學的)으로 적어서 다만 100MT급핵탄두는 심리적인 효과를 얻는 것 이외에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고체연료의 ICBM인 Minuteman을 이미 62년도에 20발을 실전용으로 배치하였는데 소련은 저장 가능한 액체연료인 ICBM을 금년 내로 배치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이 신형 ICBM은 전의 ICBM보다 소형이나 더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전략폭격기와 유도탄 중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ICBM 100발과 전략폭격기 200대로서 핵무기 263개인 1446MT를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은 이같은 적은 숫자만을 미본토에 일시에 투하할 수 있으나 운반무기만 제조하면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이 4만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나 우리 소련은 그보다 더 많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언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저장량이 있는 듯하다. (다음에 계속)

× × ×
× × × ×

미소(美蘇)의 우주개발경쟁(宇宙開發競爭)



인공별이 하늘을 장식한 1957년 10월 4일부터 어느덧 5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1963년 4월 8일 현재까지 미국서는 195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133개가 무사히 궤도에 올랐다. 한편 소련은 그동안 34개를 발사하여 단 1개만 실패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 소멸되지 않는 약 50

개의 미국 인공위성과 8개의 소련인공위성이 천연의 못별과 함께 우주에 살고 있다. 그동안 미소양국이 하늘로 날려 보낸 화폐는 100억 달러의 단위로 헤아려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미소양국은 끝없는 우주가도를 경제적 출혈로 새빨강게 물들이면서 줄달음을 쳐가고 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는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시소게임을 벌리면서 우주개발경쟁은 인공위성의 속도 모양 눈 부실만큼 빠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양대국이 위신을 걸고 정력을 기울여 버리고 있는 우주개발경쟁의 오늘까지의 모습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중수(李鍾秀)
〈한국일보 과학부〉

소련서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을 때 미국서는 크나큰 쇼크를 받았다. 과학왕국의 토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로켓연구의 배경으로 본다면 당연히 미국서 제1호 발사의 영광은 미국이 지녀야만 되겠다는 것은 미국인이 아니라도 인정해야만 될 판국에 소련서 선수를 치고 나왔으니 놀랄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세계에서 최초로 액체산소 로켓을 개발한 로버트 허친스 고다드는 미국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V2로켓을 설계 제작해서 영국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바 있는 폰 브라운 박사가 미국에 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는 한없는 자원이 있고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가 있다.

그런데도 인공위성의 첫 발사에 있어서는 소련에게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국은 망신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러한 의문과 함께 강력한 반성이 미국에서 일어나 결국 1958년 10월 1일에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육, 해, 공군이 질시와 반목 속에 제각기 제멋대로 조직성 없고 일관성없이 로켓과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온 것이 참패의 최대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은 참으로 자유세계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었다.

NASA에 우주개발계획이 통합되면서 미국은 서서히 체면을 되찾기 시작했고 케네디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더욱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소련과의 갭은 차츰 오무려져 가고 있다. 그러나 한번 벌어진 단면은 여간해서 아물어지지 않는 법이다. 어느 면에선 아직도 소련에 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소련을 압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어 결국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고 판정내릴 수 없는 시소게임 속에 양대국은 우주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공위성 제1호 발사에서 승리를 거둔 소련은 그 뒤에도 1959년 9·10월에 달 로켓, 1962년 8월에 인간위성 등을 발사에서 현저한 차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렇게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중요 우주경기에선 미국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그렇게 참패를 하게 된 최대 이유는 미국이 대형로켓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소련서 대형로켓을 일찌감치 개발한 것은 반드시 우주경쟁 앞날을 내다보아서가 아니었다.

소련은 미국 모양으로는 소형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에 뒤지고 있었다.

무겁고도 덩치가 큰 핵무기를 운반하려면 아무래도 대형로켓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소련은 대형로켓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결국은 그에 성공하여 제1호 인공위성 발사,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의 실전용화, 달로켓발사, 인간위성 발사 등 일련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54년에 손으로 들 수 있는 수폭(水爆)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즉 핵무기의 극소화에 성공했다.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추력 160톤 정도인 아틀라스, 로켓으로 충분했다. 아니 아틀라스, 로켓까지도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대형로켓이라야 고작 아틀라스뿐, 레드스톤이나 주피터니 쓰어니 하는 중거리 탄도유도탄 운반용 로켓에만 열중해 왔다.

소련이 추력 3백 톤 내지 5백 톤짜리 대형로켓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까지 미국은 아직도 실용되는 대형로켓이라곤 아틀라스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대형로켓 개발에서 독주하는 것을 바라다만 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형로켓 개발에 뒤졌음을 통렬하게

반성한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턴, 로켓 개발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추력 약 7백 톤의 새턴, 로켓은 글렌 중령 등 「7인의 우주기사」가 탔거나 타게 될 캡슐 7개를 한꺼번에 우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대형로켓이다.

그 제1단계에 대한 실험이 지난 3월 28일에 네 번째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1단계(전부 3단계) 이위는 점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량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백 톤의 물을 모함에 채운 채 새턴, 로켓은 하늘 높이 솟아 올랐던 것이다.

새턴, 로켓은 로켓계의 천재인 폰 브라운 박사 그룹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폰 브라운 박사 그룹에서는 인공위성이 아직 하늘을 날기 전인 57년 봄부터 새턴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58년 늦은 여름부터 육군의 인정을 받아 정식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 폰 브라운 박사 그룹은 헌스빌에 있는 육군조병창 내의 육군탄도 미사일 본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일부는 NASA에 이관되어 조지·C·마샬·스페이스·홀라이트·센터가 되었다.

폰 브라운 박사는 그곳의 소장이 되어 약 6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새턴, 로켓의 최종완성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어떻든 미국이 새턴 C-1형만 완성시킨다면 소련과의 차이는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에 소련은 더 강력한 로켓을 개발할 것 아니냐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령 소련이 천 수백 톤 추력을 낼 수 있는 강력 로켓을 개발한다 해도 미국이 새턴 C-1형을 완성한다면 70년도까지의 달을 무대로 하는 경쟁에선 소련과 어깨를 겨누고 맞싸울 수가 있다.

새턴 C-1 로켓 연구개발은 64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다. 61년 10월 27일에 새턴이 최초로 발사되었는데 64년까지 C-1형을 10호까지 발사하기로 되어 있다.

4호는 이미 지난 3월에 발사실험에서 성공을 보았는데 63년에는 8호까지 발사되리라 한다. 그리하여 64년까지는 10호까지 발사될 것이다.

새턴 C-1형 로켓은 70년 이내에 달 주위까지 3명의 우주인을 싣고갈 아폴로 우주선의 운반체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다.

아폴로 우주선이 3명을 달까지 운반하면 1명은 탐험선에 타고 달에 착륙, 2명은 모선에 탄 채 달 주위를 돌면서 연락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탐험이 끝난 한 사람이 다시 모선까지 돌아오면 지구로 귀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소련은 오는 67년 10월 4일 즉 혁명 60주년 기념일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도 67년을 일단 목표점으로 정할 것은 틀림이 없다.

적기를 흔들면서 달을 확보하는 소련인이 출현하기에 앞서 성조기를 흔들며

달을 확보할 미국인을 출현시키기 위해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이폴로 계획에만 2백억 달러를 소비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으로도 그 나라의 열의를 알 수 있다.

美, 蘇 양국 중 어느 나라에서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인가. 이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57퍼센트 적중률의 예언이지만 누구도 자신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련이 이제까지 미국을 우세리에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찍 서둘러 개발해놓은 대형로켓의 혜택의 결과일 뿐이다.

소련은 지난 4월 2일 1,422킬로그램의 최종 중량을 지닌 우주선 루니크 4호를 달을 향해 발사했다.

그들이 달을 우주경쟁 무대로 삼기는 59년 이래 4년 만의 일이었다.

59년 1월 루니크 1호는 달을 스쳐 통과한 뒤 인공흑성이 되었다.

59년 9월 루니크 2호는 달을 명중시켰다.

59년 10월 루니크 3호는 달 이면 4분의 3을 사진으로 촬영해 냈다.

그러면 루니크 4호는? 전세계의 이목이 총집중되었다.

달에 연착륙(소프트 랜딩)하여 표면의 상세한 모양을 텔레비전 카메라로 찍어 보낸다고도 했다.

8자 모양으로 달을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오되 달 이면의 나머지 4분의 1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분화구 등을 더 상세히 텔레비전 카메라로 촬영해 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모두 소련을 과신했다. 결과는 태산명동서(泰山鳴動鼠) 1필, 달을 스쳐 지나가고 나서 자료를 좀 얻은 것 뿐이었다.

그 자료의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4년 전 달 이면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다는 소련으로선 당시의 루니크 1, 2, 3호의 약 5배 되는 루니크 4호를 겨우 달 옆으로 통과시킬 능력밖에 없다는 것은 미국에 큰 격려꺼리다.

영광하고 음흉한 그 나라인지라 또 어떤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달 우주선을 발사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건 뒤의 일이고 어쨌든 1발 천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 나갈 달 우주선을 장난으로 쏘지 않았다면 루니크 4호는 실패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달을 정복하기 위한 전자공학적인 기술은 소련에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61년 후반부터 62년 말까지 3백 킬로그램 정도의 레인저 우주선 5개를 달에 발사해서 모조리 실패했다.

미국 역시 우주선 유도기술엔 미비점이 아직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미국서는 62년 8월 27일 금성 로켓, 마리너 2호를 발사해서 유도 기술의 탁발성(卓拔性)을 보여 주었다.

예정보다는 훨씬 먼 3만2천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하긴 했으나 귀중한 자료를 얻어 냈다. 그뿐 아니라 5천8백만 킬로미터라는 장거리통신까지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오직 하나 대형로켓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 때문에 소련에 놀리는 슬픔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실용위성이라든가 군사위성개발에 있어서는 미국이 소련을 압도적인 스코어로 리드하고 있다.

소련은 실용위성을 개발한 것이 없다. 군사위성도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일련의 과학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코스모스계획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 3월 21일 제13호가 발사되었다.

그런데 미국서는 각종의 실용위성 군사위성을 다채롭게 개발해오고 있다.

실용위성으로는 기상위성인 타이로스, 통신위성인 에코, 텔스타, 릴레 항해용 위성인 트란싯트가 발사되었다.

그리고 군사위성으로는 미사일, 조기경보용인 미다스, U2기의 대응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모스 위성이 발사되었다.

디스커버러 위성도 정찰위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4월 2일로 제17호까지 발사된 바 있는 익스플로러 위성은 과학연구용 위성인 것이다.

미국은 이 밖에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에 발사 로켓을 원조해줌으로써 그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인공위성을 하늘에 날렸고 또 앞으로 날릴 것이다.

제1호 인공위성이 하늘을 장식한 지 5년 반. 짧은 세월에 무던히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우주는 크다. 따라서 우주에의 길은 한없이 뻗어 있다.

지구에 사는 같은 인류라는 점에서 생각할 때 미·소 양국이 서로 힘을 나누어 우주경쟁을 하는 것은, 그것도 막대한 경제적 출혈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용서 안 한다니 그도 할 수 없는 숙명이란 건가. (끝)

◇ 돈 버는 방법(方法)

풍자작가 체스터튼이 어느 날 돈 많은 은행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돈 버는 방법은 글썄요, 수천 가지 있습니다.”

하고 체스터튼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정당히 버는 방법은 단지 한 가지 뿐이죠.”

“어떤 방법입니까?”

하고 은행가는 물었다.

“글썄 말입니다.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지요.”

◇ 수염

처칠이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을 때 그의 많은 동지들이 화를 내며 비난했다. 어디나 곧잘 나서는 젊은 여성 동지 한 사람이

“나는 당신에 대해서 거슬리는 점이 두 가지 있어요.”하고 말했다.

“응 그것은 무엇이죠?”

“당신의 새로운 정책과 수염입니다.”라고 여성 동지는 서슴치 않고 말했다. 그러자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겠지 당신은 그 두 가지의 어느 것에도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터이니까.”

분석철학(分析哲學)의 개요(概要)와 과제(課題)



김형석(金亨錫)
<연세대 교수>

19세기는 관념론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면의 많은 업적을 남겨 주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상당히 강렬한 반대사상의 도전을 면치 못했다. 절대적 관념론에 대한 상대적 실재론과 경험론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으며 형이상학적 체계에 대한 반대운동이 그 중요한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형이상학에의 조류는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경험론, 자연과학 등 사실에 치중하는 학문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형이상학적 요소가 21세기 초엽에 이르러 하나의 집단적인 사상체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도에 나타난 비엔나학단이 바로 그것이다.

경험과학, 수학, 물리학 등을 전공하는 반형이상학적 학자와 E 마흐(1838-1916 물리학 철학 전공, 비엔나의 교수)의 뒤를 따르는 감각론적 실증주의자들의 새로운 철학을 뜻하는 집단이었다. 여기에 베를린에서 H 라이엔밭흐 등을 위시한 경험과학의 철학자들이 합세하여 「인식(認識)」이라는 기관지를 내게 된 것이 본격적인 학파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들이 흔히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부르는 학풍의 원천이 여기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영국에도 새로운 학문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관념론을 배격하고 경험론의

새로운 창설을 뜻하는 철학자들이 캠브릿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것은 과학적 철학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언어적 분석의 이론을 전개시키는 성격이 합친 내용의 철학이었다. 논리적 원자론을 제창한 B 러셀과 같이 출발하여 언어 문제를 취급한 비트겐슈타인, 언어문제와 동시에 경험론의 재건에 이바지한 GE 무어 등이 그 대표자였다. 러셀이나 비트겐슈타인의 학설이 비엔나학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새로운 철학의 사조가 형성되는 도중 유럽에는 사상적 위기가 찾아왔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모든 학자와 사상가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한 일이다. 그 때문에 비엔나 학단의 중심인물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건너갔다. 아직도 카르납, 화이글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M 슐릭, 라이헨밭흐 등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은 미국학계에 영향을 주는 일면 자신들의 학문의 성격에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체로 그들을 통괄하여 의미론적 분석철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과학적인 내용에 병행하는 의미와 논리적 분석이 그 중심내용이며 거기에 어떤 원리를 찾자는 의도에서 주어진 문제들이다.

일방 영국에서는 러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적 논리의 원리가 옥스포드학파로 계승되면서는 언어분석의 분야로 치중되었고 그것도 최근에는 일상용어의 분석을 중심과제로 삼는 일상어학과 흐름을 만들었다. 어쨌든 이 두 사조는 영미를 중심으로 삼는 경험 세계의 철학으로 자리잡혔으며 모든 성격으로 보아 대륙적인 것과 대조되는 위치의 철학이다. 실존의 형이상학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비엔나-미국적인 분양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분석철학을 논리실증주의로 통칭해 왔으나 오늘은 영국과 미국의 공통성이 깊어짐을 따라 두 가지 사상을 아울러 분석철학이라 불러주고 있다. 오늘의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철학의 하나로 분석철학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분석의 사조는 지속될 것이며 그 방법은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철학이 가지는 근본성격은 무엇이며 또 어디에 그 학문적인 특수성이 있는가?

우리는 이미 분석철학의 반형이상학적 성격을 지적해 왔다.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존재의 실체성을 배척한다는 내용과 실증과 유용성을 떠난 이론을 거부한다는 방법론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이상학자들은 존재와 실체의 문제를 항상 철학의 중심과제로 삼아 왔다. 그러나 발달되는 과학 경험론적 추리는 이러한 실체를 받아들이기 학문적 여백을 남기지 않았다. 수학자들은 그것을 함수의 이론으로 바꾸었으며 과학자들은 모든 실체를 본능으로 환질해 버렸다. 실체란 관념철학의 환상적 대상에 불과하며 형이상학자들의 이론적 우상에 지나지 않는 바 없다고 본다.

후에 다시 논급하겠지만 관념론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은 내용도 의미도 없으며 경험이나 사실에도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추상적 개념과 술어를 나열함으로써 원대한 철학 고상한 관념론의 체계를 만든 듯이 생각해 왔다. 피호테의 절대자아, 셸링의 동일성, 헤겔의 절대정신 등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참된 철학에서는 배제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배제의 방법은 무엇인가? 언어의 비판 정화 개념의 논리화에 있다. 그러므로 반형이상학의 근본 방법의 하나는 철저한 언어분석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태도야말로 분석철학이 가지는 반형이상학의 근본과제라고 보아 좋은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철학이 구성되는 근본적인 철학의 요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분석철학은 가능한가?

우리는 역시 분석철학이 논리주의의 철학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대표자의 한 사람인 에이어(Ayer 1910-) 같은 이는 철학은 논리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리고 그들이 논리주의를 택하는 데는 깊은 의의가 있다. 서양철학은 옛날부터 이성을 본위로 계승되어 왔다. 그런데 이 이성이 형이상학 관념론에 있어서는 비판도 내용도 없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제각기 어떤 이론을 제시하여도 좋을 정도였다. 이성의 한계 없는 남용이 철학을 혼란으로 이끌어 갔으며 마침내는 이성 자체의 본분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모순을 느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성은 곧 논리라는 한계를 택했다. 사유의 논리성뿐 아니라 표현의 논리성까지도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논리의 바탕은 무엇이며 가장 실증성 있는 논리의 원칙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등장한 것이 보편수학과 논리학의 결합이다. 수학은 논리로 환원될 수 있으며 논리는 근본에 있어 수학과 일치성을 갖고 있다는 깊은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륙합리론의 한 사람인 라이프니츠도 생각했던 내용이다. 그는 “후일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교환하다가 서로 공통점을 잃게 되면 잠시 수학적으로 풀어본 뒤에 다시 대화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논리와 수학의 일치성을 예언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과학성이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일반논리학에 비하여 논리계산학을 주장하게 된 경로가 여기에 있다. 논리는 수학과 같이 기호로 계산되어야 하며 사고와 표현의 원리가 변함이 없는 수학적성을 내포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의 분석철학이 논리주의를 택하게 되며 기호논리가 분석철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분석철학이 가지는 보다 본질적인 특성은 그 내용보다도 방법론에 있으며 방법론 중에서도 언어분석이 그 중심과제이다. 실존철학은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심이지만 분석철학은 인식론이 기반이므로 보다 깊은 관심을 방법론에 둔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다름 아닌 언어분석이다.

그런데 이 언어분석을 문제 삼을 때 떠오르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벨그송의 직관철학이며 또 하나는 딜타이 등이 강조하는 해석학의 입장이다. 벨그송은 논리 기호 언어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실재의 주변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실재의 중심내용은 우리들의 생명적인 직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다. 논리나 언어는 피상적인 것을 전달할 뿐 직관에 의한 생명적 파악을 논리적 형식언어적 표현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분석철학은 애매한 직관내용 언어를 통하여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은 참지식이나 철학의 내용이 될 수도 없으며 직관에만 호소해 가지고는 명제의 유효성을 시도할 수가 없다고 단정한다. 그것이 벌써 형이상학으로 이끄는 하나의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딜타이 등에 의하는 해석학이다. 해석학도 하나의 언어비판에서 언어지는 철학의 방법이다. 주어진 언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追)체험함으로써 그 뜻하는 내용을 받아 들임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심지어는 어떤 감정과 삶의 내용을 찾게 되는가 함이 해석학의 언어 비판이다. 보다 풍부하며 오히려 깊이 있는 언어비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석철학은 강력히 그것을 배척한다. 거기에는 언어의 논리성이 없으며 문헌에 잠재해 있는 인간 생활의 유적을 해석하는 태도는 끝까지 재래식 철학의 색다른 방법에 지나지 못한다. 그보다 분석철학은 언어의 역사성 추체험에 따르는 정서 등을 전연 문제 삼지 않는다. 기호 및 언어의 논리구조만이 문제가 된다. 과학의 논리학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비판의 분석철학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들은 언어는 넓은 의미의 하나의 기호이며 기호로서의 언어는 지식과 학문의 매개체이다. 인식의 대상이 되는 실재하는 사물은 언어를 통하여서만 알려지게 되며 또 기호 및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도 못한다. 그리고 기호로서의 언어는 지식의 매개물인 동시에 학문의 소재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서는 사색도 철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어를 통하여 지식은 사물에 미치며 모든 사□은 언어의 형식과 법칙을 통하여 지식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언어의 비판과 재구성은 철학의 근본과 □인 동시에 모든 지식의 제일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분석이 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는 주로 영국 계통에서 하고 있는 일로서 과학이나 일상생활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기호 및 언어를 분석하여 문제의 소재를 밝히며 무의미한 언어의 배제 애매한 언어의 수정을 하는 일이다. 언어를 그 형이상학적 용법에서 일상적 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모든 과학 및 일상생활의 지식내용이 명백해지며 건전한 상식과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는 일이다. 용어상의 오해와 애매성을 해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지나친 언어의 남용 및 조작 때문에 오는 형이상학에의 환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실례를 소개한다면 헤겔은 역사철학 서론에서「이성이란 실체이며 또 무한의 힘이며 그 무한의 자료는 자연 및 정신생활의 모든 근저에 머물고 있다. 이성은 다시 그 자료를 운동시키는 무한의 형상이며 모든 사물이 그 존재를 이끌어 내는 바의 실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사의 주체는 정신이며 정신은 역사에 있어서의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이 역사의 주체이면서 내용도 되고 운동의 원동력도 된다는 헤겔의 관념적인 역사관을 설명한 글의 일부이다. 그러나 경험주의 철학 실증성을 생명으로 하며 과학적 분석을 표방하는 분석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명제는 하나의 넌센스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넌센스가 철학의 고전인양 중요시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의 미비, 지나친 조작에서 온 불행한 결과이다. 지금의 대표적인 형이상학자의 한 사람인 하이데거가「무(無)는 무(無)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모든 존재자 뒤에는 그것으로 하여금 존재자가 되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존재자들이 유(有)라면 그것은 무(無)라고나 부를 수 있을까? 이 때의 무가 무에의 작용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존재에의 작용일 것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말이다.

그러나 분석철학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못한다. 이러한 언어 때문에 오는 폐단을 시정하자는 것이 언어분석의 한 의도이다.

그러나 때로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 지금까지의 언어로서는 충분히 표현 전달키 어려운 내용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 적당한 언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빌려 문제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 낸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논리의 구조와 의미론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뜻하는 바이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을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인문과학 일반에까지 적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분석철학은 논리학은 물론 문법과의 관계도 깊이 가져야 하며 명제의 논리적 구조는 항상 불가피한 요건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언어에서 출발하여 언어에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의 문제는 매개로서의 간접지(知)가 아니라 직접지에 속하는 과학의 과제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다」라고 말하는 뜻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은 철학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유일한 철학으로 자처할 만한 객관적 공인을 얻을 수 있는가? 분석철학자들이 실존철학을 윤리학이나 문헌평론 비술이 혹평해 버리듯이 실존철학자들은 언어분석을 내용이 없는 논리나 언어법칙과 의미론에 지나지 못한다고 무시해 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또 그러한 대립적 조류가 오늘은 거의 상식적으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양립된 위치를 떠난다 해도 분석철학은 분석철학대로의 난관을 지니고 있다. 일부의 분석철학자들은 분석의 방법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으며 학문의 모든 분야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다른 일부의 분석론자들은 오히려 실천적인 분야의 인식이나 직관적 내용에 속하는 문제는 언어분석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분석철학의 영역은 어느 정도 한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제삼의 입장을 택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재비판하여 개념을 밝히며 명석한 명제에서 학문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지만 학문이란 그 내용에 따라 방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분석철학 일색의 방법론은 지나친 일이라고 온건한 평을 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난점은 어디 있는가? 옛날부터 오늘까지 인식의 중심과제의 일부를 차지해 온 직관에 의한 본질파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함이다. 현상학을 높이는 학자들이「사상 그 자체대로」라는 신념을 강조해왔고 그 일을 위하여서는 본질직관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벨 그송은 오히려 이 직관의 순수한 파악이 먼저 있는 뒤에야 논리 언어의 간접지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언어나 합리는 이러한 직관의 내용을

간접화하며 내용을 매개체로 매꾸어 줄 뿐이라고 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어분석이란 이차적 방법이며 생명력 없는 기호를 뒷처리 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텃셀은 직관에 의한 지식이란 진리의 지식보다도 본래가 단순하며 논리적으로는 진리의 지식과 관계가 없다고 배척해 버리지만 문제의 해결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석철학의 보다 큰 난관은 실천철학적 분야에 걸쳐 있다. 윤리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등의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언어분석이 필요하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그것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먼저 실천에 있고 그 실천내용의 반성에 따르는 것이 지(知)로서의 언어로 나타난다면 문제는 꽤 복잡해진다. 역사적인 체험과 그것을 서술한 언어 사이의 공백, 종교적 체험에서 얻은 신비나 사랑의 문제 등은 기술된 언어만을 분석함으로써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사실 자체의 필요성이나 신빙성을 무시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윤리적 행동, 역사적 실천, 종교적 체험 자체는 뒤로 미루고 그 표현된 언어의 논리화만을 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은 충족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제각기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천문제에는 인식의 배후에 언제나 이상과 규범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언어분석을 넘어 어떤 정신적 배후가 있어야 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상정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나 언어의 객관화는 옛날부터 전해진 「너 자신을 알라」는 자기인식의 직접성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물론 나라는 일인칭을 이것이라는 삼인칭으로 바꾸어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체험과 생활의 공통성은 이것이 아닌 나에게 무엇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분석철학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긴 채 오늘의 철학으로 등단하고 있으며 논리와 과학을 그 날개로 삼고 있는 한 현대의 철학으로서 넓은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만은 틀림이 없다. 앞으로의 역사적 결실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 **영어(英語)와 미어(美語)**
 오스카 와일드는 미국식 발음에 대하여 화를 벌컥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인과 미국인은 그 발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통이다.”
 이렇게 말한 오스카 와일드는 이같이 말한 자기의 발음이 맞다는 사실의 증명을 발현하였다. 그것은 런던의 어느 영화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나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센세이셔널한 미국의 서부영화! 영어의 썬브타이틀이 들어있음.

연속심포지움⑤

한국의 자랑

한국의 의례(儀禮)



김은우(金恩雨)
 <이화여대 교수>

우리나라는 어느 때부터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꽤 오랜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동방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들이 예의가 바르고 또 예의만 바를 뿐 아니라 깨끗하여 언제나 흰 옷을 입기 때문에 백의민족이라고 불리웠던 것이다. 이런 한국의 별명은 비단 동서양을 막론한 다른 나라 사람들만이 한국을 가리켜 부른 것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별명을 우리나라의 명예스러운 것으로 자부하고 즐겨서 자칭하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한국이 좋다는 인상을 주는 옛말들 중에는 이런 것 외에도 많다. 예를 들어서 옛날 한시에 「원생고려국(願生高麗國)하여 친견금강산(親見金剛山)」이란 구절이 있듯이 한국의 산수마저 아름답고 깨끗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생에 한 번쯤 한국의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좋은 곳으로 소문난 것을 알 수 있다.

자랑을 하자면 사실 이뿐이 아니다. 얼마든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요사이도 영문으로 된 한국레게(介)의 말에는 으레 한국을 Korea라고 부르며 동시에 Calm land(고요한 땅)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이조때부터 한국을 조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조선을 서양에서

「고요한 땅」이라고 해석해서 부른 것 같다.

비록 현대 오늘의 한국이 세계에서 과거 우리가 가졌던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별명과 정반대로 더럽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소음이 많은 시끄러운 땅이라는 욕된 말을 간혹 6·25 전쟁 후에 더욱이 한국 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간 일부 병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와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근본적 생명을 이어나갈 나무뿌리와 같이 땅 밑에 숨겨진 것처럼 우리 민족국가의 전통의 뿌리 속에는 여전히 「동방예의지국」이나 백의민족의 「얼」이 살아서 숨겨져 있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언제든지 이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리라는 것을 믿는 바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고요한 예의범절은 어떠한 것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고요한 예의범절은 우리나라의 옛사람들이 지키고 행하여 내려온 모든 제도와 절차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예의범절은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무엇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했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이며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런 것을 실행함으로써 얼마나 사람의 품성과 품격이 고상하고 우아하게 되는 것인가를 믿음으로써 자기 당대뿐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자기민족의 후예들이 어질게 되며 의롭게 되며 또 지혜롭게 되어 복을 받게 되는가를 결정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한 행동한 행동을 모든 인생 생활절차에다 규정지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의 충성심을 가졌나를 보려면 군신의 예의범절을 보면 곧 알게 되고 임금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나를 알려면 그 나라 국조의 예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된다. 이와 같이 부자지간의 의례, 사제지간의 의례, 부부지간의 의례, 봉우지간의 의례, 이밖에도 윤리에 관한 모든 관계가 모두 예의범절의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필요로 했고 이런 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관혼상제라 하여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의 모든 예의범절을 규정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정말 고대로부터 내려온 관혼상제의 모든 예의범절을 하나하나 다 몰라도 한국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공통되게 느끼는 것이 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하겠다.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거나 자기 할아버지거나 아버지거나 선생이거나를 막론하고 미스터 누구라고 이름 석 자를 마구 불러대는 것이라든가 웃어른이나

아이나 구별 없이 유(you)라는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곧 그 사람들을 불분별 사람들이 되어서 도무지 예의에 대한 전통이 없기 때문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적이어서 좋다는 설명은 또 다른 면의 이야기라 하겠으나 자기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어른 앞에서는 ‘당신께서는’인지 ‘잡수셨습니까’라고 주격 ‘당신께서는’도 부치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서양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예의적으로는 소박한 것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사실 정말 웃어른들에게는 직접 질문형인 ‘무엇 하셨습니다’의 ‘까’자를 말끝에 부치는 것조차 예의상 허용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정말 어려운 분에게는 ‘진지 잡수셨는지……요……’ 식으로 말끝을 슬그머니 흐려 버리는 것을 예의 바른 것으로 인정해 왔던 것이다. 이런 말을 예로 들면 한이 없지만 한 마디만 더 들어 보면 가령 상가의 조의를 표하러 갔을 때도 조객이 상주에게 ‘상사 말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또렷 또렷하게 끝마디까지 다하는 사람은 예를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도리어 예에 벗어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즉 그런 자리에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첫마디 ‘상사 말씀 ……………’만 겨우 들릴락 말락하게 하고는 그저 그다음 말은 흐려 버리는 것이 바른 예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예의가 진정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실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데 없는 것 같다.

또 하나 조상이나 부모를 우리나라 예의로는 얼마나 진심으로 위하고 섬기나를 더욱 확실하게 알려면 서양 사람의 생활형태 속에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보면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여기 예를 드는 것은 조금 극단의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서양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딸이 병든 노모를 병원에 장기입원시켜 놓고 살다가 누구와 약속을 하고 막 집을 나가려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방금 당신의 어머니가 운명을 했습니다라고 하니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하겠으니 내일 아침 병원에 가겠다고 대답을 하드라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외국에서는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면 으레 부모와 따로 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이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따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감정적 타산주의에서 나온 생활형태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불효막심한 일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요새 와서는 한국에도 어느새 서양풍습이 유행되어

그런 것을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야 으레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예로 되어 있다.

어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야말로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섬기는 경로 정신이 높게 발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요사이 세대교체론이 떠돌아서 경로 정신마저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자기 조상을 잘 섬기는 자손이 이 땅에서 복 받고 장수하여 잘 살게 된다는 본바탕의 예의정신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 내외간이나 남녀 이성간의 사랑의 표현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예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특히 서양의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 느끼는 것은 도무지 이쪽이 즉 제삼자 쪽이 남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사랑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람 앞에서 태연히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의범절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해석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느낌이라 하겠다. 하필이면 꼭 사람 앞에서 뺨에다 혹은 입에다 키스를 해야 사랑을 표시하는 예가 되는 것인가. 그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되어야만 사랑이라는 것이 통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

뭐 사람 없는데서 밀접하게 지내야 할 사이라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밀접하게 되지 못할 것은 무엇이나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번 사랑의 그 근본이 무엇이나를 생각할 때는 꼭 육체적 밀접의 표현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고 단정하는데 동의가 가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사랑은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 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관능적인 정욕의 사랑이니 고상한 정신적 플라토닉한 사랑이니 하여 사랑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논한다면 한이 없겠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격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육체도 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교적 심신이 이상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데서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 따라 몸이 가든 몸에 따라 마음이 가든 어쨌든 마음과 몸이 동시에 합해져야만 그것이 비로소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서양적인 사랑과 동양적인 사랑을 대조적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보통으로는 서양적인 사랑은 외형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고 동양적인 사랑은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여긴다.

여기에 따라 자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동형태의 예의형식도 동서양의 것이 대조적으로 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어떤 것이 더 좋으나 는 또 다른 문제이다.

춘향전에 나타나는 사랑을 테마로 한 사고방식이나 이에 따르는 예의가 서양의 춘회에 나타난 것과 어느 모로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해도 자연적으로 알 노릇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서양식으로는 자기 남편이 먼 여행을 오랫동안 갔다 오게 될 때 비행장이거나 기차정거장이거나 장소를 가릴 필요 없이 그 아내 되는 여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남편의 친구를 다 갈라 헤치고 맨 앞에 뛰어나가서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며 남이 무슨 표정을 짓든지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행동이 일종에 당연한 예의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예는 어떤가 하면 현대화한 소위 신식 가정에서라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어머니 자기 스승 선배 친구 등 모든 사람을 다 먼저 만나 인사한 다음에 거의 맨 나중에 가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태도도 지극히 서먹 서먹하고 어색할 정도로 간단하기 짝이 없다. 기껏 말한다는 것이 남편은 “그동안 별 일 없었오”라든가 “잘 있었오”정도다. 그러면 아내는 “네”라는 외마디 대답이 아니면 그저 얼굴을 붉히고 외면하면서 약간의 미소를 지을 뿐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에든 손가방 같은 것을 조용히 받을 뿐 손 한번 남 앞에서 제대로 먼저 보지 못하는 식이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없고 예를 벗어난 내외는 처음 보았다고 하면 반드시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서양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할 것이다.

그래도 비행장이나 정거장까지 나가게 되는 아내는 신식에 속하는 편이다. 좀 더 고전적인 구식가정이라면 아내가 먼데 갔다 온 남편을 맞으러 자기 집 대문 밖 커녕 부엌문 밖도 못 나가는 수가 많다. 못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따지지 않더라도 부엌문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고개를 반쯤 들어 이슬 어린 눈길을 오래간만에 맞는 남편에게 던질 때 그 마음 속에서 자지러지게 느껴지는 행복감을 또 이 맛을 모르는 외국인의 어떤 아내가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 한국의 오랫동안 고래로 전해 내려온 거창한 예의범절을 논하는 것과는 결길로 나간 감이 없지 않지만 요는 한국의 복잡한 예의범절이 많고 또 그것이 엄격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휴머니티가 숨겨져 있다는 생생하고 따듯한 마음의 핵심을 설명하고자 예를 이렇게 든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의범절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리에 맞지 않는 외래의 것 특히 중국에서 꾸어온 것이 적지 않다.

이기 말기에는 주자학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주자가례에 따라 모든 예의범절이 마련되어졌고 이것이 퍼져서 일반화된 경향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어떤 소화되지 않은 외래의 어떤 제도가 일단 수입되어 일부 지도층에 유행이 되면 이것을 모방하고 흉내 내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원치 않은 폐단이 생기게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도 나중에는 나쁜 것으로 화하는 수가 많다.

이 주자가례의 관혼상제 예식도 임진왜란을 치른 다음부터는 그 예의가 너무 과도하게 되어 허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상을 당하면 자기는 하늘에 죄를 진 사람이라고 자처하여 시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리는 그의 관직을 버리고 물러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할 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상제가 되면 아무데고 여행을 하지 못할뿐더러 혹시 잠깐이라도 바깥을 나가려면 상립이라고 대(죽)로 만든 큰 갓을 쓰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웃은 언제나 배웃을 갈기갈기 찢어서 만든 것으로 입었었다.

그뿐 아니라 복상을 일 년을 입느냐 삼 년을 입느냐의 논란은 정치의 당파 싸움에 중요한 요소까지 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심각도를 나타내서 서인은 일 년이라니 남인은 삼 년이라니를 싸우며 저대로의 주장을 고집할 정도였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노론들은 주자가례에서 일자일획도 수정함이 없이 고집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말 주자가례의 원산지인 송나라 사람보다도 조선사람이 더 그 예의를 엄격하게 지킨다 하여 중국 사람들이 감복도 한 일이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 남의 나라 사람의 비웃음을 사는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언제나 참되고 올바른 예의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인의의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빈틈없이 잘 지키고 행하는 예이라든 그것이 허례로 빠지게 되면 아무런 예의의 생명과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 나라의 문화 문명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성장 발전하는 것과 같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예의범절도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적 발전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조 때 사용하던 주자가례의 관혼상제예식을

문자 그대로 따를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이다. 일제시를 지나 해방 후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싫거나 좋거나 서양의 문물을 들여왔고 또 영향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다.

아무리 예의범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손 치더라도 역시 그 모든 예의행동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참된 얼과 백의민족의 끈고 깨끗한 마음씨는 이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과 함께 길이 변치 않고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스며져서 살아 있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여 허례 아닌 참된 예의가 나타나리라고 믿는 바이다.

(P 56에서 계속)

이에 정신무장으로서의 철저한 반공교육과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정병교육의 필연성과 중대성을 전술하였거니와 군인으로서 생활신조로 삼아야 할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 첫째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라
- 둘째 군인은 민족에 겸손하라
- 셋째 군인은 무용을 연마하라
- 넷째 군인은 신의를 존중하라
- 다섯째 군인은 예절을 엄수하라
- 여섯째 군인은 생활에 청백하라
- 일곱째 군인은 문화를 애호하라

이와 같은 생활신조로서 일상 군인생활을 실천화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또한 민주군대로 그 사명이 세계민주우방과 공동된 민주주의수호의 최강의 군대로 최대의 능력을 집결하여 명실상부한 정병을 육성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 직업의식(職業意識)

마이크 트웨인은 그가 저술가가 되려고 서부의 어느 조그마한 신문을 편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미신자인 예약독자로부터 신문지 속에서 거미가 한 마리 기어 나왔는데 이것은 길조냐 흉조냐 라고 물어왔다. 마이크 트웨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신문지 속에서 나왔다는 거미는 당신에 대해서 길조도 흉조도 아닙니다. 거미는 단지 어느 상인이 그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는가 어떤가를 조사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점을 찾아가서 그 문턱에 거미줄을 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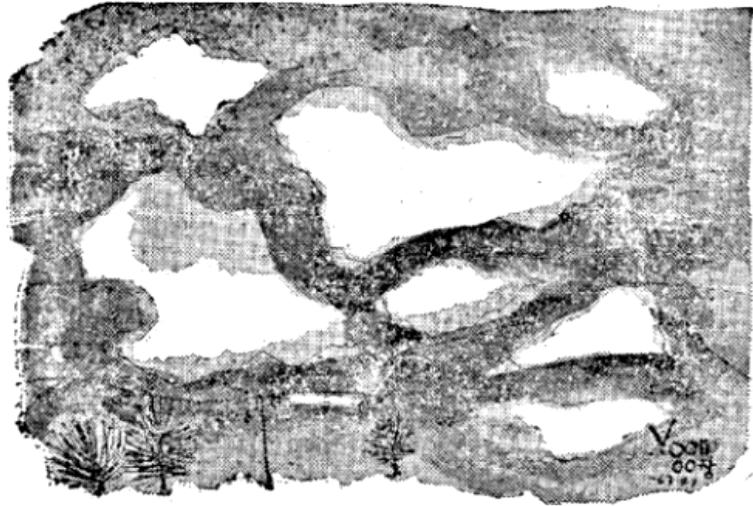
◇ 화재보험(火災保險)

존 록펠러가 죽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선시설에 상당한 기부를 했다. 그때 그는 우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은 나의 기부는 나의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돈 벌이라고도 생각하네. 나는 최고의 심판자(신)가 만일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나의 행위를 계산에 넣어줄 것이라 믿네.”

우인이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만약, 나의 생각이 들어맞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화재보험이다.”



벽공(碧空)

글 그림 장운우(張潤宇)

마크 샤갈의 하늘은 차고 높다.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반고흐의 그것보다 샤갈은 환상적이고 꿈을 간직한 호 오비스트이다.

하늘—
계절의 훈풍과 함께 찾아오는 하늘은 때로 푸루산·블루우라 해둘까, 사계와 그에 따라 시시로 변하는 벽공 밖에 우리가 간직하여야 할 것은 없다.

C46기 상에서 내려다본 하계(下界)
C46기 상에서 직접 느껴보는 고공에의 폐부를 찌르는 호연지기, 일찍이 산으로 바다로, 하늘로 다 겪어본 일이나 아직 바다 밑은 단 2미터도 못 가봤으니 그곳에의 집념도 있겠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연(紫煙) 자욱한 다방 혹은 이발소의 탁한 어항 속에서 보는 심해어(深海魚)들의 작희(作戲)를 보느라면 역시 가볼 것은 하늘 속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것도 몽실한 구름이 찢기듯 널려 있는—.

인위적 테코레이션 속에서 만족하고 몇 리터의 조절된 물탱크 안에서 내일을 모르는 어족들의 협견(狹見)은 대공을 치닫는 조공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보는 그대로이겠으니 말이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예술도 벽공 속에서라면 좀 달라질 것 같다. 형이상학적일 것 같은 생각이다.

어머님께

맹일영
<일병·공사교>



제가 반추하는 살아온 날의 반성과 살아갈 날의 새로운 눈
망울을 보십니까?

그토록 철없던 이 아들도 이제는 조국의 주추인 군인으로
서의 의무와 책임 속에 밝은 태양 밑에서 싱싱한 나날을 위
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평안하시고 동생들도 나날이 달라지는 성장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던 말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철없이 부렸던 어리광과 심술.
반항 —이에 배가해서 주시던 포근하신 말씀과 자양을 다시 한번 촉촉이 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대는 잊어버렸던 원시의 정을 일깨워주는
진실한 벗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글도 제가 국민학교 3학년 이후 잊어버렸던 어머님께 대한 감격
의 글을 더욱이 「전세계 어머니들의 날」인 오늘에야 드리게 된 것을 막불효(
莫不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제 주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편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생활은 처음엔 초조와 불안의 용융(溶融)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대하
는 영역에서 피부를 맞대고 부비며 사귀어 가는 광장에서 제 약한 지성과 양
심은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라면서 그 고독과 고달픔은 약삭
빠른 우리 인간가족에서는 맞볼 수 없는 생에 대한 깊은 관조와 달관의 세계
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늘 걱정해 주셨지만 입대 이전만도 무척 게
으르고 개구쟁이인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발소에서 장난치다 일 날 뻔했던 철부지 시절—

남의 집 장독에 돌을 던지고 도망치던 일—

창경원 벚꽃구경 갔다 괜히 심술이 나서 숨어 버렸던 일—

이렇던 소자가 어느덧 푸른 제복을 입은 동네 꼬마들의 공군 아저씨가 되었
습니다. 어머니도 대견하시다 여기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여기 제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웃어주시리라 믿는 내력을 적어 가겠
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얼마 전 제 또래의 소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
머님 모교이신 K여고를 마치고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만 무척
새침떼기죠. 이름은 희아(姬我)입니다만 저는 도니라고 불려왔습니다. 도니하
곤 거짓 없는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입대 후론
꼬박 편지를 주어서 신병대에선 공개까지 하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료를 얼마 앞둔 일요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두 번째 면회 오시던
바로 전주일 면회까지 와 주었습니다. 그의 편지엔 어머니님과 같은 날이었는데
제가 일부로 한 주일 앞서 오라고 한 일 새삼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날 어머
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용기가

안나 못 드린 점도 부끄러움과 어리광으로 아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특박 왔을 때 집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꾸지람 주시던 것도 사실은 그와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아버님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시절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것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고 진실한 이웃으로서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젊음이 다 가기 전에 착한 어른이 될 수 있는 미더운 이웃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즐겨 기다리는 내무반 자유시간입니다. 저만치에서 장기를 두고 바둑을 놓고 이쪽에선 책을 읽고 저쪽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앞날의 구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한 구석탱이에선 이렇게 편지도 쓸 수 있는 오붓한 시간입니다.

어머님 우리들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여기다 간단히 써 볼게요. 아침 6시 기상과 동시에 내무반 정돈을 하고 아침 점호를 받습니다. 점호하면 모르시겠죠? 학교로 치면 출석 부르는 것과 같은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행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잊어버린 정성—이것을 잠시라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주악 속에 국기가 내려질 때 저희들 동공은 몽글하는 감회와 함께 잊어버렸던 조국을 볼 수 있는 노스텔지어에 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쑥물 같은 기합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다정다감한 분위기와 공사의 칼날 같은 구별력은 우리들 생활에 꼭 필요한 모럴이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녁 점호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행사에는 고향의 흙, 내(II)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고향예배」순서도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하루의 피로를 내일의 여명 속에 가누면서 생의 기쁨을 누비며 조용히 시원으로 향하는 취침나팔과 함께 잠들게 됩니다.

그럼 어머님—
싱싱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사죄면서 이만 제 어리광을 댔겠습니다. 동생들도 매일 매일 커 가겠군요. 규숙(淸淑)인 이제 중학생일 테죠. 많은 선물 가지고 가겠습니다.

끝으로 아버님 어머니의 평안하심과 동생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63년 5월 8일
일영 올림



하늘의 영웅들께

-공군에 계신 오빠에게-

권성자
<서울대 문리대>

이 글을 드리는 저는 처음, 아는 분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무척 망설였습니다. 원래가 편지를 잘 쓰지도 못하고 또 차분히 학생 생활에만 젖어 오던 제가 감히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 두렵기만 했지요. 편지 제목이「공군에 계신 오빠」에게라는 것이었습니다만 어쩔지 쑥스러워 공군에 계신 분들을「하늘의 영웅」이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오는 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라디오 연속방송극「빨간마후라」에서 었어요. 무척 흥미있게 또 주의깊게 조국을 위해서 하늘을 비행하는 영웅들의 생활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용사의 무대는 역시 저 무한한 푸른 세계이겠지요. 하늘마저 생기 넘치는 봄철을 맞이해서서 누구보다도 더 가슴 한 아름 뿌듯이 새로운 희망과 치밀한 설계를 가지시게 되겠어요.

저는 항상 은빛의 비행기를 볼 때마다 공군의 넓고 무한한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한 10년 전 초등학교 때의 일 이었는데요, 그때는 푸른 대기에 저 자신이 흡수되었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겠지요. 그저 메스껍고 속이 뒤틀려서 혼이 났었으니까요.

저는 공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은익의 커다란 새와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창공과 하늘의 영웅이 되기까지의 숨은 인내와 노력, 고난 그리고 평범한 색이라고들 하지만 어쩔지 세련되고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을 상징하는 듯한 길은 코발트색의 유니폼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늘을 날오는 영웅들의 그 마음을 여자인 제가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꺼예요. 그 마음은 무척 넓고 깊으리라 생각되는군요. 인적이 드문 산이나 들의 자연 속에 파묻혀 한 조그만 티끌이 되어 보는 것도 좋겠지요만 또 푸른 물방울이 뚝뚝 흐트러질 것 같은 하늘 속에 흰 연기를 내뿜으며 먼지투성이의 인간 세계를 까마득히 내려다보면서 무한한 우주의 일부분이 되어 본다는 것은 얼마나 장쾌한 일이겠어요. 상상만으로도 저는 감격할 지경이고 저의 무던 붓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른지요? 물론 하늘의 영웅인 여러분은 한국의 채남아들이시니까 저같이 나약한 생각보다는 모든 것을 발아래 굽어보며 대공(大空)을 순식간에 정복할 수 있다는 남아다운 생각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늘의 영웅들이 그런 정복감만을 가졌고 엄격하며 위엄이 가을 서릿발 같고 또 용맹하고 의무감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만은 생각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대단하실 때도 있겠지만 일단 군무에서 벗어나시면 부드럽고 묵직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공군에 계신 아버지께

이건희



아빠 안녕하셨어요.
 엄마랑 진희랑 나랑 다 잘 있어요.
 그런데 아빠! 요전 날 밤 약속한 것 말예요. 설마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네! 왜 용이하고 말예요.
 맛있어요! 아빠 계신데 같이 가도 좋으냐고 여쭙어 본 것
 말이에요.
 정말 가도 괜찮죠? 정말이죠?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러는데 공군이 제일 멋있대요. 제트기

타고 마음대로 번개같이 하늘을 날으구 참 근사하다나요.
 그런데 아빠는 모두들 부러워하는 공군이요 거기다가 제트기 조종사니까 내
 가 으시멜만도 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 몇 곱절 우리 아빠가
 멋있고 자랑스럽고 근사한지 몰라요.
 괜찮지요?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 비행기 태우는 거 아니예요 정말예요.
 우리 아빠 넘버 원!

× × ×

저 넓고 끝없는 푸른 하늘에 아빠가 남기고 가는 우렁찬 폭음과 희고 가느다
 란 줄기 구름은 참말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고 멋지지요.
 오늘도 저 산봉우리 위를 네 대의 세이버기가 둥글게 네 줄의 흰 실 같은 구
 름으로 큰 원을 그리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모두들 너의 아빠의 비행길꺼라구 그랬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빠가 아니었다라도 나는 괜찮어요 조종사 아저씨들은 다 아빠의 전
 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빠와 똑같지 뭐예요. 전은 모두 모두 한 식구나 다름없대
 요. 그건 육군이나 해군이나 해병대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국군은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같은 전우니깐요.

아빠 그렇지요?
 진희하고 사이좋게 싸움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도 우린 형제
 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나 봐요.
 우리가 만일 서로 욕하고 때리고 하면 엄만 정말 속이 상할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저 북쪽의 공산당들은 그렇지도 않대요. 같은 백성들
 끼린데요 서로 험하고 억누르고 짓밟고 죽이고 한테요.
 저희들과 같은 공산당이 안 되면 마구 잡아가고 가두고 밀고 추운 데까지 귀
 양 보내서 강제로 무섭게 마구 일 시키고 한테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빨리 공산당 밑에서 고생하는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빠! 나도 얼른얼른 자리서 저 불쌍한 북한 동포를 살려내는데 힘써 도울래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6.25때 저놈들이

이해깊고 다감한 형님 오빠로서 가정에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동무들과 한담(閑談)을 즐기다가 가끔 화제가 군인 이야기로 바뀌는 때도 있
 어요.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들 여학생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병역의무를 치르게 되고 또 집안 내의 오빠들
 이 군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까닭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끔 재미있는 의견
 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공군에 입대한 오빠를 가진 한 동 무는 제일 멋진 것
 이 공군 유니폼(Uniform)이라고요. 독수리 마크가 달린 모자로부터 단정한 곤
 색 유니폼은 무척 매력적이구요. 더구나 그 유니폼을 입은 분은 모두가 미남
 으로 보이고 당당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웃은 일이 있어요. 저는 물론 하늘을
 날오는 멋이 그중 가장 멋다운 멋이라고 주장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음
 동무의 말이었습니다. 그 동무는 음악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어느 공
 휴일 고전음악 감상실에서 푸른 유니폼의 하늘의 영웅들을 보았답니다. 그때
 도 펑 침착하고 조용했다고 말하더군요. 모험적인 일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성격이 꼼꼼하고 거세고 아마도 감정이 굳으리라는 편견을 가졌던 저도 또 또
 다른 동무들도 모두 복잡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인간적인 여유와 낭
 만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 예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는 많은 값있는 생활을 영위하실꺼라고 믿
 어요. 어수선한 세파에 동요됨이 없이 냉철한 비판력과 의지를 가지시고 의무
 에 이탈없는 생활을 하시리라라고 확신합니다.

나라가 행운에 처해있을 때나 불운에 처해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심이나 의뢰심은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뒤에서 마음 든든히 자기가 처한 사회에서 힘껏 노력하며 생
 활할 수 있겠지요. 또 하늘의 영웅들이 가지신 나라를 위한 희생심에 뒷받침
 하여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단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의 이 짧은 글이 여러분의 겹겹 탄 얼굴에 조금이라도 밝은 미소를 띄우
 시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영웅들
 의 세계를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 주체님께 여러 말
 씬을 드렸나 봐요.



유난스레 위풍을 떨치던 동장군도 이제 가버렸으니
 부디 고른 기후가 계속되어 여러분의 입무에 불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날이 더욱더 분발
 있으시기를 삼가 비읍니다.

1963년 5월
 한 여대생 올림

쳐들어와서 마구 부수고 불렀으며 선량한 백성들을 말도 못할만큼 많이 죽였다면서요?

그러다가 우리 국군과 UN군 아저씨들한테 혼이 나구 다시 북쪽으로 쫓겨났는지요?

참 뻔뻔스럽고 이리 같은 놈들이지요. 백성들을 못살게 굴 뿐만 아니라 비참한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정말 짐승 같은 놈들이군요.

아빠! 이런 놈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자유롭고 평화스런 이 강산과 이웃 나라까지도 저들의 손아귀에 넣고 혼들어 지옥과 같은 고생살이를 시키려고 언제나 노리고 있는 저 무서운 오랑캐들을 하루 속히 무찔러 없애게 우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 애써야겠지요.

× × ×

아빠가 비행기를 10년도 더 타셨다니깐 만이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막 따져 봤지요.

6·25때 공군 중위로 무스탕 전투기를 타고 거의 백번이나 더 적진에 쳐들어 가서 폭탄으로 로켓을 그리고 기관포로 적들을 때려부셨다는 이야기를 구소령 아저씨한테 들은대로 옮겨줬더니 신이 나서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고 자꾸만 더 하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다음에 구소령님이 오시면 소개할게 라고 그랬지요 뭘.

아빠! 구소령님이요. 아빠는 참 용감하셨대요. 또 백발백중이래요. 그런데 바보래요. 자랑할 줄 모르고 가난뱅이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존경하고 따르대나요. 아빠가 지휘하는 부대는 언제나 힘세고 용감하여 무슨 일에도 제일 앞장서서 잘 한대요.

엄마도 아빠가 그 누구보다도 미더웁고, 멋있고,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또 안 좋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빠! 이걸 비행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 참! 아빠! 약속 알았지요. 잊으면 안 되요, 꼭예요.

용이하고 이번 토요일에는 꼭 가는거예요. 지난해 10월 2일 한강에서 에어쏘 한 비행기 다 보여 주시는 거죠. 나 한 번 타 볼래요. 참 그렇지 전투기는 혼자 타는 거래더라.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조종석에 앉을 순 있잖아요. 꼭 태워 주시죠.

난 설명만 해 주면 금방 배울거야. 아빠! 나도 조종사가 될 테니까요.

그만한 것,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운동도 쉬지 않고 하지 않아요.

참 용이도 태워 줘야 해요.

그 애도 조종사 된대요!

× × ×

엄마가 버스값 주신대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편지하신대요. 잘 가지고 갈게요. 그럼 아빠 제가 갈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이
건희 올림

요약(要約)

제삼제국(第三帝國)의 흥망(興亡)

WL 샤이어 저(著)

민철웅 옮김

(1)

히틀러의 대두(제1부)

—제3제국의 탄생

제3제국이 탄생하던 날 베를린에는 나치들에 의한 무지, 총파업 등의 소문이 퍼져 자못 험악한 공기가 감돌았다. 이제 바이마르공화국의 종말이 온 것은 누구에게나 뚜렷하게 느껴졌으며 도이취에서 가장 큰 정당인 국가사회주의당의 두목 아돌프 히틀러는 그가 끝장내기로 맹서한 민주공화국의 수상에 취임하려 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얼마 전부터 도이취의 보수우익의 정당지도자들과 접촉해 왔다. 이제 그들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히틀러가 그 수상에 취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힌텐부르크 대통령뿐이었다.

여든다섯의 고령인 힌텐부르크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스트리아인 하사를 공화국의 수상으로 임명치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워낙 고령인데다가 정신이 쇠잔해져서 결국 그의 아들을 포함한 주위 인물들의 설복으로 드디어 1933년 1월 30일에는 제1차대전 중만 해도 그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하사였던 오스트리아인 아돌프 히틀러를 공화국의 수상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나치당의 지도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게에벨은 당시의 감상을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꿈같기만 하다.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했다. 14년에 걸친 노력은 승리로 보상되었다. 도이취의 혁명은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히틀러가 몇천 년이라도 계속 되리라 호언하던 제3제국이 탄생된 것이었다.

제3제국은 12년 4개월 만에 끝났다.

그러나 그토록 짧은 기간이나마 도이취는 구주대륙(歐洲大陸)의 주인으로 군림했으며 인류는 일찍이 맞보지 못한 잔인한 테러와 공포를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제3제국을 한 때나마 구주의 주인으로 군림케 하고 또 그 끝말을 그토록이나 비참하게 한 히틀러가 악독하기는 하였으나 풍부한 상상력과 꿰뚫는 통찰력을 갖춘 천재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하면서부터 12년 동안 소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이취인은 마치 그가 절대자이거나 한 것처럼 맹목적으로 그에게 이끌렸던 것이다.

—히틀러의 어린시절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하급 세관리(稅關吏)의 아들로 태어났다. 히틀러는 어려서부터도 다른 어린이들처럼 천진난만하지 않았으며

세상 물정으로 그의 마음은 항상 어두웠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윈 히틀러는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비엔나미술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시험에 실패했으며 이듬해인 1908년에는 어머니마저 여의게 되어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 열아홉이었다. 후에 히틀러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으나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의 원대한 계획에 갑자기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했다.”

히틀러는 직업이 없었다. 그는 항상 손으로 하는 직업을 경멸했으며 단 한 푼도 벌려고 하지 않았다. 친척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성공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하며 고향을 떠나 비엔나로 갔다.

그 후의 4년간이 고향인 린츠에서 홀몸으로 뛰어나온 히틀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시대였다. 그는 기차역의 집꾼, 건설공사장의 노무자, 치기 등의 날품팔이를 하고 때로는 빈민구호소에 가서 주린 배를 채우기도 하며 지냈다.

그러나 의기소침한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리 히틀러는 담배, 술, 계집같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눈만이 웅하니 크게 번쩍이던 히틀러는 육체적인 노동을 싫어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서 보냈으며 그가 후에 「나의 투쟁」에서 숭회한 것처럼 최후까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히틀러의 대부분의 신념은 그 당시의 독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다. 그가 당시의 독서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이념들은 대부분이 편견으로 가득찬 뺨뺨어진 것들이기는 하였으나 그것들은 후에 제3제국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인류에게는 의미 깊은 것이 되었다.

당시는 히틀러가 정치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오스트리아의 주요 정당들의 동태를 예리하게 관찰했으며 후에 그를 도이취의 통치자로 만든 놀랍도록 명석한 정치적 통찰력을 길렀던 것이다.

사회주의근로자당과의 처음 접촉에서 히틀러는 말할 수 없는 증오를 느꼈으나 영리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근로자당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유를 규명했다. 그리고 몇 가지 결론을 얻은 히틀러는 후에 그것을 국가사회주의당(나치)을 건설하는데 활용했다. 그가 얻은 결론의 첫째는 정당의 지도자란 당의 활동의 바탕이 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전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히틀러 자신이 말하듯 소위「정신적 및 육체적 테러」의 활용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치즘의 싹

세 번째 결론은 물론 그릇된 관찰과 지나친 편견의 소산이기는 하나 젊은 히틀러를 자극했다. 또한 비엔나에 오기까지 반유태 감정을 별로 갖지 않았던 히틀러는 당시 비엔나에 유행하던 반유태문학에 몰두했으며 매춘 및 백인 노예의 거래에 대한 책임이 주로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히틀러는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 “도시의 뒷거리에서 속이 메스꺼워지도록 악독한 상업을 하고 있는 냉혈적이고 파렴치하고 타산적인 유대인을 처음으로 인식했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히틀러의 반유태감정은 그의 억제된 성적 욕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한다. 사실상 20대의 젊은 히틀러는 여자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이다.

히틀러는 죽는 순간까지도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반유태주의자였다. 그는 죽기 몇 시간 전에 쓴 유서에서도 전쟁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면서 철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반유태감정 및 타오르는 듯한 증오심은 많은 도이취인을 광분케 했으며 몸서리치는 대규모 학살이라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이 땅 위에 남겼다.

1913년 봄, 스물네 살의 히틀러는 비엔나를 떠나 그가 항상 동경하던 조국 도이취에 가서 살게 되었다. 친구도, 가족도, 일자리도 없는 히틀러는 누구의 눈에나 건들거리는 부랑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집투성이로서 독서를 좋아하는 히틀러는 자기에 대한 불굴의 자신을 가졌고 깊은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히틀러는 무니히에서도 직업을 안 가진 채 빈털털이로 친구도 없이 지냈다. 그러던 중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8월에 히틀러는 군에 자원입대했다. 이제 자기의 정열을 마음껏 바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쓰라렸던 과거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쟁은 스물다섯 살의 히틀러에게 새로운 생애를 열어준 것이었다.

히틀러는 전쟁 중 두 번이나 부상을 당했으며 그의 용맹성은 두 번이나 훈장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다른 병사들처럼 불평도 할 줄 몰랐고 전쟁은 그에게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패배는 못 참았다. 1918년 11월 10일 카이젠은 도망했으며 그토록 많은 인명을 빼앗은 제1차 세계대전은 도이취의 패배로 끝났다. 히틀러는 그때 “눈 앞이 캄캄했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무덤에 서서 처음으로 흐느껴 울었다고 했다. 패배의 굴욕을 참을 수 없었던 히틀러는 많은 도이취인들처럼 “군대가 전선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배반자들에 의해 등위에서 쫓렸다.”는 소문을 광신적으로 믿었다. 당시 도이취인들간의 이러한 소문은 후일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와 히틀러의 집권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소문과는 반대였다. 당시 군의 최고사령관이던 루덴돌프장군이 정부에 압력을 가해 휴전에 조인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이취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휴전에 조인한 정부당국자들을 「11월의 범죄자」라고 비난함으로써 상치받은 자존심을 위로하려 했다. 히틀러도 다른 도이취인들과 마찬가지로 정계에 투신할 것을 결심한 것은 그때였다 고 후에 말했다.

—나치당의 탄생(誕生)

친지도 돈도 없는데다가 정치경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30세의 오스트리아인 아돌프 히틀러가 도이취에서 정치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가 1918년 11월 무니히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도이취의 공화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여러 가지 정치단체들이 들끓고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히틀러의 정치적 생애가 시작된 것이었다.

육군에 소속되어 있던 히틀러는 1919년 9월에 정치부로부터 당시 무니히에서 「도이취근로자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던 조그마한 단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 스물다섯 명에 불과한 보잘것 없는 집회였으며 히틀러는 당시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집회들 중의 하나라 생각하고 별 흥미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도이취근로자당으로부터 히틀러의 입당을 허가한다는 염서가 왔다. 그것을 받은 히틀러는 어이가 없었다. 더욱이 그는 남이 만들어놓은 당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자신이 당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타한 호기심도 있고 해서 히틀러는 회합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 술집으로 갔다.

회합에서는 전번 회합의 의사록이 낭독되고

서기장에게 신임투표가 있었다. 다음에는 회계보고가 있었다. 당의 재원은 통틀어 7마르크 50페니였다.

그것에 대해서 회계주임은 신임투표를 받았다. 그것도 의사록에 기록되었다. 집회는 그야말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으며 히틀러는 가담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정열과 이상에 넘치던 서른한 살의 젊은 히틀러는 그 조직이 보잘 것 없음에 일종의 매력을 느끼고「도이취근로자당」의 일급 번째 위원으로 입당했다.

그것은 괴벽한 자물쇠 상인, 주정뱅이 시인, 변인 경제가 그리고 동성연애주의자 등이 모인 뒷골방 잡담클럽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뒷날의 당당한 정당으로 육성할 지도적 역할을 히틀러가 맡게 되었던 것이다.

비엔나에서 굶주리고 고독했던 시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관념들은 이제 그 출구를 발견하고 묻혀있던 정열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 얼마동안 당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였다. 그러나 젊은 히틀러는 낙심하지 않았다.

1920년 초에 히틀러는 당의 선전을 맡고 있는 영망으로 된 25개 항목의 강령을 만들어 냈다. 그중의 대부분은 나치당이 집권할 때는 거의 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는 후에 제3제국에 의해서 실천되고 수천 만의 인간을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은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이 있었다. 그것은 「전 도이취인을 한층 더 큰 도이취에 통합할 것」을 주장한 제1항「베르사이유 및 쌍 제르망의 두 조약의 폐기를 요구」한 제2항, 그리고「강력한 중앙국가권력의 창설을 주장」한 마지막의 제25항 등이 있다.

1920년 여름에는 당원도 상당수에 이르렀으며 히틀러는 제대군인들을 동원해서「철완부대」를 조직하고는 갈색 제복을 입혀서 나치당의 정치집회를 보호케 하고 다른 당의 집회를 방해했다.

1921년 한 때는 히틀러가 이들을 진두지휘해서 정적들의 집회를 습격한 적도 있었으며 그 때문에 체포되어 3개월간 금고형까지 받았다.

또한 예술가가 되려다 실패한 히틀러는 이제 위대한 선전가가 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조직이 기대고 일어설 수 있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문장, 깃발, 심볼 등이 당에 필요함을 느꼈다. 대중은 그것을 따라가고 그 밑에서 싸울 무엇인가 눈부신 깃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히틀러는 심사숙고 끝에 마침내 붉은 바탕 한가운데 검은빛만(卍) 십자를 그린 깃발을 고안했다. 이것은 예술은 아니었으나 최고의 선전이였다. 전후 의지할 곳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황하던 중산계급을 행동으로 이끌었으며 그들을 깃발 아래 모으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21년에 젊은 선동가 히틀러는 당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장악했다. 당의 다른 지도자들이 히틀러의 독재적 수법에 도전하자 그는 사표를 냈으며 그것은 당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다. 만약 그가 탈당하는 날이면 당은 흩어지는 판국이였다. 결국 그는 당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1921년 7월에는 나치당과 나아가서는 제3제국의 절대적인 규율이 된 「지도자의 원리」를 세웠다. 이로써 도이취부대에 후리가 나타난 것이었다.

히틀러의 가까운 부하가 된 자들의 대부분이 당시 이미 당원이었거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당원이 되었다. 어네스트 로엠펜과 히틀러에게 가장 충성스런 부하였던 루돌프 헤스, 그리고 나치당의 지적 지도자였던 알프레드 로젠버그 등이 이미 당원이었다. 1923년에 로젠버그는 나치당의 기관지「뱃킷서 베오바하터」지의 편집장이 되었다.

도이취의 전쟁영웅 헤르만 게에링도 1921년에 당원이 되었으며 당을 재정적으로 많이 도왔다. 정력이 넘치는 그는 로엠펜을 도와 돌격대를 조직하고 1922년에는 SA의 대장이 되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무리가 주위에 모여

들었으며 히틀러는 살인자, 양아치, 마약중독자, 성적도착자, 건달 등 그들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자기에게 소용이 되는 한 개의치 않았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끝까지 옹호한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말할 수 없는 썩디스트로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반유대주의자 였다.

루터, 괴테, 쉴러, 바하, 베토벤, 브람스 등을 낳은 도이취의 독재자가 되기 위해 맹렬한 운동을 하던 초기에 히틀러가 그의 주위에 끌어모은 인물이란 이런 자들이었다.

—베르사이유 조약(條紙)

1921년부터 1923년 사이에 갖가지 사건이 잇달았다. 연합국은 1921년 4월에 도이취에 330억 불의 엄청난 배상안을 제시했으며 도이취인들은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필쩍 뛰었다. 마르크는 폭락하기 시작해서 불당(弗當) 4마르크 하던 것이 1년 후에는 4백 마르크로 내려갔다. 정치적 암살이 횡행하고 바이마르공화국은 극좌 및 극우의 위협을 받아서 존립이 위태로웠다.

전쟁이 끝날 무렵 군지도자 루덴돌프 및 힌덴부르크는 정권을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맡기고 패전의 책임을 그들에게 덮어 씌웠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얇은 농간이었으나 대부분의 도이취인은 이에 속았던 것이다. 어찌됐든 종전 당시 실권을 장악했던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대지주, 대자본가, 고급관리, 군벌 등을 재빨리 제압하기만 했던들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압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의 새로운 도이취헌법은 20세기의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것이었다.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이취의 이러한 헌법이 채 그 초안도 끝내기 전에 베르사이유조약이라는 천천벽력이 도이취 국민에게 떨어졌으며 도이취의 앞날을 암담하게 했던 것이다.

베르사이유조약이 외견상으로는 도이취의 국권을 꺾어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었으나 사실상 몇 개의 조항은 점령지역의 반환, 카이젤을 포함한 8백여 명 전범자의 인도를 규정하고 또 전쟁도발의 책임을 도이취인에게 강요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동조약을 강력히 거부했으나 육군이 전쟁의 계속이 불가능함을 주장(이 사실은 후에 도이취에서 까맣게 잊혀졌음)함으로써 의회가 조약의 비준을 승인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도이취는 분열의 도가니로 화했다.

도이취의 보수계급들은 평화조약과 이를 비준한 공화정부를 거부했다. 그들은 여전히 도이취의 경제력을 쥐고 있었으며 후에 그들의 재력을 가지고 공화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정 당 및 신문을 후원했다.

육군은 평화조약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동조약의 군비제한 조항을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안의 국가를 이루고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간섭했다. 이리하여 공화제는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던 것이다.

이러한 틈에 젊은 히틀러는 반민주적이고 반공화적이며 국가주의적인 조류를 타고 그의 세력을 확장했으며 특히 마르크 화폐의 저락 및 프랑스의 루르 점령은 히틀러의 세력확장을 크게 촉진시켰다.

프랑스가 도이취의 배상불이행을 구실로 도이취의 공업중심지 루르를 점령하자 노동자들은 육군의 도움을 받아 태업, 총과업, 게릴라전 등으로 이에 대항했으며 도이취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마르크 화폐는 불당 일만 팔천 마르크이던 것이 불당 10조 마르크 이하로 저락했으며 종내는 화폐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화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마르크 화폐가 휴지가 됨으로서 이익을 본 것은

정부, 육군 및 산업제벌들이었다. 정부는 막대한 전시공채에서 해방되고 산업계는 휴지가 된 마르크로서 빚을 청산했으며 육군은 재정적으로 새로운 군비를 마련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 폴탕을 먹은 것은 도이취의 대중이었으며 도이취 사회의 경제구조는 그 신망을 완전히 잃었다. 대중은 마르크의 저락으로 누가 얼마큼 이익을 보는 것인지는 몰랐으나 그들이 피땀으로 벌은 재화가 단 한 파운드의 감자나 단 한 온스의 설탕도 살 수 없음을 알았으며 굶주렸다. 그들은 파산했던 것이다. 도이취의 대중은 이렇듯 절망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대한 책임을 공화정부에 돌렸다.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 비어홀 푸치

1923년 말에 공화국정부와 바바리아주 정부는 결렬 직전의 단계에 이르렀다. 바바리아주는 총독 칼, 라이호스베어 사령관 룩소, 그리고 경찰책임자 자이서의 독재적인 삼거두(三巨頭)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으며 그들은 루르의 저항을 중지하고 배상을 지불기로 한 공화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지나치게 선동적인 히틀러의 베오바하터지를 폐간하라는 공화국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을 무시하며 군의 장병에게는 바바리아주 정부에 충성을 다할 것을 특별 선서하도록 강제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반항일 뿐 아니라 군사적인 반란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육군의 총사령관 쾨트장군은 여하한 반항도 무력으로 분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때가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공화제를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공화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정국이 안정되는 날이면 히틀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더욱이 히틀러의 추종자들은 그에게 행동을 재촉했으며 이상 더 머뭇거린다는 것은 그들 추종자들을 잃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히틀러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뮌히 교외의 큰 비어올에서 열리는 회합에 라이호스베어 사령관 룩소장군과 경찰책임자 자이서를 포함한 유력한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며 그 자리에서 칼 총독이 연설할 것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히틀러는 무장한 돌격대를 비상소집하여 11월 8일 밤 회합이 진행되고 있는 비어홀을 포위하고는 삼천여 명 군중 앞에서 히틀러가 혁명을 선언했다. 그리고는 바바리아주의 실권자들인 삼거두를 권총으로 위협하여 그들을 가담토록 강요했다. 처음 그들은 히틀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루덴돌프 장군이 홀에 나타나면서 수그러졌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던 군중들도 환호성을 올렸다. 루덴돌프 장군은 전쟁 당시 도이취 육군을 지휘한 전쟁영웅으로서 근래에 와서는 극우익을 지지했으며 히틀러는 그의 권위를 이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알맞게 비어홀에 나타남으로서 히틀러는 곤경을 면했다. 감격한 히틀러는 협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바로 그때 나치의 돌격대가 정규군과 충돌했다는 보고가 왔다. 히틀러는 자기가 직접 수습기로 하고는 비어홀을 루덴돌프에게 맡기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것이 히틀러에게는 운명적인 실수였다. 칼과 자이서가 비어홀을 빠져나가 그들이 협력을 약속한 것은 총구의 위협을 받고 한 것이라 선언했으며 푸치의 소식에 접한 공화국정부는 육군에게 즉각 진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히틀러의 계획은 좌절되고 푸치는 실패했다. 그는 애당초부터 육군이나 경찰을 적으로, 싸울 의사는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육군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루덴돌프가 타개책을 내놓았다. 전시에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도이취군을 지휘하여 혁혁한 공훈을 세운 그가 나치의

돌격대를 이끌고 행군을 하면 왕년에 그의 부하였던 군이나 경찰이 감히 그에게 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의 편에 가담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히틀러도 이에 동의했다.

최초로 그들과 부딪친 경찰대는 게에링의 위협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들을 가로막은 중무장의 경찰대는 만만치 않았다. 어느 편에서 먼저 발사했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맹렬한 사격전이 벌어졌으며 3천 명의 나치당원은 제가꿈 길바닥에 엎드렸다. 일 분간 계속된 사격전이 끝났을 때는 열여섯 명의 나치당원과 세 명의 경찰이 죽고 상당수가 부상을 당했으며 게에링도 허벅지대에 총상을 입었다. 단 하나 루덴돌프장군만이 경찰의 사격을 뚫고 당당한 군인의 자세로 걸어갔다. 나치당원 중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으며 히틀러는 제일 먼저 도망쳤다. 그는 이를 만에 집에서 체포되었다.

며칠 내로 게에링과 헤스를 제외한 전 반란 두목들이 체포되었다. 나치의 푸치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히틀러의 정치적 생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략에 넘치는 히틀러는 그들의 반란죄를 재판하는 공판정을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유력한 신문의 보도진이 모여들었으며 히틀러는 열변을 토하면서 대변에 주목을 끌었다. 히틀러에게 동정적인 재판정은 공판 도중 그에게 얼마든지 떠들어 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재판이 끝났을 때 히틀러는 패배를 완전히 승리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반역자를 몰아내기 위해 싸운 무고한 자기네들을 재판에 회부한 바바리아주의 삼거두에게 죄가 있는 것이며 그들 삼거두는 틀림없이 파멸할 것이라는 인상을 대중에게 주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이름은 바바리아주 뿐 아니라 전세계에 알려졌다. 히틀러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법정은 우리를 국민과 조국을 위해 싸운 도이취인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천번이라도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유죄선고를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영원한 법정의 여신은 이 법정 of 검사의 논고와 이 법정 of 판결을 미소를 머금고 받아들여 갈기갈기 찢어 버릴 것입니다.”

결국 루덴돌프만이 무죄가 되고 히틀러는 5년간의 요새금고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6개월 후에는 보석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는 1924년 여름, 랫히강 언덕의 경치 좋은 요새에서 독방을 차지하고 귀빈 대우를 받으면서 뒷날 나치의 바이블이 된 책을 썼다.

— 「나의 투쟁(鬪爭)」

그 책이 바로 「나의 투쟁」이었다. 나치 치하에서 그 책을 책장에 꼽지 않고는 못 배겼다. 어느 도이취인은 그 책이 매우 읽기에 지루한 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1933년 이전에 좀 더 많은 만나치주의 독일인이나 서방의 정치가가 그것을 읽었던들 독일과 전세계가 겪은 그다지도 참담한 경험은 피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나의 투쟁」에는 제3제국과 새로운 질서의 청사진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히틀러의 기본이념은 20대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도이취 국가주의에 대한 정열로서 불탔으며 민주주의, 마스주의, 유태인을 증오했고 아리안민족, 특히 그중에서도 도이취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나의 투쟁」에는 첫째로 장차의 도이취 국가의 윤곽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로 문화, 교육, 예술, 결혼, 심지어는 매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20세기의 건전한 지성인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일런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것은 전 도이취인 속에 깊숙이 뿌리박은 것이었으며 도이취 역사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던 것이다. 특히 히틀러는 세계를 약육강식의 원리가 철저히 지배하는 곳으로 본 것이다.

1924년 12월 히틀러가 석방되었을 때는 나치당은 해산되어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당의 신문은 폐간되었으며 그 자신도 공중 앞에서의 연설이 금지되고 있었다.

공화정부는 화해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하고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었으며 도이취인은 전후 처음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 12월의 선거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득표가 30%나 늘었으며 한편 나치는 5월의 선거 시에 비해 득표가 반이나 줄어서 10만에 불과했다.

이제 세인의 눈에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득세했던 나치즘이 시들은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대부분의 도이취인과 외국인 관측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만은 낙심하지도 않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감옥에서 복역 중에 그는 과거의 잘잘못을 돌이켜봤다. 자기 자신과 도이취에 대한 새로운 사명감이 불타올랐던 것이며 모든 의구심은 사라졌다. 이러한 정신으로 「나의 투쟁」 제1권을 마치자 그는 즉시 제의 2권에 착수했다. 그가 만든 청사진이 다분히 광적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환영을 제시했다. 영광스러운 도이취의 운명을 지시했던 것이다. (제1부 끝)

◇ 무료치료(無料治料)

윌리엄 마피(현대미국의 의학자. 1892)는 1934년 악성빈혈증을 위한 식료를 고안하여 노벨상을 받았다. 마피는 개업하여 진찰실에서 버티고 있었으나 환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누가 도어를 노크했다. 문을 열고 보니 어떤 남자가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다.

“빨리 돌아가시오.”

하고 마피는 도어를 닫았다. 조금 지나자 이번엔 크게 노크질을 했다. 마피는 뿔이 둔쳐 문을 열고 밖에 서 있는 사내의 뺨을 후려갈겼다. 그랬더니 사내는 입을 꼭 다물었다. 이 사내가 그의 최초의 환자였다. 이 환자는 턱이 빠져 있었는데 마피가 후려갈기는 바람에 턱이 제자리에 박힌 셈이다. 그러나 그 사내는 마피에게 치료비를 물지 않고 돌아갔다. 당연한 일—.

◇ 결혼준비실험(結婚準備實驗)

에디슨은 옷차림에 지극히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친구가 말했다. “자네 아내는 뭘 하나? 그 차림이 좋지 않네.”

그러나 이 대발명가는 어깨를 추출할 뿐 말이 없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친구를 데리고 작업장을 구경시키는 동안 친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여 조수 책상 앞에 멋어선 그는 여 조수에게 물었다.

“당신 나와 결혼해 줄 수는 없겠소.”

여 조수는 농담으로 알구 놀라는 시늉을 하면서

“영광이에요.”

라고 말했다. 에디슨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이 소녀와의 약속을 지켰다. 며칠 후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몇 해 후에 그는 말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준비하지 않은 실험이었지. 그러나 모든 실험실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것은 완전히 성공한 셈이지.”

조종사 생활 십년(十年)의 변(辯)



공군소령 지 승 룡(池昇龍)

군생활을 하느라 하면 누구나 가끔 써내는 일이 있는 것이지만 일전 기본 조사를 써 내려가다가 조종생활 연한을 기입하기 위하여 오래간만에 정확한 조종생활 연한을 계산해 보니 9년 4개월이었다. 나는 내심 가벼운 놀라움을 느꼈다.

매일매일 타오는 비행기이기는 하나 막상 십년 가까이 탔다고 생각하니 오래간만에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0년이면 흔히 말하기를 강산이 변한다 하거나 처음 조종간을 쥐었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격세의 감이 없지 않다.

군인으로서의 개인에 큰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군자체에도 눈부실만한 발전이 있었으니 말이다.

6·25동란 직후 많은 젊은이들을 따라 군문을 두드리던 것이 바로 어제인 듯 아직도 생생하다. 이후 비행생활 9년을 통해 보건데 아직 일반 사회인들 보다 미숙하고 철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국군의 일원으로서 나아가서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대공전선의 최전선에서 방공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념만은 변함이 없다. 또한 여러 선배를 모시고 10년 가까운 비행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는 나대로도 어렵듯이나마 비행생활의 진수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길지도 않은 인생을 일반 사회에서처럼 탁하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미숙한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국토방어의 신성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기 신념 속에서 뜻있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남아답지 않을까?

1954년 2월은 나에게서 잊지 못할 달의 하나이다. 오랫동안의 소원이 이루어 사천에서의 L-type(당시는 L-16 또는 L-14)의 훈련이 시작되었고 10여 시간의 훈련비행 후 드디어 단독비행을 가졌던 달이었으니 말이다.

그날 아침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활주로에 2회의 이착륙 비행 후 교관이 후방석에서 내리더니 주익지주에다 붉은 천(포)을 감았다. 그리고 내게 와서 조용한 말로 혼자 올라가라고 했다. 올 시기가 온 것뿐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전연 자신이 있는 듯하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다. 신호종이 울렸다. 비행기는 뜬다. 공중에서 교관의 말대로 하나하나 속으로 마치 후방석에 교관이 앉아 있다는 기분으로 복창하면서 비행하니 교관이 달아준 붉은 천(포)이 바람에 나부껴 마치 격려해 주는 듯하였다.

1회의 이착륙이 겨우 5분 내외였지만 이때의 감격은 일생을 통해 못 잊을 것이다. 조종사라면 누구나 다 느꼈던 것이겠지만.

그 후 T-6를 거쳐 F-51의 단독비행을 했을 때에도 이제 전투기를 타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기는 하였지만 L-type 단독비행 때와 같은 기쁨은 없었다. 다만 혼성조종사가 되어 간다는데 대한 긍지와 비행생활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서 오는 달콤한 희망에 더욱 마음이 약동할 뿐이었다.

그 후 F-51이 Phase-out될 무렵까지 계속 이 2차대전의 왕자를 조종하다가 1957년 겨울에 미국에 Helicopter 훈련차 도미하였다. 교육 중 F-51을 뺏노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하면 미군장교들은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뺏느냐는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불쾌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회상에 보면 다분히 그 역전의 조종사들에게(특히 2차대전 참전한) 무명 외인 조종사에 대한 외교적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 고소(苦笑)를 금치 못한다. 그다지 내가 신통하게 보였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Helicopter 훈련시 비행기가 Zero Dirspeed로도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제일 신기한 일이었고 더구나 우스웠던 일은 H-13 탑승 시 같이 훈련받던 회랍 조종사와 같이 단독비행시(Helicopter는 학생끼리 타면 단독으로 간주함)이 조종사의 체중이 나의 꼭 2배인지라 이착륙할 때면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으나 그 원인을 발견하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소하였다. H-13을 거쳐 H-19의 본격적인 훈련도 끝나고 OJT를 받은 후 귀국하게 되어 처음으로 배속된 곳이 K기지였다. H-19 x臺로 출발한 구조대대의 발족은 그리 규모로 보아 대단한 것은 못되었지만 나는 여기서 4년 유여(有餘)의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보면 나는 지금까지의 비행생활의 반을 Helicopter에 바친셈이다.

1960년 겨울 바람이 한참 역세게 불고 있을 때 출동명령(Scramble order)이 내렸다. 뛰어 올라 지휘탑의 지시를 받으니 바로 K비행장 앞바다에 B-66 1대가 Ditching을 하였다는 것이다. 저물기 쉬운 겨울날은 벌써 석양이 지평선 가까이 내려가 있어 얼마 안가 암흑의 커튼이 내리게 될 판이었다. 초조한 심정으로 현장에 도착해보니 B-66 1대가 거의 침수되어 후미만 보이며 1인용 Lifeboat에 승무원들이 타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한 명씩 인양하고 3명을 인양 후 물어보니 승무원이 6명이라 한다. 다시금 현장에 달려가니 이미 비행기의 형태는 보이지도 않았다. 간신히 남은 2명을 구출해냈으나 어찌나 날이 춥던지 승무원들의 몸이 얼어붙어 낙하산에서 이탈시키는데 대단히 고심을 하였다.

마지막 1명을 찾기 위하여 암흑이 된 해상을 Search Light를 켜가면서 찾고 보니 Life boat에 매달려 있으므로 이를 구조하려고 구조사가 내려서 Pickup 하려고 전력을 다하였으나 결국은 구조사마저 영하의 해상에 수차 몸을 침수시키면서도 구조를 못하고 자칫하였으면 구조사마저 생명을 잃을 뻔하였던 일이 있었다. 결국은 이 마지막 탑승원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Shock로 인해 사망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탑승원 하나를 위하여 타기지의 Helicopter를 동원하여 철야 수색을 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비행해도 결국은 허사가 되었다. 그 후 1주일이 지나 해변에 표류되어 있음을 통고받아 가보니 부락민이 낙하산으로 깨끗이 싸서 안치하여 조화까지 옆에 갖다 놓은 것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미 조종사가 이국땅에 와서 이렇게 쓸쓸히 임무 수행 중 순직된 것을 보니 물론 전력을 다해서 악천후와 대결하여 진력하였음에도 구조하지 못하였음이 두고두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병원에 드러누운 B-66 승무원들이 자기네들이 보던 중 가장 아름답고 고마웠던 비행기였다고 이야기하였을 때는 일에 대한 보람보다도 마지막 한 명까지 생명을 구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이것이 나의 일생에 있어 처음 겪은 구조작업이었다. 그 후 수 차에 걸쳐 각종 악천후하의 야간구조도 실시하였고 많은 경험도 쌓기 시작하였다.

Helicopter는 보기보다는 힘드는 비행기이며 비행기가 예민하기는 마치 처녀의 마음과도 같다. 그래서 무척 다루기가 까다롭고 은근히 제한을 많이 받는다. 편리한 점은 비행장이 불필요하다는 것과 Jet와 Conventional type같이 기상 제한을 안 받으며 더구나 전천후비행을 염두에

둘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 비행기는 개량할 점이 많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Jet Engine을 사용한 고속 Helicopter의 출현도 보이고 있다.

구조작업에 있어서의 쓰라린 경험 그리고 지루한 작전대기 등이 있는가 하면 한편 Jet나 Conventional type에서 맛보기 힘든 시와 낭만도 있다.

따듯한 봄날 고도 1,000 feet 정도로 비행하면(Helicopter의 최선비행 고도는 700-1,000 feet 임으로 저공비행으로 오인하지 말기 바람)아지랑이가 낀 산골짜기에 핀 벚꽃이나 개나리 진달래의 아름다움이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고 더구나 포항에 대기작전을 위하여 산을 끼고 해상을 비행하여 Site에 내리는 기분이란 그대로의 멋도 적지는 않다.

하절기에는 나이 어린 해녀들이 일손을 멈추고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곤 하였다. 그러나 한번은 Hydraulic system의 고장으로 부득이 발에 불시착하여 다음 날 수리될 때까지 식사를 참외로 지냈던 일 그리고 잠자리가 없어 Helicopter 속에서 취침하였던 일등 괴로운 일도 있기는 하였지만 4년有余의 Helicopter와의 생활은 그야말로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구조임무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주게 주게 하였다.

2년 전 나는 훈령명령을 받아 원하던 F86을 타게 되었지만 구조대대 조종사들의 숨은 공로는 잊을 수는 없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오직 귀중한 생명구조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함을 체험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Jet를 타고 2년, 나에게서는 다른 동료들과 같이 아직 십 분의 경험은 없지만 역시 전투조종사로서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군에서 어떠한 위치에 근무하던 간에 성실하게 임무완수하는 것이 나로서의 신념이다.

지난날 귀중한 조종사의 생명구조에 힘썼던 자신이 최일선의 방공임무를 맡게 되었음에 더 한층 책임이 무겁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가끔 임무수행 후 귀환 시 군산상공을 통과할 때가 있다. 고고도임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속으로 Helicopter 조종사들이 수고한다고 외치고 싶다.

9년간의 조종사 생활로 뼈가 굳어져 갔음은 사실이나 비행이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 렇다고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비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다고 느껴진다.

한국동란 이후 공군을 지망한 젊은 세대는 멸공정신 신념하에 군문을 두드리고 창공을 지켜보겠다는 한 가닥 각오가 뚜렷하였음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다. 더구나 국가의 간성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자유 우방의 좋은 벗이 되어야 할 일선전투 조종사로서의 긍지와 신념이 나의 앞날의 조종 생활의 지침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적어도 굳은 신념하에 오직 한 가지 일에 칠전팔기하는 끈기로서 전투 조종사다운 생활이념에 입각한 자신의 앞으로 전개될 인생에 모든 정력을 경주한다면 여기에 청년다운 멋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런지.

<끝>



정비사(整備士) 생활(生活)의 10년(十年)



공군준위 (11전대) 이 수(李壽)

폭음도 우렁차게 흰 구름 뚫고 적진을 향하여 출격하는 전투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비로소 이마의 땀을 씻는다. 조종사 못지않게 사랑하는 나의 애기(愛機)가 원수의 아성을 부수고 커다란 전공을 세워 무사히 귀환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면서…….

항공기 정비사 생활 10년! 나의 온갖 희노애락이 우리 공군의 역사의 구석구석에 얽혀져 있는 것이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쓰라린 6·25 전란 시에 수동으로 작동하던 L형 항공기에 폭탄을 싣고 적의 탱크를 부수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에 되살아 온다. 그 후 건국기가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였고 뒤이어 F51 전투기가 활약하게 된 것이다. 전선에서는 UN 군과 더불어 국군이 진격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 나는 F51의 2등기수의 한사람으로 흑한과 흑서를 물리치고 오전 4시 혹은 5시의 출격에도 기수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기수가 된 지 1년 만에 항상 사랑하고 어루만져주던 애기는 귀중한 한 사람의 조종사의 생명과 함께 적진에서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다. 4대의 편대 중에서 3대만이 아군기지 상공에 돌아와 폭음을 내어 뿜을 때 나는 그중에 나의 애기가 있기를 빌고 있었다. 그러나 애기는 기어코 착륙하지를 않았고 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야 했다. 기장과 기수들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또 울었던 것이다. 태양은 대관령 저 멀리 저물어 가고 어두운 밤과 함께 무서운 찬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우리들의 심정을 춘치라도 알아 줄 우리는 없었다. 우리들은 비통한 가슴을 안은 채로 침침한 내무반 한구석에 몸을 던지며 지난날 나의 애기에

대한 정비가 불충분하거나 않았던가 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보았다. 그때 내무반 문이 열리며 전대장님이 위스키 한 병을 들고 들어오시면서 “기장 기수 다들 어디로 갔어?”하고 찾아 주시는 것이었다. “자네들 기분 나쁘게 생각 말고 이리 와서 한 잔 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준비하게”하시었다. 그러나 소등시간 후에도 침대에 누워 몇 시간 전 L 소위의 활발하고 씩씩하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날부터 나는 또 새로운 항공기와 조종사를 맞이하여 정비를 하였고 밤과 낮을 뒤바꾸고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어 어느덧 100회 출격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고 어루만져주던 애기가 100회의 출격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은 조종사에 못지않게 큰 것이었다. 지방유지들과 여학생들이 기지를 방문하여 꽃다발을 주고 환영해 줄 때도 있었다. 밤이면 내일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파티가 열렸고 조종사와 정비사는 지난날의 파란많은 일들을 다시 회상해 보는 것이었다. 조종사와 정비사는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것이다.

애기와 함께 총탄을 안고 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조종사의 생명이 바로 자신의 생명처럼 느껴지고 출격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는 환희에 넘쳤다. 그들은 우리에게 적의 상황과 내가 실어주고 달아준 총탄과 폭탄이 목표를 명중시키던 일들을 통쾌하게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항공기가 공중을 비행할 때는 항상 인적요소와 정비요소가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정비사는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현재 정비하고 있는 항공기의 피스 하나 너트 하나라도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계는 예고하지 않는다. 사고는 항상 우리들의 부주의를 기다리고 우리들의 주변에 돌고 있는 것이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귀중한 인명의 피해와 막대한 국가재산의 손실을 가져 오는 것이다.

과거의 정비는 기술 도서가 부족하여 경험과 맨손으로 일하여 오다시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들 정비분야에 충분한 기술 도서가 있으므로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훌륭한 정비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정비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 향상은 곧 공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등 기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나의 정비사 생활 10년은 너무도 홀망(忽忙) 속에 흘러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가지가지

(P 121로 계속)

수필(隨筆)

가을 하늘과 같이

윤오영
<수필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긴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 호기는 나의 애를 끊나니」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애뜻하며 아름다운 가락이나. 그의 마음이 호수같이 맑고 가을 하늘같이 높지 않다면 어디서 그런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으랴. 이 시조 한 수에서 넉넉히 충무공(이순신)의 인품을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아니한가. 만일 이 시조에서 수루니 큰 칼이니 하는 말만 안 보인다면 아무도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의 시로는 생

각되지 아니 할 것이다. 어느 다정다감한 시인이나 가을밤에 입을 그리는 외로운 나그네가 여인의 애틁한 노래로도 들릴 것이다. 비장하고 용감 쾌활한 노래는 옛날 무장들의 전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 일사보국(一死報國)의 단심(丹心)의 노래, 위국충절(爲國忠節)의 충의의 노래, 남야 대장부의 호탕 장쾌한 노래는 가장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슬프고 애틁한 호느끼는 가락은 결코 군인다운 자세가 아니요, 아녀자의 단장성이나 애상과 무상에 찬 소위 시가들의 노래는 족히 취할 것이 못 된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애절한 속에 추상같은 느낌이 있고, 청아한 리듬 속에 장쾌한 기상이 떠오르고, 우국의 지성이 충만하되 맑게 가라앉아 한점의 티가 없어 이미 속진을 벗어났다. 고요하기 호수 같고 맑고 하염없이 멀어, 끝없이 깊은 가을 하늘과 같다. 이것은 일호의 사념이 없고 추월같이 밝은 충의의 정신만이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심정이요, 우국 우민의 도타운 정신만이 가능한 것이다. 세속적인 공명심과 자공과 상대적인 불만 울분 비탄을 떠난 위대한 철인만이 가능한 것이다. 외로운 지도자의 그윽한 심회는 오직 순결한 정서와 청아한 리듬으로만 나타나 있다. 이 경지는 전시에 있어서나 평화시에 있어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나 님을 사모하는 여인이나 다정다감한 시인이나, 우국강개하는 지사나 수루에 앉은 전사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인간의 밑바닥에 깔린 생의 흐름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서촉에서 달밤에 호적 소리를 듣고 읊은 시나 우리 충무공이 한산도서 전쟁을 하며 읊은 이 노래나 다름을 볼 수 없다. 두보는 일생을 불우하게 지낸 애국시인으로 국가에 전공을 세운 바 없으나 천고 시성으로 불려왔다. 충무공은 강직한 왜적을 물리치고 국구 민족을 최후 간두에서 건지고 비장하게 전사한 구국의 성장이다. 그러나 문인 아닌 그의 이 한편이 족히 성스러운 그의 시심 시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공훈과 업적을 떠나서 다 시금 그의 맑고 깊은 인격을 사모하게 된다.

거북선을 발명한 그의 재주를 칭찬하려는가?

발명의 천재는 에디슨이 있다. 수전에 능한 그의 전술을 자랑하려는가? 해전에는 넬슨이 있다. 전략가로서의 그의 전술을 자랑하려는가? 전략에는 손무자(孫武子)가 있다. 그의 무쌍한 용맹을 자랑하려는가? 용맹에는 조자룡(趙子龍)이 있다. 그의 추상같은 의리를 자랑하려는가? 의장에는 관운장(關雲長)이 있다. 그의 정략과 예견과 부하에 대한 인자와 통솔력을 자랑할 것인가. 관중(管仲)도 있고 제갈량(諸葛亮)도 있고, 오기(吳起)도 부하는 사랑했다. 역사상에 명장의 실기는 너무나 많아 반드시 충무공만이 장할 수 없다. 강적을 물리치고 국가 민족을 구한 공적을 논한다면 일찍이 수병 백만을 물리친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있었고 국위를 떨친 성공적인 업적으로 보면 충무공의 힘은 오히려 대단한 바 아니다. 그 충성과 절개를 자랑한다면 정몽주(鄭夢周)를 먼저 들 것이요 전시는 오히려 슬픈 최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충무공에게만 절대 최고의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까. 한나라 역사를 보면 제갈승상이 정의의 군사를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위나라 역사를 보면 적장 제갈량이 침구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구주 충무공의 전사도 왜적으로 볼 때는 완강한 적장을 죽인 승리인 동시에 충무공보다는 풍신수길(豐臣秀吉)이나 가등청정(加藤清正)이 더 위대한 지도 모른다. 그러면 진실로 충무공의 높은 점은 어디 있는 것일까.

높은 식견과 뛰어난 재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이지 못하고 큰 공적을 세우고도 모략과 음해를 당할 때 울분과 불평이 없기란 어려운 것이다. 무능과 부패한 무리가 조정에 충만하여 권세를 다투기에 영일(寧日)이 없고 탐관오리가 강압과 약탈을 자행하여 민생을 괴롭히고 충직 유능한 인물이 멸시와 박해를 받으며 국가를 그릇 친 무리가 도사리고 앉아 사선에서 진중보국한 공을 시기하고 억울한 죄명과 참소를 받았을 때 그 억울하고 통분한 심사란 불평을 참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초월하고 오직 나라를 근심하는 지성과 민족애에 불타는 사랑과 구국의 충의심만에 차 있는 고요하고 비장한 심경, 몸과 마음을 이미 조국에 바치고 역사의 줄기와 내 조국의 명맥을 외손에 버티고 나서는 성자(聖者)에게는, 원망과 증오와 분노 같은 것은 이미 마음의 티요, 이 티는 한 점도 머문 것이 없다. 항차 개인의 공명이나 명예나 승리의 대가야 추호인들 개의하랴.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소이다. 조정은 그들을 박해했고 민족은 그를 멸시했고, 간소배는 그를 음해했고, 동료는 그를 시기했고, 상관은 그를 억울하게 탄압했다. 그의 전략은 중도에 폐기되었고, 그의 공적은 죄를 받았고 그의 직위는 박탈되었고 중상과 모략은 그를 괴롭히었고, 형틀에서 모진 매를 맞아야 했고, 이내 어머니의 장사를 끝내기도 전에 적군이 대침하자 다시 출전을 명령받아 피눈물 나는 슬픔을 안은 채 백의중군의 길을 떠났던 그의 심회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심혈모야 준비하고 시설한 거북선을 위시한 전선과 무기와 생사를 같이하던 군대는 천창 만창으로 결단 나 버리고 모든 규모와 균율은 잔패에 극해 있는 그 스산한 현장,

적군은 바다를 덮어 호수 같이 밀려오고, 탄환은 비 오듯 하는데, 고군무원, 치욕의 모욕을 받아가며, 사졸을 격려하고, 충의를 빚내어 용감하게 선두에 서서 적군을 물리치고 기지와 충혈로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두고, 쓰러져가는 국운을 다시 돌려 잡은 후, 최후의 전사를 각오한 그가 심중에 만사를 깨닫고 개연히 우국의 일생을 부르짖었을 뿐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성장(聖將)의 기백이다. 그 심중을 누가 감히 엿볼 수 있으랴. 달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일성 호가에 부치는 노래가 이렇게 청아하고 맑아 한 점의 티끌을 볼 수 없는 것이 곧 운상(雲上)의 기품(氣品)이 아닐 수 없다. 충무공의 하늘같이 높은 품격을 여기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전전에서 분투하는 용장이거나, 비장한 산화의 장면에서만 아니라, 어느 때 어디서나, 위대한 인간상이 보여 주는 거룩한 교훈이다. 어느 때 어디서나, 가을 하늘과 같이 높고 밝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끝>

꽃나무와 국민주택(國民住宅)

박현서(朴賢緒)
(조선일보 문화부차장)

날이 따뜻해지자 새로 마련된 국민주택 근처엔 꽃나무 장수들이 지곶집을 지고 한창 들락거립니다. 향나무, 진나무, 개나리, 진달래, 라일락, 목련, 수국, 포도 등 한그루 한그루씩 소담스럽게 밑둥을 짚으며 싸매 가지고 팔러 다니죠. 생활의 미화가 중시되는 현대의 삶이라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어설픈 둘째라 주머니 생각은 둘째치고 주부들의 관심은 꽃나무 장수들에게 몽땅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 나무 얼마예요?”

“이것은 얼마구요?”

옆집 희연네, 뒷집 완기네, 길 건너 재훈네, 모두가 화창한 대낮의 햇살을 받으며, 넓직한 뜰앞 길가엔 온통 아낙네들의 흥정하는 소리로 맑습니다.

“이것은 5백 원이고, 저것은 3백 원, 아주머니 이것 참 좋은 벗나무인데 아직 어리니 백 원만 줘요.”

어린 초동의 송글송글한 말씨가 아낙네들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일요일 이런 때면 나도 한뭉 끼게 마련이죠.

“애 그것 50원만 해라 어디 꽃 장수 받을 수 있다고 하던. 사 놓고 심을 때 보면 밑뿌리 없는 게 태반이라고 하니 너한테 시험 삼아 사보자꾸나. 그럼 또 다음엔 민고 많이 살 수 있게 말야.”

나는 되바라지게 흥정을 합니다. 이 말에 꽃나무 장수 셋의 눈은 동시에 맞부딪혔다. 급세 꽃나무 집으로 가죠. 그리곤 다시 한번 저희끼리 눈이 마주치곤 이내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주머니 어리긴 해도 키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남나요? 그냥 1백 원만 줘요.”

“그럼 그만뒀라 아직 울타리도 안 했으니 뭐, 꼭 지금 살건 아니냐. 싸면 싸려니 했지.”

말이 떨어지자 나의 관심은 싸늘해지고 요즘 부쩍 자란 강아지한테로 쏠립니다.

“미미야! 미미야!”

강아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릅니다. 한창 귀여운 때죠. 그 앙직스러운 꼬리를 사랑살랑 흔들며 치마폭으로 자꾸 기어오릅니다. 내게로 온 지 벌써 석 달이 되었군요. 그동안 이름도 없이 목에 달아준 방울만 달랑거리며 그저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던 것을 미미라고 이름을 붙여 줬죠. 꽃치니 작곡의 오페라 라보엠에서 나의 이름은 미미를 따가지고 강아지한테 선물한 것입니다. 강아지가 어찌도 영악하고 눈치 빠르고 귀여운지 꼭 알상한 계집아이 같습니다. 암강아지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예쁜 이름을 찾다가 뭐 너절하고 속된 것 보다는 좋아하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따 붙였습니다.

이렇게 첫머리로 흥정을 걸던 내가 썩 몸을 빼는 듯하자 다른 아낙네들도 슬슬 자기집으로 사라지고 주위엔 강아지를 부르는 내 목소리만이 퍼질 뿐입니다.

“그러면 아주머니—”하고 길게 부르는 초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음에 다른 나무도 꼭 사주시죠? 그럼 50원만 냅쇼.”

앞날을 약속받는 그것으로 초동은 미졌다는 마음의 표시를 쓱싹시킬 셈인가 봅니다. 그리고 나뭇짐은 내려지구요.

초동은 가고 짚머더길 푸는 내 손에는 흙 한뼉이 없이 밀뿌리가 잘린 나뭇(裸木)만이 남습니다. 그 큰 밀둥의 짚뭉치는 모두 시퍼런 이끼로 뭉쳐져 있습니다.

50원은 이끼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다른 꽃나무 장수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건 뱃나무가 아니고 오리나무입니다.”

또 얼마 후 나타난 다른 꽃나무 장수는

“이건 아주머니 나도밤나무를 사셨군요!”

꽃나무 묘목에 무식한 내가 우선 잘못된 건 하지만 한가지 나무가 열두 가지로 변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따스한 한낮의 햇살과 반대로 싸늘한 바람이 이는 것 같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 따뜻한 인정이, 곧바른 마음이 그리워지는 한낮입니다. 메마른 세상일수록 서로의 오가는 정이 그림군요. 따뜻하고 밝은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며 웃고 속임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느 때쯤이나 올는지 머릿속이 어수선한 한낮입니다.

×

×

꽃나무 장수들은 매일, 아침나절 이른 새벽부터 지갯짐을 지고 들이닥칩니다. 북한산을 넘어 저 머언 자하문 밖에서도 왔다 하고, 또는 양주, 장흥에서도 왔다고들 합니다. 20리 길이 훨씬 넘는다니요. 었어지면 코 닿을 데도 전차나 버스를 타고 주머닛돈이라도 넉넉하면 새나라 택시로 기분을 내야 하는 도시인들에겐 생각기 어려운 새벽길의 행보입니다. 장흥이란 곳에선 학교가 없어 의정부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20여 리 길을 매일같이 왕복하는 학생이 술하게 많다고 묻지도 않는 말을 늘어놓고 가는 꽃나무 장수도 있습니다.

봄은 무르익고 깊어감에 따라 꽃나무의 종류도 가짓수가 차츰 늘어갑니다. 옥매화, 황매화, 새파란 싹이 돋은 그라지오라스 창포, 백합, 홍초, 선인장 등등—

새로 모인 이곳 국민주택가의 황량한 황토땅 소문은 서울 번두리 농군들의 구미를 부쩍 돋구게 하나 봅니다. 돈벌이에 군침이 도는 셈이죠. 허구헌날 지고 오는 그 많은 화목(花木)들이 모두 그들 집에서 오늘의 장사를 위하여 정성껏 가꾸고 길러 온 것인지? 그들이 도시인을 위한 공급처를 생각해서 온실 마련을 하고 넓은 뜰을 가꾸며 화목을 기를 만큼 살림의 여유나 기업경영이 됐다면, 그만큼 농촌이 부유할테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산에서 자라는 화목들을 패다가 팔려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자는 생각— 참으로 세상은 영악스러워졌습니다. 아니 극성스러워졌습니다. 하기가 쓸데없는 생각이죠. 나야 팔려온 것을 사서 심고, 심으면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잘 가꾸기만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왜 지꾸 마음은 봄날을 등지고 가라앉아만 갑니다. 황토 위에 지은 국민주택을 배경으로 타박한 황토같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산화철이 들어서 붉다는 황토, 이렇게 작은 꽃나무라도 자꾸 패어만 가면 정말 지금보다도 더한 황토같은 산이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청명이고, 한식, 조고(祖考)와 선고(先考)들이 묻힌 선산을 기를 지게 못 해 놓은 자손됨의 부끄러움을 되느끼며, 꽃나무 장수들과의 흥이 퇴색해 가는 것 같은 봄날의 한낮입니다.

1963, 4, 3

비누와 인생

김 자 림(金茲林)
(수필가)

요새는 결혼식을 끝낸 후 피로연 대신 기념품을 한 상자씩 안겨 보내곤 한다. 얼마 전 친지의 결혼식에서 예쁘게 포장된 비누 상자를 받아 왔다.

가지각색 모양의 비누가 세 개 들어있었다. 흡사 학(鶴) 모양의 비누에서는 향긋한 바닷바람이 설영킨 솔냄새가 나는가 하면, 과일같이 둥근 분홍빛 비누에서는 달짝지근한 오렌지 냄새가 식욕까지 돋우는 듯했고, 유리알 같이 파아란 비누에서는 향료가 좀 지나쳐서 그런지 냄새를 특징 지을 수가, 없게서 리 매우 자극적이다.

어쨌든 재미있는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애들도 좋아라 이것저것 주물어 보는 품이 한꺼번에 다 써 보고 싶은 모양이다. 나 역시 그렇다. 어느 것을 먼저 쓸 것인가? 학? 과일? 그렇잖으면 유리알? 그러다 애들 쪽에서 먼저 결론을 내렸다. 학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애들다운 결론이었다. 새를 좋아하는 애들이라 학의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가 보다.

다음 날 아침 그렇게 게으름만 피우던 애들이 저마다 먼저 세수를 하겠다고 승강들이다.

“거 참, 잘 됐구나!”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애들은 한 번 칠할 것도 두 번 세 번 끝녀석은 비누를 만지작거리며 신기한 듯 세수대야 앞에서 떠나려 들지를 않는다.

학의 몸둥이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이 암만해도 신기한 모양이다.

그날부터 애들은 유달리 부지런해졌다. 학교서 돌아오기만 하면 곧 윗도리를 벗어 던지고 세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전보다 훨씬 멀끔해지는 것 같다. 거참 기특한 일도 다 있지. 비누모양 하나로 이렇게까지 달라지다니…… 진작 그런 비누를 사왔으면 했다. 그런데 그 비누가 애들 뿐만이 아니라 꿈(우리 집 개이름)에게 까지도 인기가 있었던 모양인지 어느 날 개가 그 비누를 덥석 삼켜 버렸다.

그놈의 개, 때 묻은 몸통이 속을 씻어 내고 싶은 모양인가?

모두 한 바탕 웃었다.

☆

☆

비누 하면 생각 나는 일이 있다.

십년도 더 된다. 스무나무 살 때 어머니와 같이 동생을 면회하러 거제도(巨濟島)엘 갔었다. 그때 동생은 육군 중위였고 조달감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거제도 하면 부산서 배를 타고 꽤 오래 가야만 했다.

그 지루하던 항로는 지금 생각해도 염증이 난다.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라 배도 몹시 붐볐고 게다가 기름을 심고 다니는 지 도처에 기름이었다. 그런 악조건 속에 몇 시간이나 갇혀 있어야 했던 나에게는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도 너불거리는 갈매기 떼도 눈에 성차지 않았다.

우리가 배에서 내렸을 때는 손과 옷에 온통 기름투성이였다.

비누를 꺼내어 바닷물에 손을 씻어야만 했다. 비누가 통 피지를 앓는다.

비누가 맥을 못 춘다. 참 답답한 노릇도 다 있지.

바닷물이라 그럴 수밖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려는데 누가 눈앞에 누우런 비누를 쭉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군인이었다.

“이 비누를 써 보세요. 바닷물에도 잘 풀릴 겁니다. 해수용 비누니까요.”

누우런 그 비누는 바닷물에도 거품이 잘 일었다. 군용 비누였다.

미끈미끈하던 기름이 쭉 벗겨졌다.

나는 손바닥이 간지럽도록 비누를 굴러 가며 닦고 또 닦았다.

흰 손바닥이 푸른 물속에서 희죽 웃으며 거품을 뿜어 올리는 듯했다.

저 멀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품은 더러운 때와 시름을 한꺼번에 싣고 떠나가는 것이었다.

이 조그만 화학작용으로 말미암아 희뵈어진 내 손! 나는 신기하듯 손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그 군인과 더불어 방축길로 넘어갔다. 방향이 같고 해서 동행했다.

기나긴 방축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었다.

사면 때 빨뿔이 헤쳐 가족의 거처를 알 길 없다면 그 군인의 표정은 서글펐다. 이름 모를 그 군인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빌려주었던 그 비누 냄새를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투명했던 그 손바닥에 묻었던 그 냄새를, 세상 모르던 그 손바닥에 묻었던……

그러나 나는 지금 인생의 중턱에 서서 때에 찼어 가는 여윈 내 손바닥을 본다. 연륜으로 그어진 자국에 찼든 때를 벗겨 버릴 그 어떤 비누는 없을까?

그 푹푹하고 때 묻었던 시절이 새삼 그리워진다.

항공정찰(航空偵察)의 중요성(重要性)에 대(對)하여

정재관

〈공군소위:32정찰대대〉

큐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



1. 서언

항공정찰이라 함은 공중에서 지상 혹은 수상의 제사정을 관측함을 말한다. 항공정찰에는 육안으로 정찰하는 것과 사진으로 정찰하는 것과 사진으로 정찰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으나 보통 항공정찰이라 함은 사진정찰(Air Photo Reconnaissance)을 의미한다. 금일에 있어 항공정찰이 이러한 의미로 통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기구(Aerial Balloon)를 이용해서 관측하던 원시적인 방법을 지나, 오늘날의 급속한 항공기의 발달과 고성능 사진기의 발달로 항공사진에 의한 적정수집이라는 현대전의 새 국면이 전개된 때문이라 하겠다.

항공정찰이 비록 원시적이긴 하나 최초로 시행된 것은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남북전쟁시 기구를 이용한 것이긴 하지만 보스턴 시가를 촬영한 것이 사진에 의한 정찰이란 점에 정쟁사상 획기적인 사실인 것이다.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자 항공사진정찰은 한층 더 활기를 띠었고, 1905년에는 독일에서 사각(斜角)사진(Oblique Photo)을 촬영하고, 1911년에는 프랑스에서 수직사진(VERTICAL Photo)을 촬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참전 각국에서 적 점령지역을 촬영하여 이를 작전에 이용함으로써 항공사진촬영과 판독(Photo Interpretation)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군의 정보의 60%가 항공정찰에 의했으며, 특히 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연합군 정보의 90%가

이 항공정찰에 의했다고 하니, 항공정찰이 연합군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년간의 한국동란 중에는 국연군(國聯軍)의 절대적인 제공권 장악하에 매일 평균 4만 매의 항공사진을 찍으므로써 적 지역은 물론 아군지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량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판독함으로써 작전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2. 중요성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 나치 독일의 참모총장이었던 오베르 폰 흐릿취(Ober Von Fritsch) 장군은 어느 나라든지 항공사진정보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가 차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말에 태평양지역에서 수륙양면으로 작전을 총지휘했던 터너(R. K. Turner) 제독은 항공사진정찰과 항공사진해석은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천의 하나였다고 항공정찰의 중요성을 술회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항공정찰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된 바로서 새삼스럽게 여기서 논함은 취사(贅辭)에 불외한 것이나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음에 약술한다.

1. 항공사진의 이용가치

a. 일반적 이용가치

적의 병력, 장비, 보급품의 실제적 위치를 결정하고, 포로나 적문서 등 다른 첩보출처나 수집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첩보의 정확성을 검토, 입증하며 적지역 내의 방송국, 우체국 등의 중요한 방첩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군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작전의 효과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아군이 실시한 위장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b. 전투부대에서의 이용가치

적의 비행장, 미사일기지, 전자통신시설, 항만 등 군사시설과 군수공장, 산업시설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조사하여 공격목표를 선정하고, 보병부대에서는 방어계획, 공격진로를 선정하는데 항공사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포병부대에서는 포격목표를 선정하고, 사격목표도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며, 공병부대에서는 막은 지도를 수정하여 새 지도를 제작하며, 도로교량에 관한 기술용인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도하부대를 위한 도하지점을 선정하는데 이용된다.

그리고 해군에 있어서는 해안방어시설을 탐지할 수 있고, 상륙지점을 선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타첩보원천과의 비교

a. 지상정찰과의 비교

지상정찰은 임무수행에 많은 방해를 받으며 정찰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찰결과가 부정확한데 반하여 항공사진은 정찰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한 시간 내에 필요한 첩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다.

b. 항공 육안과의 비교

육안정찰은 항공기의 속도에 인하여 관측한 결과가 부정확하며 일정한 지역의 적 군사활동의 기록은 곤란하며 위장한

적 군사시설의 발견이 곤란하다. 이에 반하여 사진은 기술적인 해석에 의하여 비교적 정확한 첩보를 획득할 수 있고, 위장한 적 군사시설의 발견도 가능하다.

c. 포로신문, 적문서와의 비교

포로신문은 정확성이 희박하며, 지역이 국한되어 있으며 적문서라 할지라도 아군을 기만하기 위한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사진은 정확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첩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적 병력, 장비, 보급품의 위치는 알 수 있으나 단대호(團隊號)를 알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d. 지도와의 비교

지도상에는 물체의 크기와 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도상에 나타나는 지표면의 특징은 지도를 제작한 지 수년이 지나면 현실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사진은 물체의 크기와 형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사진은 최신의 것이므로 최신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단, 지도상에는 등고선이 나타나 있어 정확한 고도를 알 수 있으나 사진상으로는 고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3. 고도의 기술화

a. 천연색 사진(Colored Photo)

이 사진은 목적물의 색깔을 모르고는 식별할 수 없을 때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특히 토양의 질, 식물, 암석, 지붕의 재료, 또한 피해평가(Damage Assessment)에 있어서 공업사재의 축적 등을 식별하는데 쓰인다. 또한 천연색 사진은 수분투명성이 좋으므로 해안상태를 조사할 때 수중물체와 깊이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b. 적외선사진(Infrared Photo)

적외선 감광판(感光板)이 장치된 특수사진기로써 촬영한 사진이며, 주로 위장탐지에 쓰인다. 적외선 반사물이 살아있는 식물체는 연한 색조로 나타나지만 비적외선반사물인 물, 인공물 등은 어두운 색조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식물체를 구별하며, 비적외선 반사물인 연색(緣色), 페인트를 칠한 차량이나 절단된 식물을 사용한 위장을 탐지할 수 있다.

c. 레이더 사진(Radar Photo)

전파를 이용하여 촬영되는 사진으로써 적의 고속도로 이동하는 목표를 탐지하는데 사용된다.

d. 야간사진(Night Photo)

적의 야간활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약 5억만 촉광을 발할 수 있는 동시형광탄(Synchronized Flash Bomb)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3. 결어

항공사진의 임무수행은 RF조종사가 단지 목표지역을 찍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항공기에도 고성능의 카메라를 장착해야 하고, 찍어온 필름을 현상 인화하기 위한 사진제작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인화된 사진을 판독하여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사진을 제작하는 작업이나 제작된 사진에서 유용한 첩보를 뽑아내는, 즉 판독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한다. 사진을 제작하는 기술은 기물을 조작성하는 방법만

습득하기만 한다면 사진은 판독하는데 별지장이 없이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 기술에는 한계성이 있지만 특히 사진판독 기술은 누구든지 완전무결하게 판독할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는 소위 전문을 요하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그 기술은 무한성이다.

예를 들면 적의 산업시설을 판독한다고 하자. 대개의 경우 스케일 만분의 일 정도의 사진상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건물들이 도대체 외경상 학교도 아니요 무슨 공공시설도 아니어서 필경 무슨 산업시설에 틀림없다고 상도될 때 그것이 무슨 공장인가를 알아내어야 한다. 무슨 공장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방직공장, 비료공장, 제련소, 제지공장, 화약공장, 시멘트공장, 등등 공장이란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그 특징과 구조, 생산과정을 샅샅이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단지 산업시설에 한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이 판독하는데는 다방면에 걸쳐 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 지식과 기술은 한층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항공정찰 특히 항공사진판독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약술하였는데 막대한 정보의 원천을 항공정찰에 의존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이 글이 항공정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일반장병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PIII에서>

의 파란곡절들이 이제는 유쾌한 추억으로 되살아 오고 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나의 지금까지의 피땀 어린 정비작업이 오늘날의 공군을 이루게 한데에 적으나마 힘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다.

오늘도 나의 손으로 점검된 항공기가 우렁찬 폭음을 남기고 활주로를 박차고 푸른 하늘로 솟아오르는 제트 편대의 용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조국 방위의 신성한 대열에 참가하고 있는 정비사의 긍지를 새롭게 가져본다.

◇바꿔치기

다음은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내가 아직 소년 때 어느날 우리집 앞 길목에 메론차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수레에 가까이 가 보고 파졌다. 말하자면 나는 메론을 한 개 훔쳐먹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한 개 집어서 이쪽 구석에서 입에 넣고는 곧 후회했다. 그래서 나는 메론을 도로 꺼내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지. 그리고는 아주 익은 놈을 훔쳐 왔거든.—

◇화단의 문

에디슨은 멋있는 장미를 심은 화단의 입구에 회전판자문을 달았다. 이 화단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판자문을 여는데 상당한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판자문은 왜 이렇게 달았소?”

하고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에디슨은 웃으며

“이 회전판자문처럼 어처구니없는 문도 없을 것이다. 바보는 누구이나 하던 내가 아니고 화단에 호기심을 가지는 자네들이네. 이 판자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화단에 35리터의 물을 주게끔 장치되어 있다네. 그래서 이 판자문을 열기에 힘이 들지.”

라고 말했다.

<공트>

양말 짝

김경태(金慶泰)

<공군 중위>



방정맞은 기상나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기상!”

마치 그 심술궂은 나팔통에게나 하듯이 이불을 걷어차고 고품을 지르면서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곳 항공병학교에서는 시간도 극성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그 지루한 일과 중에는 곰뱀이 걸음처럼 느리게 가면서 어찌 이 밤에는 있는 부지런을 다 피면서 줄달음쳐 도망가느나 말입니다.

동료, 펴고 자던 매트리스를 푹푹 말고 있는 동료, 거꾸로 꿰어진 구두끈을 다시 푸는 동료, 맨머리로 뛰어나가다 모자를 가지러 뛰어 들어오는 동료들로 내무반은 온통 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집합 상태가 나쁘다고 어찌 받은 기압의 뒷맛이 아직도 무릎에 생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돈판에 개어 놓은 작업복을 챙겨 입고 나서 양말을 찾으니 한 짝이 어느 구석에 박혔는지 도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밤에 불침번을 서고 돌아와 이불 속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양말짝이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남의 똥끝이 타도록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무반 안에는 미도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느린뱀이 심 후보생만이 구두끈을 매고 있을 뿐 벌써 뛰어나간 동료들은 정열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 이놈의 양말짝이 근 일주일을 넘어도 빨아 줄 염도 하지 않는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요런 기회를 틈타 주인을 실컷 골탕을 먹일 심보임이 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한쪽 양말은 벗은 채 구두를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머리를 꼭 숙이고 자리로 들어서려는데

“어이! 왜 인제 나왔!”

매 눈을 하고 쏘아 보던 주변 사관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구보로 그의 앞에 닦아 서자 경례를 세차게 붙이고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필>

소녀(少女)

도종열
<병장>

꽃이 피어야 봄이 오는 마을. 나는 어떤 소녀와 같이 자랐다. 마을 깊숙이 대나무가 우거지고 그 앞으로 용천이란 여울이 흐른다. 자동차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그나마 부엉이 울음이 질을 것 같은 마을—이것이 우리마을이다. 해마다 꽃이 피면 봄이 오고 눈보라와 함께 겨울이 오는 이 마을에서 나는 그 소녀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게 이야길 주고받으며 다닌 것은 아니다. 한결같이 소녀는 내 뒤에서 걸어왔고 언제나 나는 소녀를 앞질러 걸어갔을 뿐이다. 소녀는 이따금씩 나와 시선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기도 했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도 했다. 그저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녀는 여학교에 들게 되었고 나도 중학생이 되었다. 그로부터 철따라 서리가 덮이우는 당고개 넘어온 스산한 바람이 수없이 남나들었고 부엉이가 살았다는 칩닥바위에 황금빛 아침해가 아롱지면서 소녀는 한결 예뻐만 갔다. 소녀는 가끔 우리 집에 왔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잠시 내 누이와 옷어대다 가곤 했다. 살을 에는 듯한 서리 바람에도 까만 세일러복의 소녀는 한결같이 통학을 했다. 내가 2학년이 되던 해 봄 어느 날 소녀가 우리집에 왔다. 그날 내 누이는 밖에 나가고 나 혼자 국어 숙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무엇을 쓰고 있었다. 누이만이 있는 줄 알고 문을 데끼 열어 제낀 소녀는 놀람에서 오는 순간적 실성에서 멍하니 나를 치어다 보다가는 점점 고개를 수그렸고 바알간 노을이 얼굴 위를 덮었다. 어쩔 줄 모름인지 가만히 섰을 뿐이다. “들어와……”나는 생각 외로 당황해 있었다. 마음의 안정조차 잡을 길 없이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왜 늦었나 말았?”

두 번째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솔직히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말하고 보면 이 회한한 한쪽 맨발의 추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면 늦은 데다 한쪽 맨발에 대한 기압까지 겹치게 될 테니 선볼리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의 이 고충을 속속들이 알아줄 리 없는 주변사관님은 자기대로 나의 한구가 자기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했는지 이젠 완전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모양입니다.

풋싱이라긴 좀 거칠고 뺨싱이라긴 그래도 젊잖다고 할 그 특유의 기압이 내 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목덜미에, 사정없이 퍼붓는 억센 풋싱에 눈시울이 뜨끔하도록 매끈한 아픔을 느끼며 연신 밀리고 있는데 구두 뒤 끝에 무엇이 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돌부리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변사관님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차면서

장교편지



하이얀 뺨위엔 가느다란 미소와 함께 이슬이 아롱져 있었다. 우리집에 몇 번이나 왔고 수없이 만났지만 인사라고는 한 적이 없는 낮익은 소녀였다. 그 뒤로 침묵이 계속된 채 나는 숙제를 계속했고 소녀는 무슨 책을 보는지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조금 뒤에 누이가 오고 소녀는 누이와 함께 나가버렸다. 그 뒤로 나는 소녀를 만나면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소녀는 나에게 인사를 할 줄 알았다. 그림삼입 그러는 동안 나의 순진한 마음은 소녀에 대한 동경이랄까, 그리움이랄까, 야릇한 감정에 잠기움을 느끼고 낮을 붉히곤 했다. 소녀

는 그 후 얼마가 지난 뒤 열차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나도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소녀를 만나지 못했을 뿐—그 소녀는 아직도 내 소년 속에서 안타까이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곤 한다. “덕이, 저 하늘을…”하면서 손을 잡고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던 어린 마음을 버릇없고 알로 간 머슴애란 끔찍한 넋털이 붙을까 보아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던… 지난날 열차 통학을 했던 적이 까마득한 무슨 전설처럼 떠오르면서 시내가 흐르고 대나무가 우거지고, 부엉이 울음 질을 것 같은 그 마을이 그리워질 때면 나는 으레 단발카락을 날리던 그 소녀를 생각한다. 소녀의 뺨은 안 얼굴이 마치 전설에 나오는 공주처럼 생각되고, 무섭게 울던 여우 울음이 듣고파 그런지도 모르는—나는 그 마을에 자꾸 가고싶어만 진다. 그럴 때면 나는 언제나 버릇처럼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며 메어리처럼 “덕아—”를 사룩이 불러 보아야 한다.

(제1초등훈련비행전대 제15비행교육대대)

고만 보기 좋게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사관님의 가는 눈이 아까보다 배는 커지면서 내 구두 쪽에 굳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뭐얏, 양말까지 안 신었어?”

주변사관님도 어안이 병병한 모양입니다.

너무 야속합니다. 힘든 기압을 받으면서 그래도 내간에는 맨발만큼은 들키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구두에 쏟으면서 조심조심 밀렸는데 보람도 없이 이렇게 폭로됐으니 말입니다.

마지막 보로가 터졌으니 이젠 오히려 불안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저 더 심한 기압만 충실히 받으면 그뿐입니다.

주변사관님께서도 이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구태어 변명을 안 하려는 내 성미를 알아차렸나 봅니다.

“신 벗어”

금방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주변사관님의 음성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장교편지

구두끈을 풀고 발을 내놓았습니다. 발가락을 움츠린 채 웅숭거리고 있는 저나라한 맨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는 모양입니다. 주변사관님도 외면을 하고 헛기침을 하면서 후보생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소리치는 뒷모습을 보면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말을 벗어두고 별명이 있을 때까지 양말 만세를 불러!”

한쪽 양말을 벗어 아구리를 붙잡고 두 손을 버쩍 들면서

“양말 만세! 양말 만세! 양말 만세!”

만세소리는 조용한 아침 공기를 흔들면서 질편한 연병장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끝내 웃음을 참지 못한 동료들이 킬킬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를 들어서면서부터 수 없이 만세를 많이 불러왔지만 양말 짝을 거꾸로 붙들고 만세를 불러 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리 향기롭지 못한 양말 짝이 만년이나 산다면 어떻게 되라는 말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써서 끝이 다 무디어 못 쓰게 된 빗자루를 뒷간에 오래 뒀더니 이놈이 도깨비가 되어, 드나드는 사람의 궁둥이를 슬슬 쓸어주어 그만 기절시켜 죽이곤 했다는 엉뚱한 얘기를 어렸을 때 듣고 무서워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닷새밖에 안 신은 양말 짝이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일 때야 만년이나 산다면 이는 필경 양말도깨비라도 되어 발가락을 날름날름 씹어 먹기라도 할거라고 생각하니 만세소리가 우습기 짝이 없게 들렸습니다.

기압이 끝났습니다.

대열 속에 들어가 섰습니다.

이윽고 주변사관님이 환순간 잇었던 울화통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갔습니다. “집합 상태 극히 불량! 지금부터 헤치면 2분 내에 완전 취침 상태로 들어간다. 헤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백오십여 명이나 되는 후보생들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와르르 내무반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정말 동료들께 미안해 견딜 도리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더 심한 기압을 받는 다해도 나 혼자만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앉으려 지면서 뛰어 들어가는 동료들의 뒷모습은 내 가슴속에 오뇌를 던져 주었습니다. 연대기압이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로 인해서 동료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에 보상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지런히 웃을 정돈판에 개어 놓고 자리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야 미안하다”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동료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바로 옆에 있는 박 후보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미안하긴, 언젠 뭐 잘못해서만 기압 받았냐? 한참 쥐어 찢려고 하는 판인데...”

박 후보생은 이 기압이 나오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위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우의 이 따뜻한 말에 마음이 고만 흐뭇해져 발을 짝 뻗었습니다.

이때 맨발에 닿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방불명이 됐던 양말 짝입니다. 꼬집어내어 보니 뒤꿈치가 곰보처럼 뼈끔뼈끔 뚫린 검은 양말 짝이 배시시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또 잃어버리기 전에 신어두는 것이 상책이라 싶어 양쪽 양말을 주섬주섬 신어두었습니다.

한 5분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합의 명령만 내린다면 질풍같이 제일 먼저 달려가 떨어진 위신을 만회하리라고 마치 단거리경주의 출발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가 심판의 총소리를 기다리듯 초조히 있는데 명령은 안 떨어지고 구두소리가 육중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변사관님이 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들 들어, 양말 벗지 않고 누운 놈은 꼬집어내기 전에 얼른 나와, 빨리!”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안 될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번엔 괜히 부지런을 떨어 또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니 거듭 후회는 되면서도 한편 땀살스럽도록 남의 약점을 잘 잡아내는 주변사관님의 총명에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사관님의 눈이 아무리 밝기로 이불속을 유리 들여다보듯 하는 투시력이 있을 리는 없겠고 아마 주변사관님께서도 훈련시절에 이런 접잡지 못한 경험—한두 번쯤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어야 도둑을 잘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바로 문 입구에 자리한 동료들은 정직하게 양말을 신은 채 주변사관님 앞에 나섰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 정직한 행동을 양말 벗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동료들의 이불이 갑자기 풀석풀석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극히 작은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보면 지리적 조건이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주변사관님은 일일이 이불을 들추어 보고 확인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삼 분의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일 들켜 나로 인해 또 동료들이 연대기압을 받게 된다면 나는 영구 제될 수 없는 골칫덩어리로 동기생 간에 낙인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 구슬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팔을 이불속으로 곧게 뻗어 내리고 넓적다리가 가슴에 닿도록 쭈그러 양말 아구리에 손가락을 끼고는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반듯하게 명상에라도 잠긴 듯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지만 이불 속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땀 어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이불이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자지러질 듯한 마음을 달래면서 겨우 한 짝은 벗겼습니다.

주변사관님이 이제는 세 걸음 정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시 손을 뻗치고 몸을 쭈그렸다가는 금방 눈에 떨 것 같아 이번엔 손대신 벗어진 맨발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5월(五月)에 쌓은 탑(塔)

—5·16 혁명 2주년에 부쳐서—

박기원(朴琦遠)

시(詩)

5월은 의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탑을 쌓아 올리자.

무지갯발 같은 그 엄숙한 절규가.
우렁차게 울리고 간 넓은 대지엔.
시방 울창한 삼림이 한가닥 바람을 만나.
푸르른 호흡으로 몸부림쳐 포호하는 아침.

꽃 피면 생각키는 성스런 얼굴들이.
5월의 하늘가에 녹음 같이 푸르다.
그렇다 확확 타오르는 열화같은 정열을.
마구 구겨 박았던 동굴 속 치욕은 잠을 깬다.

미운 것이야 어찌 닳으랴.
풀잎을 보라.
꽃송이를 보라.
몸등이채 던져버린 생명들이 아닌가.

인정이 지나가다 가지에 걸려 끝내 꽃이 피는 거리.
바람결에 오는 소리 있어 가슴에 부딪쳐 피가 멈춘다.

송두리째 털어 바쳐도 아까울 것 없는 이 호젓한 마음으로.
우람한 탑 아래 서면.
찬란한 고독이 기폭처럼 출렁인다.

반듯하게 누운 채 벗어진 발을 옆으로 구부려 엄지발가락을 남아 있는 양말의 아구리에 끼고는 두 발을 쪽 뺐었습니다. 양말이 약간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마는 뒤꿈치에 이르자 아무리 발버등을 쳐도 벽창호 같이 말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에 정직하게 나가는 편이 나을 뻔했습니다.

주변사관님은 바로 옆 동료의 이불을 들추고 있고 뒤꿈치에 걸린 양말쪽은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오! 양말짜이어 어서 빨리 열라대왕이라도 되사 날 아주 잡아 가시라!”

나의 냇두리는 구슬피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심후보생! 벗었겠지?”

주변사관님이 내 앞에 다가선 것입니다. 아마 먼저 일로 해서 나에게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벼룩도 낫짜이 있다고 두 번씩이나 위박하겠느냐고 이번만은 나를 믿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습니까?

얼굴은 자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걸려 있는 양말을 벗기려고만 했습니다.

“어! 자나?”

하면서 이번엔 귀를 잡아끄는 것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아무리 깊이 잠이 들었기로 깨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 말 한마디에 따라 사태를 좋게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 듯 하품을 하고 나서는

“네? 아까 주변사관님 지시대로 완전 취침 중이었습니다.”

이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능청 떨지 말고, 양말 벗었어?”

이건 정말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군인의 대답은 항상 간단 명료해야 되다고 배웠습니다. “네” 또는 “아니오” 둘 중의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겠습니까?

“네”하기엔 아직 한쪽은 뒤꿈치에 걸려 있고 “아니오”하기에는 한쪽 발은 으쓱하게 맨발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채 못 벗었습니다.”

“채 못 벗어? 그게 무슨 소리가 벗었음 벗었구 안 벗었음 안 벗었지, 어디 내놔!” 이렇게 되면 나중이야 어찌 됐던 나의 말을 실증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딱 감았습니다. 이불을 걷었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뒤꿈치에 걸려 있는 양말을 다른 발의 엄지발가락으로 물고 있는 그대로 번쩍 치켜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래도 채 못 벗었다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하고 뇌까리면서—

순간 내무반에는 떠나갈듯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울상이 되어 웃음을 터트리고 있는 주변사관님의 일그러진 얼굴이 거꾸로 뻗쳐 올린 넓적다리 사이로 뻗혀 보였습니다.

<본부 정훈감실>

<생명을 걸고 동백림(東伯林)을 탈출한다>

백림사태(伯林事態)의 배경(背景) (상)

이 글은 1947년-49년간, 독일에 있어서의 미점령지역군 정장관의 경력을 가졌고, 현재 서백림케네디대통령의 개인대표로 있는 필자가 과거에 비추어 오늘의 백림사태를 비판한 것이다(포로인 아페어스 1962년 10월호에서)

루시아스 D 그레이
장 세 원 역

지난 15년간, 미국민은 수없이 백림(伯林)위기에 직면하였다. 때문에 오늘날 미국민은 백림문제를 하나의 연속된 위기상태로 인식하게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줄곧 계속되어 온 백림의 위기적 정세가 실은 유럽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백림문제가 언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 백림문제와 그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백림문제 발생 이래의 경위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1943년 가을,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이 케베크에서 회담할 때 소련군은 독일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중앙 유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케베크 회담에서 영국대표들은 이때 이미 서방측 연합군은 언제 어디서 소련군과 합류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서방연합군과 소련군은 경계선을 설정하여 패전국 독일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련정부와 조급히 회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1943년 10월에 모스크바에서 외상회의가 개최되고 이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즉시 구주(歐洲)자문위원회를 런던에 설치하고 여기서 피점령국인 독일의 점령지구와 전후처리문제를 협의하자는 의견에 일치하였다.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영국주재 미국대사, 같은 소련대사, 영국외무성대표 윌리엄 스트랑의 삼자였다.

1944년 1월 런던에서 위원회가 개최된 직후에 영국대표는 백림에 한해서 동부, 또는 소련점령지구로부터 제외한 경계획정안을 제시하였다. 소련은 이 제안에 즉시 찬동하였다. 미국은 국방성이 백림을 중심으로 독일을 삼분할하는 대안을 용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에 이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미국안은 행정, 통신통합을 분단하는 것이었으므로 강경하게 주장되지는 않았다. 사실, 미국정부는 서방연합군과 소련군과의 경계선보다는 미국의 점령지구가 북서부가 되느냐 남서부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 4월, 영국제안을 승인하였다. 금일, 동독과 서독은 물론, 백림 시내에도 존재하는 경계선은 1944년 1월에 제안되고 서방연합군이 프랑크 북부에 진공을 개시한 수 주일 전인 1944년 4월에 승인된 선이 그대로 금일의 경계선이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의 존재가 서방연합군에 의한 백림점령이라는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대처하는 정치적 고려에 무엇인가 관계가 있었음은 확실한 것이다. 장래의 점령지역 경계선은 이미 몇 달 전에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군대가 백림시에 먼저 돌입하느냐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어쨌든 독일이 항복했을 때는 서방연합군은 제안되어 있는 경계선보다 훨씬 동방에까지 진출하였고 추우링겐 및 싹소나-지방의 태반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점령협정에 의하여 미군은 통합군정부가 수립되면 즉시 경계선 배후로 물러나게끔 되어 있었다. 동시에 미군은 백림시에 진주하여 시내의 미군담당지구를 점령할 예정이었다. 1946년 6월, 연합군의 사령관들은 백림에서 회담하고 독일의 패배와 점령군의 행동규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구주자문위원회의 대표를 통해서 삼국 정부 간에 교섭되어온 협정은 이미 알타회담 때, 정식으로 승인되어 있었다. 이 협정에 따라, 삼국의 총사령관들로 구성되고 본부를 백림에 두는 연합군 관리이사회가 설립되어 이것이 독일 통치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총사령관들은 제각기 자기의 점령지구 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자 없기 때문에 연합군 관리이사회는 만장일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백림은 어느 지구에도 속하지 않고 연합군 관리이사회직속의 연합군사령부의 통할을

받게 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알타, 쾰담의 어느 회담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나 알타회담 때, 프랑스는 점령국으로 대우를 받았다. 프랑스에게 이 자격을 주자는 안에 소련은 이를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그 점령지구는 미영 양국의 점령지구에서 분할해 주라고 주장하였다.

또, 동부 포오랜드를 소련에 이양하고 그 대신 포오랜드에는 동부독일의 일부를 할양할 것을 서방측이 동의한 것은 알타회담에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함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독일의 동부 국경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알타에서도 포스담에서도 정하지 않았었다. 여기서 미국은 이것은 새로 수립되는 독일의 신정부와의 평화조약 때문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들은 분명히 포스담 회담에서 계쟁(係爭)의 지역을 연합군관리아사회와 관할에서 떼어 최종적으로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포오랜드 점령관리하에 둘 것에 동의하였다. 포스담에서는 독일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및 독일인은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전독일을 대표하는 정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두 가지 점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외에 알타의 결정이 재확인되는 것으로 끝이었다.

독일의 공동점령협정에는 백림의 자유통행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측이 이에 관한 보증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구주자문위원회의 교섭에 직접 관계하였던 필립 모즈리씨는 이 문제는 군사령관에 의해서 직접 교섭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정 속에는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여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이젠하워—원수의 부관으로서 백림진주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필자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 들은 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곧 제기되었다. 제1회제의 회담에서 주코프원수는 서방측의 백림진주에는 특정한 도로나 철도를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 이유로서 다른 도로나 철도는 소련군의 복원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하나의 문서화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필자는 그 당시 이것이 잠정적인 조치 이상의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나는 백림의 공동점령은 백림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는 당연히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당시, 연합군의 통행권만을 문제 삼고 있었으며 독일인의 통행권에 대해서는 전연 토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까지의 교섭에서는 독일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나로서 취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독독의 분할이나 백림의 봉쇄같은 것을 예상하는 자는 없었다. 또 우리들은 공중에서는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봉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방측의 보급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백림에 출입하는 연합군의 항공기에 특정한 항행고도를 결정한 것은 오로지 안전확보를 위해서였다. 우리들은 4개국협정으로서 문서의 형식으로 3개의 공로를 서방측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들 공로는 1945년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매일 서방측이 사용하여 왔다.

미국은 될 수 있는대로 연합군 관리아사회가 독일 전토를 통할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단순히 이사회가 존속함을 허용할 뿐 소련경제의 강화를 위하여 동독을 이용하는 동시에 동독을 경찰국가로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주(歐洲, 유럽)에 강력한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동안에는 연합국의 통치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서방측이 백림에 진주한 지 얼마 안 되어 소련대표는 백림시내에서 자유선거를 시행하자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통합하여 새로이 소련이 만들 사회주의 통일당이 선거에서 득승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에는 이 통합을 거부하고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있었다. 선거의 결과, 사회주의 통일당은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되고 말았다. 우리들이 백림에서 곤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소련은 정당히 선출된 에른스트 로이타시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엉뚱한 이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결렬의 시기는 1948년 6월 미, 영, 불 3개국 점령지구에서 통화개혁을 실시하게 되자 일어났다. 이에 앞서 2년간에 걸친 소련의 거부권으로 실시가 저해되어온 이 통화개혁은 독일의 자유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조치였다. 소련대표는 지폐를 인쇄하는 금속판을 일조(一組)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 끝까지 통화개혁을 반대하였다. 그런데 소련은 이때까지 점령통화를 난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소련은 서방측의 통화개혁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소련대표는 연합군 관리아사회에서 퇴석하여 연합군의 협력의 최후의 심볼을 소멸하였다.

서독에서 실시된 통화개혁은 백림의 특수상태를 고려하여 즉시는 서백림에서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군 정부는 그의 점령지구와 동백림에 서둘러 별개의 신지폐를 뿌렸다. 여기서 서방측은 부득이 서독에서 이미 실시 중인 통화개혁을 서백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시청의 청사는 동백림 내에 있었다. 1948년 6월에 소련군이 봉쇄를 시작하고부터 시의회는 무질서와 폭력에 의해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되리만큼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이 강했다. 때문에 시청은 1948년 9월 동백림에서 서백림으로 옮겼다.

소련에 의한 백림봉쇄의 목적은 그들이 이 도시를 탈취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백림은 금일과 같이 자산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구주에 있어서의 서방측의 지위를 약화시키지자는데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우리들은 UN에 대한 신뢰의 증거로서 우리들의 대부대를 급속히 복원시켰다. 우리들은 히틀러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여러 나라와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연합국이나 소련정부와 열심히 협력하였다. 우리들은 자유선거가 시행되기까지의 조치로서 이들 각국에 연립정부를 수립할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강대한 군대가 그대로 잔류되고 그 압력 밑에서 동구의 여러 나라들은 차츰차츰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나 자유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리고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 협위는 중부독일에서 미영불 삼국군대에 의하여 간신히 저지되고 있었다. (차호 계속)

소련의 공포정치(恐怖政治) (1)

—밀실경찰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A. 그리고레프



통상적인 법률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범죄를 조사하는 방법이 대개 두 가지 면으로 성립되어 있다. 즉 경찰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비적 조사와 또 하나는 변호와 기소로 되는 법정재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피고인에게 자기에 대한 고소를 반박할 기회를 주는 한편 변호인의 참여에 의해서 현행법에 입각하여 항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피고의 변호인은 예비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람을 체포한 근거가 된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

에 의해서 그 체포가 합법이나 아니냐를 판정한다.

소련에서도 이러한 조사원칙이 법률로는 표시되어 있으나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비정치적 형사사건에 국한되고 모든 정치사건은 전부 정치경찰에 의해서 전연 다른 원칙에 따라 조사된다. 그 원칙이란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에 근거를 둔 것이다. —「독재의 과학적 개념은 법률 규칙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직접 권력에 의한 무제한의 힘 바로 그것이다.」

소련 비밀경찰이 행하는 범죄 조사활동은 관계자의 참가나 법에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때 조사 중에 있는 인물의 체포명령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관이나 검사에 의해서 사전에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검찰관은 피의자의 체포나 수색에도 입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검찰관은 피고와 증인을 취조하게 되는데 조사를 끝냈다고 생각하면 그 사건에 관한 자기 결론을 구체화한 판결문을 쓴 다음 형벌을 제안한다. 그다음 사건은 부장이나 과장 앞으로 돌아가나 그들은 간혹 형식적으로 피고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조사관의 보고서를 훑어보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다.

같은 사람들이 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법률기관을 결정하는데 소위「반혁명적 성질을 띤 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건에 선고를 내릴 기본적인 기관은 비밀경찰의 지방조직 밑에 있는 이른바「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내가 억류되어 있을 동안에 여러 곳의 감옥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만난 정치범의 거의 90%가 특별위원회에서 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었다.

1936년에 E라는 사람-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는 강제수용소에서 토로키스트로 선고받은 전 반혁명 및 테업복멸

비상위원회 <체카(CHEKA)>의 조사관이던 예부쓰헤이에프라는 사나이를 만났다. E가 그 사나이로부터 특별위원회에 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회의 개정에는 검사나 검찰관과 더불어 세 사람의 체키스트 위원이 참가하는데 사건의 보고는 검찰관에 의해서 제출된다고 한다. 위원회의 멤버들은 사건의 일부를 자기들을 위해서 읽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하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한다. 때로는 검사가 검찰관에게 질문할 경우도 있지만 검찰관은 자료가 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검사는 재판장에서의 단순한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조사를 받은 사람의 죄상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못하고 또한 자백도 하지 않을 경우에 형은 3년이며 보다 확실한 사건으로 자백을 얻을 수 있으면 형은 5년이 된다. 한편 중대한 사건으로서 총살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사건은 대개 군사재판소로 옮겨진다 한다.

(특별위원회의 재판권은 5년 이내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기관에서 8년-10년형을 언도받은 몇 사람들을 만났으며 전후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는 25년까지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취해지는 수속은 소련 형사소송법 제466조, 467조, 469조, 및 471조에 기재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소위「테러리스트의 조직 및 행동」에 관한 사건은 피고의 참석 없이 1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지 않으면 안되며 선고는 즉시 내려져야 하고 상급재판소에의 상고나 관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평시에는 군사재판소가 각기 군관구(軍管區)에 있어서 군사범죄 이외에 소련 형법 제58조 1항, 동 2항, 동 6항, 동 8항 및 59 이 법정에 호출되지만 구형장은 쪽의 증인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1938년 6월에 알렉산드르프가 재판장이 되어 페테루 및 포르 요새에서 열렸던 레닌그라드 군관구의 군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중대한 혐의의 하나를 반박할 수 있는 증인환문(喚問)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8조 6항에 의해서 구형 측의 증인만이 호출되었을 뿐이었다.

불세비키가 정치재판에 대해서 선전 또는 위협적 효과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그 사건은 소련최고재판소나 군사위원회 또는 지방법정으로 옮겨진다. 이런 따위의 재판은 기사로서 신문에 공표되기 때문에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인의 역할을 말하고자 한다. 여기서 비밀경찰이 피고를 심문할 때에는 변호인도 물론 참가한다. 사건이 법정에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정부에서 임명한 변호인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에서 고소사실은 결코 반박되지 못하며 다만 정상을 참작하려는 시도가 약간 있을 뿐이다.

(가령 변호인이 고소의 허위를 입증하려고 기도한다면 그는 비밀경찰의 활동을 불신한 죄로 강제수용소에 끌려갈 위험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비밀경찰의 조사활동은 항상 비밀의 장막에 쌓여서 사건에 관한 정보는 결코 공표되지 않으며 설사 공표된다 하더라도 극히 간단하고 애매한 기술뿐이다. 조사나 재판의 모든 제도가 소련시민의 대다수의 운명에 대해서 비밀경찰이 멋대로 지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비밀경찰을 무한대의 힘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경찰기관은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체키스트들이 자랑하는 금언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비밀경찰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고소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체키스트들 사이에 또 하나 철칙으로 삼고 있는 말 가운데

「인간이 있는 곳에 사건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정상적인 법률기준에 반하는 이와 같은 조사방법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피고는 어찌서 자신을 변호할 가능성이란던가 사건의 상황을 다 소간이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불세비키가 세력을 유지하는데 쓰는 전술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불세비키는 정부에 대한 죄를 실제로 범한 사람뿐 아니라 범할 지도 알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위 그러한 잠재적인 적에게 테러를 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비밀경찰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인 것이다.

허구의 죄를 날조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와 같은 소위 잠재적 적을 단죄하는 법률적 근거는 소련형법의 전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즉 그것은 무엇이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관해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소련의 법률학 자체가 정치범죄에 관해서 극히 애매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소련인의 대부분을 정치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반혁명」으로 유죄가 된 사람의 대부분은 형법 제58조 10항에 의해서 고발된 사람들인데 그것을 보면『소련 공산주의 세력을 뒤집거나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킬 목적으로 선전

및 선동 또는 개인적인 반혁명의 죄를 범한 자 및 이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자유를 박탈하는 형에 처한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전쟁 중에 행해졌거나 또는 대중의 정치적 민족적 편견을 이용해서 이루어졌거나 혹은 전시 중 또는 군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행해진 경우에는』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총살에 처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이른바 반혁명적 선전에 대해서 6개월의 형에 처한다는 것이 순전히 수사적인 말임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58조의 어느 항에 의한 고발이던 3년 이하의 금고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58조의 10항이 발동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인가? 그리고 소련에서 소위 반혁명 선전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1. 옛날 국내전에서 적군으로 참가한 바 있는 K라는 농부가 집단농장 모임에서 자기는 집단농장이 생기기 전에는 잘 살았으나 지금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빠가 빠지게 일만 하고 있다고 불평을 말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특별위원회로부터 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2. 나는 1934년 3월에 모스크바 형무소에서 형법 58조 10항의 죄목으로 복역하는 모스크바의 한 노동자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스탈린의 사진이 실린 신문 조각을 변소 휴지로 썼다는 혐의로 유죄가 된 것이었다.

3. 나는 1937년에 스웨보트니시에 있는 바부라구분부에서 V라는 예술가를 만났다. 그는 「생활은 향상되었다. 생활은 보다 즐거워졌다—스탈린」이라는 슬로건을 쓰게 되었는데 그는 스탈린 이름 앞에 U자 한 자를 더 써서 「생활은 향상되었다. 생활은 보다 즐거워졌다—스탈린에게는,이라고 뜻을 바꾸어 버렸다. 다른 동료 예술가들은 이 바뀌어진 글 뜻을 보고 한바탕 웃고 나서 결국 U자는 지워진 채 포스터는 게시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군가가 이 사실을 NKVD(내무인원부)에 밀고한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다음날 NKVD의 직원 하나가 그 포스터를 떼어다가 전문 검사관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V는 체포되고 58조 10항에 의해서 5년 형을 받은 것이다.

4. 로스토프 가축사육 집단농장의 N이라는 노동자는 1930년에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 당시 한참 벌어졌던 집단화 운동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N은 체포되고 얼마이따 그의 형도 체포되어 두 사람이 다 같이 58조 10항에 의해서 최고의 형벌인 총살형을 받았다.

5. 1934년 키로프가 암살된 뒤에 시인 파벨 와시리에프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키로프는 지노비예프의 후계자 손에 죽은 것이 아니고 스탈린 자신이 죽인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런 말로 해서 와시리에프는 체포되어 1936년까지 투옥되었다. 그 후 1938년에 작가들의 회합에서 그는 부하린을 변호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부하린이야말로 고결한 인물이며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고 말하는 한편 정부에 협력을 표명하기 위해서 부하린의 처형을 칭찬하고 있는 작가들을 암생이 같은 족속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리하여 와시리에프는 또다시 체포되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총살되었다는 소문도 들었으나 그 뒤에 감형이 되어 강제노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다.

6. 레닌그라그 대학의 R교수는 1924년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원조하였기 때문에 게 페 우로부터 반혁명 죄목으로 3년 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1927년에 레닌그라드로 돌아와 시인 우라지밀 스미렌스키가 주재하는 문학회에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시낭독을 비롯해서 예술이란 단가 신비라던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토론들을 하였다. 그들은 정치적 토론은 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예술에 대한 소련 공산정권 견해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1931년에 이 문학회의 거의 전원이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중에 세 사람은 3년 형을 받았고 다른 네 사람은 5년 형을 받았다. 그리고 스미렌스키 자신은 다른 두 사람의 동료와 더불어 10년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은 옥중에서 광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죽었으며 다른 또 한 사람은 제손으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3년 형을 마치고 나온 R교수는 키로프 암살사건이 있은 후 다시 체포되어 3년 동안 시베리아로 유형되었는데 그때의 죄목은 그가 소위 반혁명활동에 의해서 처형된 바 있는 전과자라는 것이었다.

R교수는 1936년 유행지에서 또다시 체포되었는데 이유로는 그의 숙사를 수사한 결과 그가 쓴 글 가운데서 소위 반혁명적 경향의 증거자료로서 「어리석은 자에게 쿠라크(부농)를 타도하라고 한다면 제자신의 주먹을 잘라낼 것이다」—쿠라크는 러시아말로 주먹이라는 뜻도 된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를 담당했던 막시모프 검찰관은 이러한 죄상에 덧붙여서 그가 소위 유형인 상호원조기금제도를 만들려고 하였다는 죄목을 날조하여 또다시 R은 57조 10항에 의해서 5년 형이 언도 되었다.

소련형법에 있어서 다른 조항들도 거의 다 제멋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두서너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58조 3항은 소위 「반혁명적 목적을 가지고 외국정부 또는 그 개인적 대표와 접촉」하는 것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934년 1월에 나는 노보로시스크 오케페우 감옥에서 K라는 독일계 소련인을 만났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독일 영사관을 방문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약 한 달 후에 붙잡혀서 스파이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와 같은 죄목이 불합리함을 비밀경찰 자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드디어는 53조 3항의 죄로 바꾸어 3년 형이 언도 되었다.

제58조 4항은 「공산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서나 협력하는」 것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의 적용은 로스토프의 테레벤코프 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테레벤코프는 전에 백계군(白系軍)의 사관이었는데 그는 공산화된 뒤에도 그대로 소련에 머물러 있었다. 신경계 정부(NEP)시대에 그는 국외로 망명한 친구들과 편지 왕래가 있었다. 그의 태도는 반소적이었으나 오.게.페.우(합동국가보안국)는 그의 반소선전 또는 활동의 확증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돈지구에서 강제집단화가 한창이었을 때 게.페.우(GPU)—국가안보국—는 소위 계급의 적을 일제 검거하였는데 테레벤코프도 그 안에 끼어 있었다. 비밀경찰은 그를 쫓아서 소위 반혁명활동을 자백시키려고 하였으나 테레벤코프는 의지가

문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사코 증거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관은 할 수 없이 데레벤코프가 외국에 있는 친구와 교환한 편지의 사본을 전부 떠서 소위 「국제적 반혁명운동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여 데레벤코프에게 58조 4항을 적용시켜 3년 형을 선고하였다.

제58조 12항은「준비 중에 있거나 수행되었거나 막론하고 반혁명적 범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의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유박탈형에 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1937년에 새로운 죄수부대가 스워보트니시로 옮겨왔다. 그 속에 N이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의 죄상이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느 날 몇 사람의 부두 노동자들이 선술집에서 술이 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소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할 때 그는 옆자리에 앉아서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58조 12항을 적용하여 그의 미소는 3년간의 금고형을 받았다.

소련형법 제58조 13항은 소위 「국내전 중에 군주정체 또는 반혁명적 정부 밑에서 책임기관 또는 비밀기관 속에서 있었던 노동계급 및 혁명운동에 반항하는 적극적 행위 또는 적극적 투쟁」에 관해서 3년 금고에서부터 총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는 소위 반혁명적이지만 법률을 위반했다는 확증은 없고 또한 비밀경찰이 단순히 반혁명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을 뿐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추방하기 위한 구실로 비밀경찰이 곧잘 이용하는 조항이다.

옛날 제정러시아시대에 사관이었던 미하일 페트로비치 야코베크라는 사람은 1930년까지 로스토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소련공산정권을 별로 지지하는 빛이 없었으나 상당히 언동을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경찰은 다만 그가 이른바 반혁명적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의심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1930년 11월 19일 밤 야코베크는 다른 6백 명의 피의자와 더불어 체포되었다. 그는 간단하게 두 번 취조를 받은 끝에 형법 제58조 13항에 의해서 10년 금고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6백 명 전원에 대한 소위 반혁명선전 고발문은 다들 똑같은 문구로 된 것이었다. 즉 「집단농장에 반대하는 유언 및 포랜드와의 전쟁이라는 선동적인 유언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북(北)코카사스 군관구(軍管區) 특무부(特務部)의 부부장(副部長) 이엠프소프가 지휘하였던 것이었는데 그는 각각 다른 6백 통의 고발문을 작성하기에는 시간도 상상력도 모자랐던 모양이다.

이 6백 명 가운데는 옛날 이민으로서 1923년에 불세비키가 내걸었던 이른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한 잊어버린다」라는 약속을 신용하여 불가리아로부터 돌아온 발사우스키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그 속에는 마린스키 극장의 배우인 바빈이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의 죄명이 북코카사스에서 무장단을 조직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건은 별도로 처리되었다.

1938년에 북동집단노동수용소에서 나는 크리부든이라는 몸집이 뚱뚱하고 수염을 기른 사나이를 만난 일이 있다. 그는 슈쿠로 사단에서 준사관으로 있던 사람으로 내란이 끝나자 추코트카로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소련 포피상협회 조달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부지런하고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직장에 들어갈 때 쓰게 되는 신상조사표에 자신이 옛날 백계군에 근무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빼먹고 썼다. 이 때문에 1937년에 이르러 내무인민위원부(NKVD)는 그의 과거를 밝혀내서 그에게 10년 형을 언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한 형법의 전조문을 가지고서도 내무인민위원부(NKVD)에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주기에는 충분한 것이 못되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키로프사건 뒤에 강제노동수용소의 죄수들은 형법 및 조라는 이외에 SOE라는 이상야릇한 선고를 받고 도매값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새잡이 죄수들이 나타나서 모두들 놀랐다. “어째서 여기를 왔느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모르겠다”는 대답이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진상이 드러났다.—소련공산정권의 새로운 포고에 의해서 재판도 조사도

없이 이른바 사회적 위험분자(SOE)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을 행정명령 한마디로 강제수용소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NKVD에 부여된 것이었다.

나는 1937년 우스트 우치나에서 로부야헤코리마강을 따라 기선으로 호송되었을 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SOE 죄수의 한사람과 우연한 기회로 친해졌다. 그는 레넬달이라는 사람으로 빨간 머리카락과 맑은 눈동자에서 쓸쓸한 미소를 곧잘 띠는 사나이로 멋있는 서정시를 써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수용소의 쓰라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는 키에프에서 태어나 그곳 육군대학에 들어갔으나 열네 살 때 지원병으로 백계군에 참가하였다가 그것이 와해된 후 키에프로 돌아와 있던 중 1926년 게.페.우에 체포되어 10년 형을 받았다. 그로부터 그의 강제노동수용소 편력은 시작되었다.—드디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레넬달은 URO(기록재배치부)에 호출을 받아가 석방명령에 싸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류에 싸인되어 끝나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때 서기가 조그만 종이쪽지 하나를 내주면서 말하였다.“자! 이번에는 여기에다 싸인을 하게...”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

“.....특별위원회의 명에 의하여 전수인 레넬달은 사회적 위험분자로서 3년간 금고 및 변경지구에서 복역할 것을 명함.....”

이 무렵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율동자제한 조항을 가지고서도 소위 잠재적인 적으로서 단죄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는 형법의 각 조항 대신에 다음과 같은 정칙을 판결문 속에 집어넣었다.

KRTD—반혁명적 트로키스트 활동

KRD—반혁명적 활동

KRA—반혁명적 선동

1937년에 다니신이라는 죄수가 로부야수용소에서 전세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가 나한테 말한 바에 의하면 그가 적군장교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의 트로키스트는 있었지만 그 자신은 전연 무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특무부는 그의 방을 수색하여 소위「국내전사」의 초판 사본을 발견한데서 그 전에 붙잡힌 트로키스트들과 친했다는 점으로 그는 형법조항 대신에 KRTD로 몰려 3년 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1939년에 노보야 지리안카 수용소에서 나는 베레쓰키라는 포오랜드인과 알게 되었다. 그는 포오랜드 공산청년동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소련으로 가보려고 생각하였다 한다. 그러던 중 그는 1930년 초에 불법월경에 성공하여 게.페.우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모스크바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소련의 현실에 직접 부딪쳐보니 소위「빛나는 노동계급의 땅」에 대한 열의는 차차로 식어져서 공산주의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드디어 그는 체포되어 스파이라는 죄명을 쓰고 다음에는 소위 반혁명 선동죄로 몰렸다는 것이다.

에조프시대에 수많은 죄수들이 소위「스파이 혐의」로 처형되었다. 이 의례적인 문구의 근거는 주로 외국과의 관련이라는 바탕 밑에 국외의 친척과 서신 교환을 하였다던가 또는 전에 외국에 산 일이 있었다든가 하는 따위였다. 니코라이에프라는 기사는 명에 의해서 동지철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영사로부터 당신은 일본관헌에게 붙잡힐 염려가 있다는 주의를 받았다. 그 후 소련기관에 의해서 본국으로 몰래 호송된 니코라이에프는 현지에서 일을 잘했다고 표창되었고 3개월간의 휴가를 받았다. 그런데 그는 휴가가 끝나기 1개월 전에 체포되어「스파이 혐의」로 5년 형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위험이라는 것이 비밀경찰의 직능일 뿐 아니라 정규법정의 직능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1934년 7월 20일 소련형법에 공식으로 첨가됨으로 해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것을 보면.....국가에 대한 반역 즉 소련인민에 의한 소련의 군사력과 국가독립 및 영토보전을 손상하는 행위 예컨대 군사적 국가기밀에의 배신,

이적, 국외로의 도망 등은 최고의 형벌 즉 전재산의 몰수를 수반하는 총살 형에 처한다—

이 항목을 대규모적으로 적용한 예는 쿠리미야령 카루미크령 및 불가 독일 인령을 한꺼번에 폐지한 것에서 볼 수 있다.

58조의 1항B는 앞에서 말한 죄를 군인이 범하였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 의해서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된 군인들 뿐 아니라 연합군으로부터 소련에 인도된 라조프장군의 부하들도 대부분 처벌되었다. 독일국 경에 특설된 기관이 석방된 포로를 모조리 체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1941년부터 1943년에 걸쳐 즉 전쟁초기에 항복한 자는 특별히 엄중하게 취급하였다.

1943년-1940년의 핀란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적군병사의 운명이야말로 실로 비참한 것이었다. 그들은 소련군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되자 비밀경찰에 넘겨졌는데 그 뒤의 그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나는 핀란드에서 포로가 되었던 군인을 보았다는 소련인을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하였다.

「국가에의 반역」이라는 조항은 항복한 군인들 뿐 아니라 독일 점령하에 있는 땅에 남아서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독일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상점에서 일하였던 일반시민에게도 적용되었다. 소위 반혁명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나타낸다면 이전의 노동자는 정치범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제58조의 1C항은 더욱 가혹한 것이다. 그것을 보면

「군무에 종사하는 자가 국외로 도주 또는 도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 중 성년자는 준비 중이거나 기수(既遂)거나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당국에의 통보를 게을리한 자는 전재산을 몰수하고 5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

소위 반역자의 가족 가운데 성년자로서 그와 더불어 생활하였거나 범행 당시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자도 선거권을 박탈하는 한편 시베리아로 5년 유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은 군적에 있는 자 가운데서 나온 소위 반역자의 가족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군대와는 관계없는 소위 문중의 적의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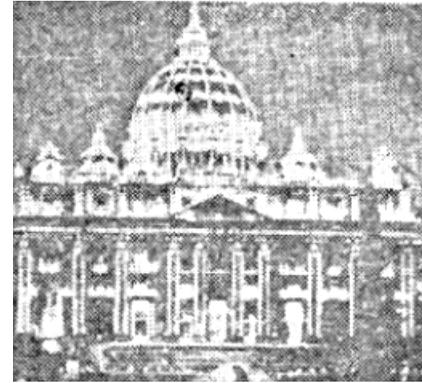
1937년에 특별히 마련된 강제수용소가 포토마라그에 설치되었는데 거기에는 7천 명의 소위 민중의 적의 처나 자매가 수용되었다. 이 수용소는 후일에 해체되어서 죄수의 일부는 카랑간다로 옮겨지고 나머지 2천 명의 여자들은 키로프스쿠 철도 세게다 역 근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 2천 명의 여자 가운데는 그 옛날 비밀경찰 두목이었던 야고다의 누이동생, 라데크의 처, 투하체르스키의 처, 세레부리야코프의 처, 펠드만의 처, 코시올의 처, 구리신 하루첸코의 처 등이 있었다. 이들 소위 인민의 적의 가족은 1945년에 특사로 석방되기까지 수용소에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인후과의사(咽喉科醫師)와 畫家

화가 호이츠러가 프랑스산의 푸들 개를 먹고 있었는데 그 개가 목을 다쳤다. 호이츠러는 걱정 끝에 인후과의 명의 막켄저에게 왕진을 청했다. 의사가 와보니 사람이 아니고 개였기 때문에 매우 불쾌해서 처방을 써주고 왕진료를 받은 다음 온다간다 말도 없이 가버렸다.

이튿날 의사는 호이츠러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와 달라고 사환을 보냈다. 호이츠러는 아마 개에 관계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서둘러가 보았다. 그랬더니 의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 호이츠러 선생. 이 문짝에 색칠을 해 주십시오.” 하고 문짝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계경이순례>

성(成)베드로 대사원(大寺院)

리차드 하리바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1년째 되던 해에 네로라는 포악한 왕자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원형 연기장을 만들

어 구경거리로서 야수와 사람과 싸움을 시킨다던가 검사(劍士)들의 칼싸움, 그리고 굶주린 사자 앞에 사람—죄수를 풀어놓아 잡아먹히게 하는 등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끔찍한 구경거리를 백성들에게 보여 주었다. 또한 그전의 우상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형 연기장에서의 네로의 포악함을 비난한 데 대하여 오히려 그들을 체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연기장에서 본보기로 사자의 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연기장의 중앙에는 이집트에서 운반해 왔다는 높이 36미터의 적(赤)화강암 석탑이 세워져 그 주위에서 사람과 짐승과의 무서운 싸움이라던가 전차(옛날 전쟁 때나 경기용으로 사용되던 이륜차)경기 같은 것이 베풀어졌던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서기 67년의 어느 날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젊었을 때 가리리아호에서 어부 생활을 하였다는 노인 한 분이 연기장으로 끌려왔는데 그는 너무나 열심히 기독교를 전도하였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붙들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와 같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순교자는 다른 사람 아닌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의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인데 그는 성바우로와 더불어 로마에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다.

네로가 세운 이 야외극장 바로 밖 앞쪽에는 학살된 크리스찬들의 시체를 묻은 묘지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시체도 그곳에 묻혔다.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 신자가 일어나고 더욱이 250년 뒤에는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왕 자신이 개종하여 교도가 된 다음 즉시 베드로의 무덤에다 성당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네로가 세웠던 그 끔찍한 연기장을 부셔버림으로서 수많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성당은 성베드로사원으로 불리어 1,100년 동안이나 서 있었다. 이 사원은 역대 법황(法皇)들의 묘소가 되었으며 또한 모든 유럽의 왕국이나 황제가 여기서 재관식(戴冠式)을 올렸다.

서기 1450년 항(項)부터 이 역사적인 건물은 급이 가기 시작하여 그 후 무너지고 말았는데 법황들의 무덤만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1506년(콜롬버스가 죽은

해) 그때의 범황 유리우스 2세는 건축가로 이름 높던 부라만테의 진언을 받아들여 전과 똑같은 자리였다 새로운 성당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것은 먼저번 성당보다도 배나 더 크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엄한 것으로서 전(全)로마 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념물이 되도록 힘썼다.

이와 같이 큰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이 초청되었다. 그런 가운데 부라만테(1444-1514)가 그린 설계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부라만테는 그의 설계에서 성베드로의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커다란 돔(둥근 지붕)을 세울 것을 잊지 않았다.

사람들 눈에는 부라만테가 세우는 성당이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 거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로마 제국이 꿈꾸고 있는 이상의 야심적인 규모로 계획된 것이었다. 라스대사원의 천정은 37.5미터 높이었지만 성베드로사원의 천정은 돔을 빼놓고서도 그보다 7.5미터나 높은 것이다. 더욱이 그 둥근 지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유의 상을 포함한 미국 국회의사당의 돔을 그대로 집어넣어도 19.5미터의 여유가 있을 정도인 것이다.

다른 모든 것도 이와 똑같은 규모로 만들어졌다. 성베드로사원에는 44개의 계단이 있어 한꺼번에 마흔 군데서 예배식을 올릴 수가 있었다. 둥근 지붕을 받치는 창문은 폭이 18미터나 되고 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750개나 필요하였으며 장식되어 있는 성상은 390개나 되는데 모두가 규모가 커서 대리석으로 된 날개 달린 유아상은 여러분이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높이가 보통 210센치나 되며 비둘기 같은 것도 큰 닭만한 크기였다.

그런데 성베드로사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쳐 이와 같이 웅대하여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도는 1년이나 1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범황도 많이 바뀌고 12명 정도의 건축가가 차례로 이 성당을 짓는데 그 생애를 바쳤다. 부라만테가 죽은 후 라파엘, 상가루로,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도 관계하였다. 이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직경 41미터의 둥근 지붕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이었는데 그가 노경에 착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성당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못하였다. 로마가 외적에게 점령되어 약탈당하고 범황이 피난하고 반란과 시가전으로 해서 멸렬상태에 빠졌을 때라 할지라도 공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성당 건설자들은 성베드로사원을 될 수 있는대로 인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유념하였는데 이교도 시대부터 출몰 폐허화 된 연기장에서 있던 화강암 석탑을 1586년 성당이 반쯤 완성되어 갈 때 이것을 새로 세우는 성당 입구 앞 광장에 옮겨 그 정상에다 십자가를 달았다. 이것은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베드로의 죽음을 상징하는 석탑을 성당 입구 앞에 세워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았다는 사실은 보통 기념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성당은 초석을 놓은 지 120년이 지난 1626년에 겨우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분수라던가 둥그렇게 기둥으로 둘러쌓여진 대광장을 완성하기까지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완성된 성베드로사원은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불리며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지만 백문불여일견으로 그 장대한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면 직접 가보는 것이 제일이다. 더욱이 우리들은 알프스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 로마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마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고개턱에 다다르면 로마시가가 어렴풋이 보이며 소인 중의 거인처럼 다른 건물 위에 솟아있는 성베드로사원의 둥근 지붕이 바라다 보인다.

드디어 광장 입구에 다다른다. 광장 양쪽에는 돌기둥으로 된 반원형의 회랑이 둘러서 있고 두 개의 대리석 분수에서는 물이 뿜쳐 올라가고 있으며 석탑 위에 있는 금빛 십자가는 햇빛에 번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바로 앞에는 사원의 거대한 모습이 전개된다. 정문 입구에 가까이 이르면 그 머리 위에는 범황이 특별한 기회에 광장에 온 집한 군중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발코니가 있다.

성베드로사원은 그 외관으로도 충분히 경이의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내부를 보면 정말 놀랄만한 것이다.

정면의 큰 문을 열고 석조로 된 넓은 천정 밑을 깊숙이 걸어 들어가면 의자 하나 없는 텅 빈 홀이 나타난다. 그러나 홀주위에는 대리석과 청동으로 된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늘어서 있다. 거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유명한 동상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상인 것이다. 이 동상은 성당이 처음으로 이곳에 세워질 때부터 가장 명예스러운 위치를 점해 온 것이다.

이 동상에 접해서 둥근 지붕 바로 아래에 높은 계단이 있으며 그 위쪽에는 청동으로 된 천개(天蓋)가 네 개의 꾸부러진 기둥으로 박혀져 있다. 그리고 이 계단 바로 아래쪽에는 한단 아래로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빛 램프에 비친 무덤이 보인다. 그것이 성베드로의 무덤인 것이다.

다음에 위를 쳐다보면 둥근 지붕이 이 성스러운 장소 위로 높이 솟아있는 것이 보인다. 둥근 지붕의 천정은 108미터 높이나 된다. 여러분은 30층쯤 되는 고층건물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마천루처럼 솟아있는 24미터의 탑 끝과 거기 십자가가 있는 둥근 지붕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 천개의 크기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이다. 실사 미켈란젤로가 이 둥근 지붕 이외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죽었다 치더라도 그는 건축계의 거장으로서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둥근 지붕에 올라가자면 약 40층분의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탑 끝에 있는 십자가는 그만한 높이에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평편한 계단을 60미터쯤 올라가면 벽에는 몇 세기에 걸친 국왕이나 왕비나 장군들의 방문을 기록한 청동판이 끼어 있다. 이윽고 성당 지붕에 다 다르게 되는데 그것을 건너질러 둥근 지붕 밖으로 나서는 지붕은 흡사히 언덕처럼 보인다. 거기서 다시 쇠로 된 계단을 올라가면 커다란 문에 이르른다.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81미터 아래쪽으로 돌로 된 마루바닥과 성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방이 약간 보인다.

또한 머리와 팔 밖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동상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 점과 같은 줄이 머리 위의 산더미 같은 둥근 지붕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숨을 헐떡이면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 탑 꼭대기에 이른다.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다리가 걸려 있다.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십자가까지 가보지 않을 수 없다. 그곳의 돔은 직경이 3미터 정도 되어 18명의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돔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를 올라간다는 것은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기절할 정도다.

드디어 둥근 지붕 정상에 다다르면 바람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몸을 버티기 위해서 십자가 밑을 잔뜩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는데 그 장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려한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다시 성당 안으로 기어내려 오면서 그 화려함이 다른 어느 건물도 따를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 × ×



반공수필

북한애국동포는 나를 살렸다>④ 적지(敵地)속의 폭음(爆音)

이준수
〈공군문관〉

◇ 동지들의 품 속으로

그날 밤 아무 장애도 받지 않고 유격대가 주둔해 있는 곳까지 무사히 이동
을 했다.

여러 명의 유격대원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동지들 수고가 많소”하면서 유격대장이 손을 내민다.

“동지들의 안전 착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승전을 위하여 다
같이 싸웁시다.” 간단한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유격대장에게 부상당한 한국군
의 치료를 요청하였다.

나의 말이 떨어지자 그는 사방을 돌아보며 “상철 아저씨”하고 불렀다. 잠시
후에 조그마한 주머니를 한해 든 위생병

같지도 않은 사람이 “넛”하며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한국이가 앉아 있는
곳을 가리켜주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복, 한복, 양복, 학생복 차림의 사나이들이 마치 시골 장날같은 기분이 들
었다.

유격대장은 전원을 집합시키고 나서 우리를 소개한 후 우리들의 대략적인 임
무를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수행할 임무를 각 조별로 분담시켰다. 1조와 7
조는 지정된 곳까지 가서 교량을 폭파시킬 것, 2조와 5조는 괴뢰군이나 띄놈
들이 가설해 나가는 전화선을 최소한 사오백 미터 정도 끊어 가지고 올 것과
돌아오는 도중에 군수물자 수송차량을 만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처치해 버리
고 제2의 집결지로 가라는 것이었다. 유격대장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질문하
나 하지 않고 준비된 무장을 들고 떠났다.

그러자 유격대장은 미숫가루와 물을 들고나와서 우리들에게 주며 “당신들이
이 지방에 낙하산으로 투하된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그리 염려
하지 마시오”하면서 우리들의 임무를 묻기 시작한다.

“우리들의 임무는 적 후방에서 괴뢰군의 군수품 적재소 및 괴뢰군들과 중공
군들의 병력 이동사항을 아군에 연락하고 적군의 작전계획을 사전에 탐지하
여 공습으로 파괴시키는 한편, 현재 북한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격군 당신들에
게 공중보급을 받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유격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지들! 우리 단결하여
국군 용사들이 이곳에 진격해 올 때까지 뼈가 붙어 있는 동안 힘껏 싸웁시다”
하면서 “저는 대원들이 출동한 곳에 가서 상황을 한번 살피고 올테니 오늘 저
녁은 이 동굴 안에서 꼭 쉬시오”하며 일어섰다.

“저도 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까?” 내가 따라 일어서자 그는 손을 좌우로 흔
들며 “동지들은 무척 고단하실테니 오늘 저녁 이곳에서 쉬시오.” 하고는 권총
을 허리에 차고 따발총을 어깨에 메고 총신을 앞으로 오게 하고는 동굴 뚜껑
을 열고 나갔다.

나는 캄캄한 동굴 안에서 낙엽 속에 몸을 묻고 누었다. 조금 전에 눈앞에서
사라진 유격대원들의 행동이 눈앞에 나타났다가는 다시 먼 곳으로 사라지곤
하였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놈들과 싸우고 있을까? 때로는 그들에 대
한 방정맞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어째서 이 동굴 안에 우리 두 사람만 남겨두고…… 단둘이 있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나와 한국이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떨리는 몸과 답답한 가슴을 참을 수 없어 총을 들고 동
굴문을 차고 밖으로 나갔다.

은 산악과 별판은 달빛이 깔려 모든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시계를 보니 유격대장과 헤어질 지 어느덧 다섯 시간이 경과 했다. 나는 다시 가슴 앞에 매달린 총을 들고 다섯 시간 전에 유격대원들의 모습이 사라지던 곳을 바라 보고 있었다.

그러자 나의 눈에는 어떤 동물의 행동이 그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가 우거진 산골 길을 올라오는 동물을 향해 사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자세히 그곳을 보았다. 움직이고 있는 동물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희미한 달빛 그림자가 깔린 나무 속을 허위적거리며 올라오고 있다. 나는 음폐소를 찾아 몸을 숨겨 놓고는 동물이 움직이고 있는 곳을 향해 총구를 대고 있었다. 이곳은 아군과 적군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잠시 후에 나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틀림없는 유격대장이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동굴 안에 들어간 후에도 그가 올라온 길만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놈들이 유격대장을 미행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나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였다.

얼마동안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굴 앞에 다시 유격대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암호로 확인한 다음 유격대장 앞으로 달려가 전대원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웃는 얼굴로 나의 손을 잡았다.

“아—오늘 저녁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다른 대원들은 자기들의 주둔지로 전원 돌아갔지요. 비상시를 생각해서 한 곳에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큰 산악 각처에 동굴을 파고 주둔해 있습니다.”

◇ 알았다 당신의 감도……

이러한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수 주일이 지나갔다. 서로가 믿고 싸울 수 있는 전우가 되었다. 한국군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 조금씩 제 발로 걷기 시작했다. 대원 중에는 침을 잘 놓을 줄 아는 한의가 한 사람 있어 산악을 다니다 빠는 다리나 부상을 당하면 침과 한약으로 치료를 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유격군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우리들의 특별사명인 통신 연락을 시작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통신망은 통하지 않았다. 우리가 낙하한 지 무려 한 달이 지나도록 아군과 통신을 못 했다.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안테나의 방향도 변경하여 보았으나 영 통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가는 동안에 적군의 보급로와 군수물자는 유격군의 손에 속속 파괴되었다. 나는 몇 번

통신기를 저버리고 유격군들과 같이 행동하겠다고 유격대장에게 애원했으나 그는 그럴 때마다 나에게 타일렸다. “아직 시간이 많소, 지금부터 시작이오. 놈들을 하나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군과 빨리 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소? 이동지(李同志)! 통신기 고장은 아니니 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활동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이 근처는 우리들의 대상이 되지만 먼 곳에서 들어오는 좋은 정보는 많기도 우리들의 힘이 그곳까지 미칠 수 없으니 빨리 아군에 연락하여 공습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힘보다 몇 배나 크오”하면서 “이동지! 노력 후에는 반드시 성공할테니 그리 서두르지 마시오”하며 자기의 주둔지로 돌아갔다.

그 후 계속해서 교신 시간이 되면 통하지 못하는 통신기를 갖고 뛰드려 대다 가는 지쳐서 그대로 돌아오곤 하면서 수일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신 시간이 되어 나는 또다시 상대방의 호출부호를 뛰드리고 있었다.

그때다. 레시버 속을 울려 나오는 희미한 소리가 나의 귀전을 울렸다.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전파인지 나의 부호가 정확하게 들리고 나서 상대방의 호출부호를 친 다음에 — — — — — (QRK INT)와 — — — — — (OSV)가 들려왔다. 틀림없이 아군에서 나를 부르는 호출부호다. (위의 기호는 자기의 감도를 물으며 나에게 V를 연속 치라는 신호다.)

나는 미친 듯이 땅에 떨어져 있던 키—(KEY)를 들어 무릎에 끼고 일 분 동안이나 V를 연속 친 다음 나의 호출부호를 치고 이어서 —R—QRK 3 QRK INT—K(알았다. 당신의 감도는 들을 만하다. 나의 감도 여하?)를 쳤다. 키—에서 가만히 손을 떼고 있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오한과 함께 머리칼이 있는 대로 하늘로 뻗치는 듯했다.

안도와 불안을 같이 느끼면서 레시버를 귀에다 바짝 갖다 끼었다. 사오명의 유격대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나의 얼굴과 무전기를 번갈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다. 출역관을 통해 레시버에 들려오는 소리, 나의 호출부호가 나온 다음 QRK 2(겨우 들을만하다) 응신이 나의 시초 임무수행 열쇠를 열어준 것이다.

서로 겨우 들을 만한 감도를 가지고 몇 통 전문을 보내고 받았다.

우리는 교신이 끝난 후,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폭격을 하는지 알기 위해 산정으로 올라갔다.

만약 정확치 못한다면 다음 시간에 결과를 보고해야만 했다. 그러자 산정에 올라간 지 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산중에 숨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추위였으나 그렇다고 묵묵히 참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추위와 더불어 덮쳐 누르는 눈(雪) 때문에 우리들은 잠시 작전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락으로부터 산중까지 나타나는 발자국, 출동 후에 나타나는 발자국은 우리의 병력까지도 적에게 알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이 눈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위와 폭설기도 어느덧 지나갔다. 다시 시작되는 작전, 누가 시키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출동하는 우리들, 우리는 여기저기 이동하는 도중에 좋은 정보를 얻어 정보에 따르는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밤 열두 시경이 되면 적군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물자를 수송한다는 정보, 적군들의 자동차가 통과하는 위치까지도 정확했다.

어느 날 나는 열 명의 유격대원들을 인솔하고 먼 여행이나 떠나듯 꼭꼭 묶은 신발, 두 개씩 끼입은 옷에 매달린 총알을 만지며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밤 열한 시! 밤은 죽음과 삶의 차이를 없애 버린다고 그 누구는 말했다.

무엇인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내가 놈들을 노리고 간다는 생각이 나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우리는 굽어 도는 산중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 지방 정찰대원의 말이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한데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밤이 되면 괴뢰군과 중공군 차가 지나간다는 도로변에 배치되었다. 어두웠던 밤은 그믐달이 떠 올라 희미하게 밝아 왔다. 정말 쥐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밤이다. 그때 희미하게 자동차의 엔진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십 대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면 선두 차 한 대만을 남기고 없애 버릴테니 빨리 나타나기만 해라, 하는 생각뿐이다.

나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 산 구비 길을 돌아서 올라오는 자동차 행렬을 보고 있었다. 놈들의 자동차는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산골길로 접어들어 자그마한 등을 켜고 올라오고 있었다. 시커먼 괴물 같은 자동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차의 뒤를 따라 올라온다. 나의 시야에 든 차가 다섯 대 뒤에는 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병력 수송차라면 우리의 작전계획을 변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선두에 선 차가 나의 앞을 약 십 미터 정도 지나가자 유격대원 두 명이 길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동시에 우리가 뒤에 따라오던 차에 둘, 셋씩 집어던지는 수류탄이 사정없이 터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연발로 자동차 앞 운전석을 통과하는 총탄은 어김없이 한 곳으로 빠져나갔다.

그대로 뛰어내린 괴뢰 운전병들은 떨어지며 쓰러지는 놈, 운전석에 발만 걸치고 옆문으로 쓰러지는 놈,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놈, 놈들은 전부 합쳐야 육칠 명에 불과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놈들의 생사를 확인하려 했으나 제한된 밤이 밝아 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 세워 놓은 선두차로 달려갔다. 세 명의 유격대원들은 놈들을 묶어 놓고, 유격군의 운전병이 운전대에 올라앉아 있다. 그는 빨리 행동하자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 우리의 임무를 깨끗이 청산하자는 나의 말에 동의해서 길가에 굴러떨어진 차에 남은 연료에다 불을 지르고 선두차에 올랐다.

운전수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린다. 또다시 멀리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신작로는 마치 종이 공장에서 큰 로라에 말려 들어가는 종이와도 같이 보인다. 우리는 놈들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험한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릴 예정이다. 우리가 탄 차 위에는 괴뢰군 군관 복장과 쌀전대가 실려 있었다. 달리는 차 위에서 괴뢰군 군관 복장을 꺼내어 갈아입는 대원도 있었다. 차가 약 20분 동안 달리다가 헤드라이트를 끈다. 어둠을 헤친 나의 눈앞에는 두 명의 괴뢰군이 나타났다. 그러자 운전수가 소리쳤다. “동무들, 빨리 응원 좀 해주시오. 지금 약 이십 리 밖에서 녀 대의 차가 테러의 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소. 우리 차는 선두에서 달리다가 그대로 있는 속력을 다 내서 이곳까지 왔오.”

놈들은 큰 소리로 “알겠오, 우리도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지금 수색 나오던 길이요”

“동무!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오. 빨리 병력을 동원 시켜야지!” 나는 놈들에게 외쳤다. 이때 트럭 뒤에는 납치한 괴뢰군 운전병과 선두차에 동승했던 괴뢰군 특무장이 입을 틀어막혀 묶인 채로 피복더미 속에 끼어 놓여 있었다. 놈들이 만약에 발악을 한다면? 그러자 놈들의 묻는 한 마디가 들려왔다. “차 뒤에는 무엇을 실었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병력이 팔 명이나 되는데 왜 같이 싸우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오느냐고 질문을 하면?……그러나 서슴치 않고 운전수가 받아넘겼다. “인민군 동무와 피복이 실려 있소. 동무 빨리 올라타시오. 그래야 동무가 소속하고 있는 부대까지 가서 병력을 동원하여 그곳으로 갈 수 있지 않소? 지금쯤은 테러 개새끼들이 여기까지 따라올지도 모르오” 뒤에서도 빨리 타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두 명의 괴뢰군은 앞에 들었던 총을 어깨에 거꾸로 메고는 “네”하면서 자동차 뒤로 돌아갔다. 놈들은 차에 오르자 “동무들 수고합니다”하고 인사를 한다. 그러자 여기저기 우리 대원이 일어나며 두 명의 괴뢰군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안치고는 놈들의 양옆에 착 붙어 앉았다. “자 운전수 동무, 빨리 갑시다”하는 소리가 떨어지자 자동차는 언덕 내리막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녘에는 새벽을 가리키는 새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공군, 63년도 홀라잉 · 브라더스 대회서 우승

우리 한국 공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비올빈의 클라크 기지에서 개최된 63년도 홀라잉 브라더스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사진은 장 총장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는 한국공군팀의 참가단장 장성태 대령



문교부(文教部)서 공군(空軍)에 감사장(感謝狀)

- 우(雨) 문교부장관은 지난 4월 29일
- 장군이 전국 남녀학생들의 특수
- 흥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
-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사진=이(李)문교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오(吳)참모부장>



63년도 제1차 대학생 활공
훈련생 입소식 거행

63년도 제1차 중앙활공 훈련생 입소식
이 4월 15일 K-16기지서 거행되었다.

<사진=축사하는 오(吳)참모부장>



국군농구선수권대회서

우리 공군팀이 우승

4월 12일, 국군 농구선수권 대회
가장충단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공군팀은 육군팀을 93대 74, 해
군팀을 81대 72로 물리치고 우승하
였다.

<사진=동 대회광경>





인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